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30
예술의초대 창간 30주년

COVER STORY

국립창극단 '귀토'

COLUMN

늡음과 낡음의 차이

골목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공간소극장



August 2022
Vol.368

8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Violinist Soojin Han

BUSAN WORLD PHILHARMONIC ORCHESTRA

The Classic 아시아의 창(窓) 부산

베토벤 에그몬트 서곡 / Beethoven Egmont Overture Op.84
베토벤 삼중협주곡 / Beethoven Triple Concerto in C major Op.56
베토벤 교향곡 7번 / Beethoven Symphony No.7 in A major Op.92

첼리스트 문태국
Cellist Taeguk Mun

피아니스트 김정원
Pianist Julius-Jeongwon Kim

2022. 8. 31 | Wed |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 최 |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

| 후 원 |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KNN 문화재단**

| 협 찬 | **BNK 부산은행** **kwang 조광페인트**

| 문 의 | 051-850-9568

| 입장권 | 전석 무료(초대권 소지자, 인터넷 신청자에 한해 입장)

| 초대권 신청 | **KNN** 홈페이지 www.knn.co.kr

지휘 서희태
Conductor Heetai Suh

연주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Busan World Philharmonic Orchestra

*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공연은 부산광역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시민을 위한 초대권은 KNN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2 Busan OPERA Season

부산오페라하우스
성공 건립 기원 2022 부산오페라시즌



8. 26.(금) 19:30 금빛누리홀

콘서트오페라 <가면무도회>

지휘 홍석원 연출 표현진

R 5만원 S 4만원 A 2만원

문의 051-519-5661~4



10. 1.(토)~2.(일) 15:00 대극장

전막극 <라 보엠>

지휘 백진현 연출 엄숙정

V 10만원 R 8만원 S 6만원 A 4만원

문의 051-607-6000



10. 29.(토) 17:00 하늘연극장

콘서트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지휘 성기선 연출 안경모

R 5만원 S 4만원 A 2만원

문의 051-780-6060

590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2022

Soo-Yeoul Choi
Artistic Director &
Chief Conductor



LATE SUMMER - THE MAURICE RAVEL CYCLE VIII
2022 제13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IV



물결

지휘 아드리앙 페뤼송
소프라노 이명주

라벨 / 고귀하고 감상적인 왈츠
바버 / 녹스빌: 1915년의 여름 (한국 초연)
라벨 / 바다 위의 작은 배 (한국 초연)
드뷔시 / 「바다」, 3개의 교향적 스케치

2022년 9월 2일 금요일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창단60주년
부산시립교향악단

공동주관 부산문화회관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티켓 R20,000원 S15,000원 A10,000원 B5,000원
문의 051-607-6000(ARS1번)

www.bscc.or.kr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
with



연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 김종욱
사회 윤중강
향비파 마룡
25현 가야금 김보경 박소희
타악기 김인수
소리 박성희 정운형
합창 부산시립합창단

유민희 | 마음의 전쟁
김현섭 | 향비파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천장고임 '학을 탄 선인'
이재준 | 25현 가야금 이중협주곡 '별뿔별'
이예진 | 타악기를 위한 협주곡 '기우'
이정호 | 합창과 진도씻김굿, 국악관현악을 위한 '진혼'

2022. 8. 19 FRI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티켓 R석(1층) 10,000원 S석(2층) 5,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6000 (ARS 1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BMTMO SEASON 2022



SunaFun
Haeundae

해운대 문화회관
HAEUNDAE CULTURAL CENTER

부산시립예술단 구문화회관 순회공연 '예술로 행복하데이'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스타프로젝트>

몰리 스위니

작 Brian Friel

번역 김수기

재구성·연출 강성우

출연 이혁우, 오희경, 채민수

2022. 8. 31(수) ~ 9. 2(금)

오후 7시 30분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주최 |



해운대 문화회관
HAEUNDAE CULTURAL CENTER

주관 |



해운대 문화회관
HAEUNDAE CULTURAL CENTER

제작 | 부산시립극단

예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문의전화 | 부산문화회관 051) 607-6000(ARS 1번) / 해운대문화회관 051-749-7651

티켓 | 전석2만원

관람연령 | 중학생이상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68회 정기연주회

Mahler

말러 *Titan*

연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지휘 이명근 (수석지휘자)

Gustav Mahler

Program

구스타프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Gustav Mahler Symphony No.1 in D Major "Titan"

Langsam. Schleppend. Wie ein Naturlaut. Im Anfang sehr gemächlich

Kräftig bewegt, doch nicht zu schnell

Feierlich und gemessen, ohne zu schleppen

Stürmisch bewegt – Energisch

2022. 9. 6 | 화 |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관람료 균일 5,000원

문의 051-607-6000

60년의 전통과
진한 개성이 조합된 사운드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창단 60주년
기념연주회 <회갑>
2022.11.02. (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22년 교향악단 창단 60주년, 합창단 창단 50주년
**부산시립예술단이 희망과 감동의 무대로
예술의 숨결을 전합니다**

부산과 함께한 50년
우리의 하모니가
부산을 넘어 세계로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합창단 50주년
기념연주회 <4인 4색 합창축제>
2022.10.28.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CONTENTS

08

월간문화예술정보지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예술의 조대 August 2022 Vol.368

2022년 8월호 통권 368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정필
편집인 윤두현
편집위원 동길산(위원장), 권은영, 이상현, 정두환, 정봉석, 채영희, 홍동식
홍보팀장 서정환
편집장 정복엽
발행일 2022년 7월 25일
디자인·제작 호민디앤피

- 10 Column
높음과 낮음의 차이
- 12 Cover Story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립창극단 '귀토'
- 18 거꾸로 보는 미술사 ⑬
누드로 그린 자화상
- 22 세계오페라축제 ⑦
클래식 축제의 블록버스터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 26 골목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언젠가 세상은 연극이 될 것이다
공간소극장
- 30 Preview
- 40 Issue
2022 부산 오페라시즌
2022 제13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 46 Review
- 50 Program Guide
- 62 New Book
- 63 BSCC News

SUN	MON	TUE	WED
<p>공연</p> <p>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1	2	3
<p>7</p> <p>제1회 BIASF 부산국제예술가곡축제 개막콘서트 '베이스 연광철 리사이틀' 19:30 대 10만원·7만원·5만원 아트컴퍼니 소미(010-5944-1733)</p>	8	9	10
<p>14</p> <p>KBS부산무용콩쿠르 08:00 중 KBS부산방송총국(620-7327)</p>	<p>15</p> <p>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 10:00 대 부산광역시 총무과(888-1854)</p>	<p>16</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시 '양리 마티스:라이프 앤 조이' 연계특강 14:00 참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22년 브니엘 무용 예 대 무료/브니엘예고(51...) 제1회 BIASF 부산국제 '이탈리아 가곡과 아리아 중 8만원·5만원·3만원 아트컴퍼니 소미(010...) 제7회 테너 양승엽 독창 참 양승엽(010-7767-4...</p>
<p>21</p>	<p>22</p>	<p>23</p> <p>센토챔버스사이어티 제11회 정기연주회 '20C' 19:30 중 2만원·1만원/센토챔버스사이어티(442-1941)</p>	<p>24</p>
<p>28</p> <p>후 브라스 콰이어 제10회 정기연주회 'WIND for BUSAN' 18:00 중 전석 1만원/후 브라스 콰이어(010-8733-7438) 오순도순 정다운 노래여행 '2nd 젊은 오빠와 젊은 누나들 노래' 18:00 참 무료/오순도순 우리가곡부르기(010-4628-3098)</p>	<p>29</p>	<p>30</p> <p>2022 제13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I '개막콘서트' 19:30 대 3만원·2만원·1만원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조직위원회(516-8293) 제1회 샤르망 앙상블 창단연주회 19:00 참 샤르망 앙상블(010-7689-9303)</p>	<p>31</p> <p>2022 제14회 부산월드필름 '더 클래식, 아시아의 창 대 초대(KNN홈페이지를 KNN(850-9568) 2022 제13회 부산마루국제 'Composer & Piano 중 전석 1만원 (사)부산마루국제음악...</p>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WED	THU	FRI	SAT
3	4	5	6
<p>예술제 19:30 (03-9710)</p> <p>예술가곡축제 '의 밤' 19:30 (05-5944-1733)</p> <p>악회 19:30 (03-390)</p>	<p>제1회 BIASF 부산국제예술가곡축제 '아마추어 성악가의 밤' 19:30 [중] 전석 2만원/아트컴퍼니 소미(010-5944-1733) 이해경 & 조영웅 듀오 리사이틀 19:30 [캠] 전석 2만원/THE SMI(010-4063-0645)</p>	<p>제1회 BIASF 부산국제예술가곡축제 '한국가곡의 밤' 19:30 [중] 8만원-5만원-3만원 아트컴퍼니 소미(010-5944-1733)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19:30 [캠]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제48회 부산의·치대관현악단 정기연주회 19:00 [대] 초대/부산의·치대관현악단(010-8786-5052) 테너 최용준 귀국독창회 17:00 [중] 이신범(010-4434-0627)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시 '앙리 마티스:라이프 앤 조이' 연계특강 14:00 [캠]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10	11	12	13
<p>예술제 19:30 (03-9710)</p> <p>예술가곡축제 '의 밤' 19:30 (05-5944-1733)</p> <p>악회 19:30 (03-390)</p>	<p>제1회 BIASF 부산국제예술가곡축제 '아마추어 성악가의 밤' 19:30 [중] 전석 2만원/아트컴퍼니 소미(010-5944-1733) 이해경 & 조영웅 듀오 리사이틀 19:30 [캠] 전석 2만원/THE SMI(010-4063-0645)</p>	<p>제1회 BIASF 부산국제예술가곡축제 '한국가곡의 밤' 19:30 [중] 8만원-5만원-3만원 아트컴퍼니 소미(010-5944-1733)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19:30 [캠]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KBS부산무용공쿠르 08:00 [중] KBS부산방송총국(620-7327)</p>
17	18	19	20
<p>악회 정기연주회 19:30 (010-4313-7113)</p>	<p>허경미무용단 무무 '그리하여 능청이다' 20:00 [중] 전석 2만원(예매시 1만5천원) 허경미무용단(010-9274-5596) 제1231회 MBC목요음악회 '라베스 피아노 트리오와 함께하는 빛나는 시간' 19:30 [캠] 1만원5천원/(사)문화도시 부산네트워크(760-1494)</p>	<p>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with 아랑제' 19:30 [대] 1만원-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노부스 콰르텟 '오직 베토벤' 19:30 [중] 5만원-3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제이아트양상블 어울림 콘서트 19:30 [캠] (주)음연(02-3436-5152)</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핑크퐁 클래식 나라-뚜띠를 찾아라' 17:00 [대] 5만원-4만원-3만원(3개월 이상 관람)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한국인이 좋아하는 오페라 작곡가 시리즈 '모차르트 갈라콘서트' 17:00 [중] yj클래식스(010-6307-6885)</p>
24	25	26	27
<p>허경미무용단 무무 '그리하여 능청이다' 20:00 [중] 전석 2만원(예매시 1만5천원) 허경미무용단(010-9274-5596) 제1231회 MBC목요음악회 '라베스 피아노 트리오와 함께하는 빛나는 시간' 19:30 [캠] 1만원5천원/(사)문화도시 부산네트워크(760-1494)</p>	<p>허경미무용단 무무 '그리하여 능청이다' 20:00 [중] 전석 2만원(예매시 1만5천원) 허경미무용단(010-9274-5596) 제1231회 MBC목요음악회 '라베스 피아노 트리오와 함께하는 빛나는 시간' 19:30 [캠] 1만원5천원/(사)문화도시 부산네트워크(760-1494)</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수퍼 타이거(Super Tiger)' 20:00 [대]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테너 조윤환 독창회 '사랑, 그 황홀하고도 슬픈...' 19:30 [중] 2만원-1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수퍼 타이거(Super Tiger)' 17:00 [대]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첼리스트 조형준과 함께하는 앙상블 아토 일곱 번째 정기연주회 'Carnival of 아토' 17:00 [중] 2만원-1만원/앙상블 아토(010-7640-4240) 트리오 에클라 'SHALL WE DANCE?' 17:00 [캠] 초대/트리오 에클라(010-8272-5306)</p>
31			
<p>하모닉오케스트라(BWPO) (총) 부산' 19:30 (총)을 통해 초대권 신청) 예술제 프롤나드콘서트 I '박명환' 19:30 (재)부산문화회관(516-8293)</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명작 가족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7월 2일(토)-8월 28일(일) 주말 오전 11:00, 오후 2:00(평일 11:00 공연은 단체 관람) ※ 관람 전 일정 확인 ■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 회원 50% 할인) ■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앙리 마티스:라이프 앤 조이 7월 9일(토)-10월 30일(일) ■ 입장료: 일반 1만8천원, 청소년 1만5천원 어린이 1만2천원 ■ 문의: (주)가우디움어소시에이츠 1661-1079</p>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사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SUN	MON	TUE	WED
<p>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7</p>	<p>1</p>	<p>2</p> <p>2022 사이니스타를 찾아라 부산 예선 14:30 (소) 부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554-0159)</p>	<p>3</p>
<p>14</p> <p>202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봄을 기다리며' 15:00 (소) (사)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257-0057)</p>	<p>8</p>	<p>9</p>	<p>10</p>
<p>21</p> <p>뮤지컬 '민짜미_사랑해요 엄마!' 11:00, 14:00 (대) 6만6천원-5만5천원/동그라미그리기(1577-4868)</p>	<p>22</p>	<p>23</p>	<p>24</p> <p>창작뮤지컬 '소중한 약속' (소) (사)부산광역시 산업 (807-0091, 010-3</p>
<p>28</p> <p>동백대상국제음악콩쿠르 09:00 (소) 동백엔터테인먼트(201-0222)</p>	<p>29</p>	<p>30</p> <p>제108회 한국의 명인명무전 19:30 (대) 동국예술기획(010-4762-4333)</p>	<p>31</p> <p>2022년 풍류전통예술원 '풍류만월(風流滿月)' 19:30 (대) 풍류전통예술원(010-3333-3333) 부산시민회관 2022 문화배시시 명품극장 '디토 퍼 (소) 무료(선착순 예매) (재)부산문화회관(6</p>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WED	THU	FRI	SAT
3	4	5	6
10	11	12	13
17	18	19	20
24	25	26	27
31			

15:00
재해장애인협회
8338-6082)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14:00
☎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864-1365)

동백대상국제음악콩쿠르 10:00
☎ 동백엔터테인먼트(201-0222)

블록버스터 영화음악 콘서트 17:00
☎ 12만원-9만원-6만원-4만원
클럽서비스㈜(1577-3363)
동백대상국제음악콩쿠르 09:00
☎ 동백엔터테인먼트(201-0222)

기획공연
19:30
0-2781-3888)
가있는날
라디소' 19:00
07-6000)

부산시민회관 전시실

전시와 이야기가 있는 5인 5색 여름이야기
8월 2일(화)-8월 21일 전시실 1
(※ 월요일 휴관)
우리아트 010-2386-8639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미술 교류 초대전
8월 9일(화)-8월 14일(일) 전시실 2
동주대학교 광고시각디자인과 200-3324

아름다운 규방공예 '고운손길전'
8월 24일(수)-8월 28일(일) 전시실 1
이신자 010-4581-2907
보혜스님의 차향그리기
8월 30일(화)-9월 11일(일) 전시실 1
(※ 월요일 휴관)
향기로운 문화동행 010-8689-9809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늡음과 낑음의 차이

채영희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최근 ‘10년’이라는 제목의 옴니버스 영화를 보았다. 그리고 한참 멍하니 있었다. 곧 다가올 나의 일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영화는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국가의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쓸모없음’으로 분류되는 75세 이상의 국민에게 국가를 위해 스스로 죽음을 신청하도록 권장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감독은 소득 하위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인구관리국의 ‘PLAN75’라는 제도를 통해 미래 사회에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제시하고 인간의 잔인한 선택에 대한 오싹한 질문을 던진다. 45세의 히야카와 치에(早川千繪) 감독은 이 영화로 올해 칸 영화제에서 ‘카메라 도르 특별 언급상’을 받았다.

나는 매일 늡어 가고 있다. 그러나 노화는 질병이 아니다. 노화를 질병으로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 자연의 섭리에 따르고 시간에 순응하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하는 자연의 질서이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 사회가 OECD국가보다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면서 노인들을 젊은이의 부양 부담을 가중하는 존재로 몰아가고 있다.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할 때마다 노인들을 불러낸다. 생산인구는 빠르게 줄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이며, 국민연금 수령자는 607만 명이나 된다는 자료를 토해낸다.

그런데 지금 은퇴하는 1차 베이붐 세대라 불리는 이들은 하루에 15시간 이상 일하면서 가족보다는 회사를 위해 일했고, 수출 물량을 해내기 위해 공장에서 밤샘 작업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좁은 농토에서 벼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밤낮없이 일했고, 먼 바다로 나가 몇 년에 한 번씩 집에 오면서 물고기를 잡아 외화벌이를 하



면서 오늘의 번영을 만든 이들인데 지금 우리 사회가 늙은이들에게 부여하는 ‘쓸모없음’이라는 냉대는 한없이 쓸쓸하기만 하다.

1968년 나온 장 아메리(Jean Amery)의 <늙어감에 대하여-저항과 체념 사이에서> 책 81쪽에서 ‘아픔으로, 무엇보다도 늙어가면서 일상을 감당하기 힘든 쇠약함으로, 비로소 고스란히 몸이 발견된다. 몸은 생생한 아픔 그대로이며 더는 세계와 공간으로 나아가 그 안에서 녹지 않는다. 몸은 있는 그대로의 나인 동시에, 늙어가는 사람이 자신 안에 켜켜이 쌓아놓은 시간 바로 그것이다’라는 구절을 발견하고 공감했다.

우리말 ‘늙다’와 ‘낡다’는 살아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쓰임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에는 ‘늙다’를 쓰고, 물건에는 ‘낡다’라는 말로 구별한다. 이 두 말 속에는 많은 날들이 숨어 있다. 늙어가고 낡아간다는 말은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 농경사회에서는 노인의 날마다 경험으로 켜켜이 쌓아 온 지혜로움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였지만 4차산업시대는 노인의 가치로움을 알아 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는다.

베르그송은 “인간은 각각 물리적 압박과 열망이라는 두 가지 힘에 의해 움직인다”고 했다. 물리적 압박의 힘은 반복과 단련을 통해 인간을 전문가로 키워내는 동력이 되었으며, 열망의 힘은 불확실한 세계를 탐험하는 원동력이 되어 지금의 세상을 만들어 왔다.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물리적 압박을 견디면서 전문가로서의 세계를 좁고 깊게 만들어 냈으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내고 싶다는 열망으로 더 넓은 세상을 열어내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노인이 된다는 말은 이제 고단한 물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이 그동안 여러 이유로 미처 하지 못한 열망들에게 시간을 허락한다는 말이 아닐까 싶다. 니체의 <유고> 중 “너 자신을 위한 목표들, 고귀한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파멸하라. 더 위대하고 불가능한 것을 추구하며 파멸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나는 알지 못한다. 위대한 영혼은 아낌없이 탕진한다”라는 구절에 여전히 가슴이 뻘뻘 아직 덜 늙은 것인가? 나는 시인 김광규의 “덧셈은 끝났다/밥과 잠을 줄이고/뺄셈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구절보다는 니체의 말을 추앙하면서 아낌없이 탕진하는 은퇴 계획을 세워야겠다.



2022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국립창극단
귀토

귀토



해학의 극치
새로운 '수궁가'
탄생

판소리 다섯 바탕 중 하나인 '수궁가'를 창극으로 새롭게 탄생시킨 국립창극단 '귀토'가 부산을 찾는다. 특히 이번 작품은 국립창극단 최고 흥행작인 '변강쇠 점 찍고 웅녀'의 연출가 고선웅과 음악감독 한승석 콤비가 다시 손잡은 화제작으로, 국립창극단 전 단원을 포함해 총 53명의 출연진이 총출동하는 대규모 무대이다. 토끼인 '토자(兔子)' 역할은 2021년 JTBC <공류대장>에서 준우승을 거머쥔 국악계의 아이돌 김준수, 토끼와 함께 작품을 이끌어가는 또 다른 주인공 자라 역은 판소리 신동으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유태평양이 맡아 국악팬들을 설레게 한다.

지금 우리가 딛고 선 여기에서, 희망을 찾자

국립창극단은 판소리 '수궁가'를 현대화하는 데 있어 동시대에 주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화두로 삼았다. 극작과 연출을 맡은 고선웅은 대본을 창작에 가까울 정도로 새롭게 각색하면서 사군이충(事君以忠,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김), 약자와 강자 사이의 대립구조 등 '수궁가'를 둘러싼 전형적 관념에서 탈피,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접근했다.

이번 무대에서 '귀토'는 '거북과 토끼(龜兔)'를 뜻하는 동시에 '살던 땅으로 돌아온다(歸土)'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고선웅 연출가는 원전 중에서 토끼가 겪는 삼재팔란(三災八亂)이 오늘날 인류가 처한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특히 이 대목에 주목했다. 작품은 파란 가득한 육지를 피해 신세계 수국(水國)을 찾아 떠나지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돌아와 예전 터전의 소중함을 깨닫는 토끼에게 방점을 찍는다. 바람을 피할 것이 아니라, 바람 속에서 흔들리며 춤추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지금 우리가 딛고 선 여기에서 희망을 찾자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 '토끼'는 영민함을 무기로 꾀를 내어 위기를 돌파하는 약자의 대변자가 아닌, 사유하는 존재이자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치며 성장하는 캐릭터로서 그 의미를 지닌다. 다시 돌아온 세상은 변함없이 어수선하지만 이를 대하는 태도가 한층 성숙해진 토끼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오늘날 관객에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을지 자문하게 한다.

판소리가 지닌 무한한 상상력을 담아낸 무대

작곡과 음악감독을 겸한 중앙대학교 한승석 교수는 이번 작품에서 박진감 넘치는 전통 소리의 힘을 선보인다. 판소리 '수궁가'의 주요 곡조는 최대한 살리면서도 각색된 이야기의 이면에 맞게 소리를 배치하고 새로 짜는 과정을 거쳐 극과의 절묘한 조화를 선보인다. 또한 국악기로 편성된 15인조 연주단의 다채로운 라이브 연주가 극의 분위기를 환상적으로 배가시키는 가운데, 소리꾼 38명이 국립창극단의 기운차고 신명난 기세를 고스란히 전한다.

이밖에 안무가 지경민은 '동물춤의 일인자'인 명무 공옥진의 움직임에서 영감을 얻어 '수궁가' 속 각양각색의 동물들을 단순하면서도 특징적인 안무로 재치있게 표현한다. 무대는 지난해 제31회 이해랑연극상을 받은 무대디자이너 이태섭이 맡아 판소리가 지닌 상상력을 극대화하며, 의상은 전통한복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는 차이킴의 김영진이 제작하는 등 최고 제작진이 합세해 전통과 현대



의 조화가 두드러지는 격조 높은 무대를 완성한다.

이번 작품에서는 국립창극단 전 단원을 포함하여 객원까지 54명이라는 대규모 출연진이 무대에 오른다. 특히 소리와 연기, 몸짓만으로 육지·수중 동물을 표현해야 하는 만큼, 각자의 개성을 지닌 국립창극단 모든 배우들이 주인공이라 할 수 있다. 원전을 재해석하면서 변화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캐릭터들도 눈에 띈는데, 작품을 이끌어가는 ‘토자(兎子)’, ‘자라’ 역의 국립창극단 간판배우 김준수와 유태평양 외에도 극적인 에너지를 더하기 위해 토자와 ‘그렁고 그런 사이’로 등장하는 ‘토녀(兎女)’ 역을 맡은 경이 맡아 극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밖에 반전의 매력을 가진 용왕을 비롯해 반골 기질의 병마사 주꾸미, 형 집행관 전기뱀장어 등 특색 있는 캐릭터는 국립창극단 최호성, 최용석, 조유아 등 선 굵은 배우들이 맡아 극의 완성도를 높인다.

국립창극단, 오늘의 창극을 만든다

국립창극단은 1962년 창단 이후 지난 60여 년간 현존하는 판소리 다섯 바탕(수궁가·심청가·적벽가·춘향가·흥보가)을 소재로 한 창극을 꾸준히 제작해오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는 기존과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현대적 감각의 판소리 다섯 바탕 외에도 스릴러를 표방한 창극 ‘장화홍련’, 그리스 비극을 원작으로 한 창극 ‘미디어’, 서사극의 대가 브레히트 대표작으로 만든 ‘코카서스의 백묵원’, 오페라를 원작으로 한 창극 ‘오르페오전’ 등 기존 창극이 다루지 않았던 다양한 소재들을 창극화하면서 창극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높여왔다. 이외에도 세계적 명성의 해외 연출가와 함께 창극 ‘안드레

이 서반의 다른 춘향(2014년, 연출 안드레이 서반), ‘트로이의 여인들’(2016년, 연출 웅켄센, 공동제작 싱가포르예술축제), ‘패왕별희’(2019년, 연출 우싱귀)를 제작하여 공연계 안팎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국립창극단은 사라진 판소리 일곱 바탕의 이야기를 창극화하는 ‘판소리 일곱 바탕 복원시리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창극 ‘배비장전’과 ‘숙영낭자전’, ‘변강쇠 점 찍고 웅녀’ 등을 제작했다. 특히 ‘변강쇠 점 찍고 웅녀’는 창극 대본으로는 최초로 2014년 제8회 차범석희곡상 뮤지컬 극본 부문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2016년에는 창극 최초로 프랑스에 진출했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단일 작품 100회 공연을 돌파하기도 했다. 국립창극단은 한편으로는 창극의 토대가 되는 판소리 보존에도 힘을 쏟아 전국 각지의 명창들이 꾸미는 ‘완창판소리’ 무대를 37년째 열어오고 있는 등 판소리에 뿌리를 두되 동시대 감각에 맞춘 ‘오늘의 창극’으로 세계 속에 우리 음악극인 창극의 위상을 높이 세워 나가고 있다.

국립창극단 8월 12일(금)-13일(토) **금요일 19:30, 토요일 15:00**
귀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R 50,000 **S** 30,000 **A** 20,000
 (만 7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극본·연출	고선웅	작곡·음악감독	한승석
공동작창	유수정·한승석	안무	지경민
출연	김준수(토자), 유태평양(자라), 민은경(토녀), 최호성(용왕) 허종열(단장), 최용석(주꾸미), 이광복(토부), 이소연(토모) 김금미(자라모), 서정금(자라처) 외 국립창극단 및 객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www.bscc.or.kr



웃다가 깨닫는 고선웅표 코미디 창극

윤종강 국악평론가

‘귀토’가 드디어 부산에서 공연한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7월 11일, 국립창극단 단원 전체가 모여서 연습을 새롭게 시작했다. 국립극장 뜰 아래, 국립창극단 리허설룸이 북적북적했다. 작년에 공연했던 작품이나, 마치 새로운 작품을 대하는 듯했다. ‘귀토’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는 단원들의 열의에서,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게 바로 이런 거란 생각이 들었다.

국립창극단은 늘 그런 자세로 창극을 만들고 있다. ‘창극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익숙한 듯 새로운 창극을 만들어내고 있다. 2010년대, 우리나라 창극의 중요한 성과는 ‘고선웅표’ 창극이다. 작가이자 연출가인 고선웅은 세 편의 창극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의 영향력은 매우 컸다. 변강쇠 점찍고 웅녀(2014), 흥보씨(2017), 귀토(2021). 이렇게 세 편인데, 이 작품이 국내와 해외에서 큰 호응을 얻으면서, 고선웅은 단박 대한민국 창극의 대표연출로 자리매김했다.

그가 지금까지 만든 창극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첫째, 전해오는 판소리에 뿌리를 둔다. 둘째, 그걸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적절히 ‘거리두기’를 한다. 셋째, 판소리 특유의 ‘말맛’을 바탕으로 고선웅표 코미디를 만들어낸다. 넷째, 웃고 즐기는 가운데, 전해지는 목적인 메시지가 존재한다. 다섯째, 연출로서 배우 자체가 무대에서 잘 놀 수 있도록 판을 잘 만들어준다. 이게 고선웅표 창극의 오덕(五德), 다섯 가지 미덕이다.





귀토, 두 가지 의미

귀토는 수궁가에 뿌리를 둔 작품이다. 원래 '귀토지설(龜兔之說)'이란 설화에서 시작되었다. <삼국사기>의 '김유신전'에 나오는 얘기다. '귀토'란 제목은 이렇게 역사책에서 가져온 것이지만, 또 다른 의미가 함께 존재한다. 귀토(龜兔)는 각각 거북 귀(龜)와 토끼 토(兔)의 합성어이지만, 창극 '귀토'에선 여기에 한 가지 의미가 추가된다. '흙으로 돌아온다'라는 귀토(歸土)의 의미가 합쳐진다. 작품에선, 물이 싫어서 물(수궁)로 갔던 토끼(토자)가 다시 물으로 돌아와, 땅을 바라보는 장면이다. 땅에 그저 손 하나 가져갔을 뿐인데, 땅에 가볍게 얼굴을 대었을 뿐이나, 이 장면을 볼 때 당신의 심장의 반응은 좀 다를 거다.

"이거 개콘보다 재밌네" "저 배우, 코미디빅리그보다 더 웃기네" 당신은 '귀토'를 보면서, '고선용표 코미디'에 빠질 거다. 국립창극단 배우들의 연기력에 혀를 내두를 거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당신의 뒷머리를 땀 건드릴 거다. 웃다가 깨닫는 경험을 할 거다.

유태평양(자라), 김준수(토자)

민은경(토녀), 최호성(용왕)

창극은 배우의 예술이다. 국립창극단에는 원로부터 신진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배우가 다양한 연기스펙트럼을 자랑한다. 그렇다면 국립창극단의 '귀토'에선 어떤 것에 보다 집중을 해서 봐야 할까? 젊은 배우들의 앙상블이다.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귀토의 주인공 4인은 모두 젊은 배우다. 그동안 국립창극단의 역사를 살피면, 용왕은 '원로배우'가 뒤편이었

다. 그러나 부산공연을 시작으로 달라진다. 용왕도 젊은 배우 최호성에게 돌아갔다.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속일려구" 바다 속 물고기들이 킁킁대는 장면이 있다. '귀토'는 앞서 말했듯 '수궁가'에 근거한 작품이지만, 과거의 '수궁가'는 잊는 게 좋다. 이렇게 기존의 '수궁가'의 허를 찌르는 장면이 무척 재밌다.

토끼도 한 배역이 아니다. 토자와 토녀다. 남토끼와 여토끼의 커플이다. 다시 생각해보면, 잘 알지 못하는 낯선 세계에 우리도 달랑 혼자 가긴 어렵지 않았을까? 남토끼는 여토끼와 함께 바닷속을 향한다. 이 세 배우의 앙상블을 보는 것만으로도, 귀토를 보는 즐거움이 있다. 능란한 유태평양(자라)과 노련한 김준수(토자), 여기에 시크한 토녀(민은경)가 가세하여 펼쳐지는 이야기에서, 당신은 어쩌면 당신의 모습 또는 당신 주변의 어떤 사람을 보게될 지 모르겠다. 당신이 알고 있는 '고전' 수궁가의 자리에, 마치 '웹툰' 귀토가 놓여질지 모르겠다. 웹툰 같기도 하고, 웹툰으로 새롭게 만들어 본다면 더 재밌을 것 같은 장면들이 겹쳐질 거다.

최용석(주꾸미), 조유아(전기뱀장어)

이시웅(남생이), 서정금(자라처)

당신도 이런 경험이 꽤 있을 거다. 영화나 연극을 보러 갈 때, 주인공을 보려고 티켓을 끊었는데, 나올 땐 주연보다는 빛나는 조연의 연기에 감탄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가 있을 거다. 귀토가 딱 그렇다. 빛나는 조연이 최용석과 조유아. 최용석

은 주꾸미 역할을 맡았다.

영화 ‘남산의 부장들’(2020)을 알고 있는가? 그 영화에 이병헌(김규평 역)과 이성민(박통 역)이 있다. 창극 ‘귀토’와 영화 ‘남산의 부장들’을 평행이론으로 본다면, 이병헌(김규평)이 최용석(주꾸미)이요, 이성민(박통)이 최호성(용왕)이다. 귀토는 이렇게 한국현대사 또는 한국정치사를 패러디한 우화처럼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궁금증이 좀 생길 거다. 영화가 그런 것처럼, 창극에서도 최용석이 최호성에게 총을 겨눌까? 그래서 죽게 될까? 스포일러는 아니니, 조금은 공개하자. 고선웅이 누구냐? 그런 상황을 가져왔어도, 그렇게 전개할 것 같은가!

귀토란 창극에서 주꾸미는 비교컨대 판소리 ‘춘향가’에서 이몽룡과도 비교된다. 실제 귀토에는 변학도의 생일잔치에서 불청객으로 찾아와서 ‘금준미주는 천인혈(金樽美酒千人血), 곧 금술잔에 담긴 고급 술은 백성의 피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다. 그럼 이렇게 외치고 나서, 주꾸미가 용왕을 향해 뭔가 한방을 날렸을까? 그렇다면 그건 고선웅이 아니지. 고선웅의 작품의 저변에 흐르는 것은, 엉뚱한 코미디의 재미다. 궁금하다고? 그럼 이 또한 스포일러까진 안 될 것 같으니, 이 밑밥 하나를 특 던져 보자.

국립창극단에는 조유아라는 배우가 있다. 창극 관객들은 이 배우가 무대에 등장할 때부터 웃는다. 이번에 조유아는 뽕장어다. 그냥 뽕장어가 아니라, 전기뽕장어다! 여기까지 말해두겠다. ‘남산의 부장들’에서 박통이 죽는 것처럼, ‘귀토’에선 용왕도 목숨이 끊어질까? 이것은 답하지 않겠다. 부산시민회관에 오시면, 매우 즐거운 장면 속에서 그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서정금이 라미란! 이시웅이 배성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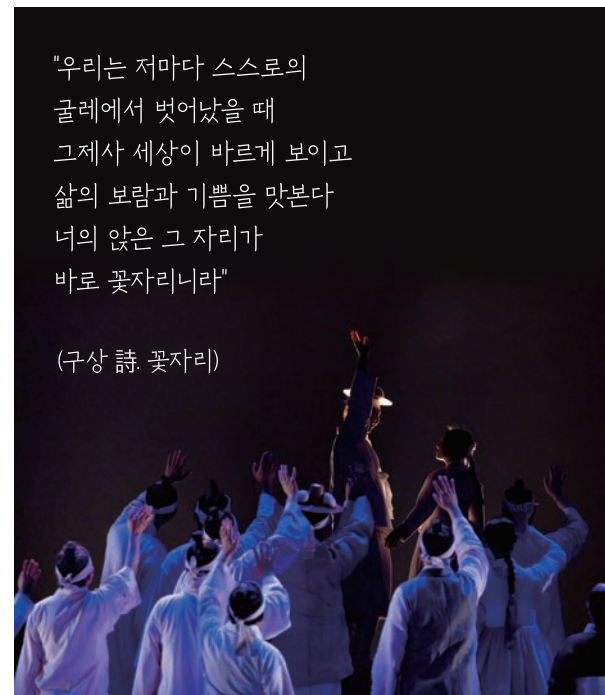
창극 ‘귀토’는 이렇게 국립창극단의 젊은 배우들의 활약이 대단하다. 그런데 이런 젊은 단원들 사이에서, 중견 단원이 힘을 확실히 실어주고 빠진다. 그렇다! 썬 스틸러 같은 두 배우! ‘창극계의 라미란’이라고 할 서정금은 자라처 역할을 맡았고, ‘창극계의 배성우’라 할 이시웅은 남생이 역할을 맡았다. 용왕의

명을 받고 자라가 물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심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냐고? 남생이다. 왜냐고? 이 남자는 내심 자라처를 흠모했다?! 그럼 이 창극 혹시 19금? 절대 아니다. 온 가족이 매우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걸 각자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코미디창극이다.

이들뿐 아니라 김차경(백녀우), 우지용(호랑이), 이광원(넙치)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또 다른 즐거움을 경험할 거다. 전체적으로 광대들의 판놀음에 근거한 ‘귀토’에서 국립창극단의 중심축 허중열(단장)과 김금미(코러스장), 두 분의 무게감있는 배역에도 반할 거다.

부산에선 ‘귀토’를 언제 볼 수 있냐고? 8월 12일(금)과 13일(토),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귀토를 꼭 봐야 할 사람은 누구냐?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그램에 지친 당신, 여럿이 나와서 수다를 떠는 프로그램이 그 땐 좋은데 끝나고 나선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당신. 그런 사람들에게겐 귀토가 귀중하다! 귀토엔 웃음이 있다. 보고 난 후, 여운이 있다!

귀토를 본 후, 당신은 객석에서 일어나며 이 시를 떠올리게 될 거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사 세상이 바르게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본다
너의 앞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구상 詩. 꽃자리)

누드로 그린 자화상

허나영 한국연구재단 연구교수

서양미술에 있어서 가장 많이 그려진 소재 중 하나는 '누드'이다.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르네상스를 거쳐 현대까지, 누드는 아름다운 신이나 인간을 표현하기 위해 그려졌다. 또한 남성이나 아이의 모습도 있지만, 여성의 누드가 주로 그려져 왔다. 일반적으로 '모델'을 생각하면 '누드의 여성'이 떠오르고, '화가' 하면 턱수염이 덩수룩한 백인 남성이 떠오르는 것처럼 말이다. 이는 그저 서구 사상의 문제나 남성 위주의 사고를 하고 있는 일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이자 아시아인인 필자 역시도 이러한 도식적 사고를 벗어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누드 작품 속 주인공은 여성이고 이를 그린 화가는 남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드로 그려진 여성은 마치 아름다운 장미나 바다 풍경처럼, 표현되는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그렇지만 누드를 그저 대상으로 보지 않은 작가도 있었다.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누드를 활용한 화가들이다.

- 1 르누아르, <부지벌의 무도회>, 1883년, 캔버스에 유채, 98X182cm, 미국 보스턴 미술관 소장
- 2 톨루즈-로트렉, <숙취>, 1889년, 캔버스에 유채, 47X55.3cm, 영국 캠브리지 포그 박물관 소장



서양미술사 속 여성 화가

이탈리아 바로크 화가 아르테미지아 젠틀레스키나 마리아-앙투아네트의 화가 비제-르브윙 등 여러 여성 화가가 있었지만, 이들은 주류 미술계에 들기 쉽지 않았다. 당시 남성 화가들은 이들을 동등하게 보기보다는 다소 특이한 경우 정도로만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9세기 말이 되어서야 여성도 동등한 작가의 자격으로 전시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인상주의자들의 전시였다. 대표적으로 베르트 모리조(Berthe Pauline Morisot, 1841-1895), 메리 카셋(Mary Cassatt, 1844-1926), 그리고 수잔 발라동(Suzanne Valadon, 1865-1938) 등이 있었다. 이 여성작가들은 협회에 동등하게 회원으로 가입하고 예술에 대한 토론을 함께 했다. 비록 당시에도 여성이라면 성인이 되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가정을 꾸리면서 사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들은 화가라는 직업을 고집하면서 끝까지 작품 활동을 해나갔다. 이것만으로도 당시에는 구설에 오를 만한 것이었다. 실제로 베르트 모리조는 남편의 형이자 동료 화가인 마네와의 염문설에 아직도 오르내리고 있다. 그리고 카셋은 화가의 활동을 위해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래도 모리조와 카셋은 경제적인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화가 수잔 발라동보다는 나은 처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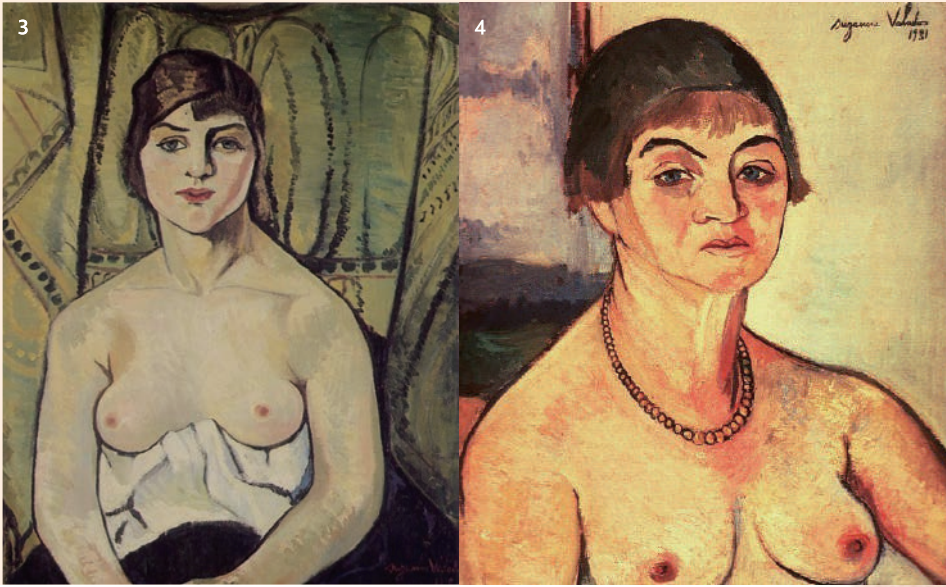
자수성가한 여성 화가 수잔 발라동

수잔 발라동을 소개하는 글의 시작은 대부분 '몽마르트의 세탁부의 사생아로 태어나'이다. 몽마르트 언덕은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인 곳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그곳에는 예술가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세탁부가 있었다. 그래서 몽마르트의 예술가들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긴 했지만, 그보다 더 취약한 계층이 세탁부나 모델이었다. 수잔 발라동의 어머니 역시 세탁부였고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하자 서커스단에 곡예사로 들어가기도 했지만, 부상을 입게 되어 다시 몽마르트로 들어가 어머니처럼 세탁부로 일하게 되었다.

젊고 아름다웠던 수잔 발라동에게 화가들은 모델을 자주 부탁하게 되었다. 수잔 발라동은 르누아르의 그림 속 활기찬 소녀가 되기도 하고, **[도판 1]** 툴루즈-로트렉의 그림 속 서는 고단한 삶을 짊어지고 있는 여인으로 그려졌다. **[도판 2]** 두 작가의 그림 속에 그려진 수잔의 모습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오히려 의아할 정도이다. 생김새의 차이뿐 아니라 분위기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르누아르 속 여인은 세상의 근심은 한 점도 갖고 있지 않을 것 같은 순진한 모습이지만, 툴루즈-로트렉은 삶에 찌든 여인이 하루를 끝내고 술 한잔하면서 고단함을 달래고 있는 듯하다. 수잔은 모델을 하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그림을 화가들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듣고 싶어 했다. 르누아르 등 대부분의 화가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툴루즈-로트렉은 연습한 그림들을 봐주고 화가가 되보기를 권했다. 그리고 인상주의자 드가의 격려와 가르침의 도움으로 수잔은 계속 그림을 그려나갔고 살롱 도톤전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해나갔다. 비록 굴곡진 인생을 살았지만, 수잔 발라동은 화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화가로서 점차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수잔 발라동의 작품은 객관적인 사물의 묘사나 신화적 의미를 가진 그림보다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소재로 담았다. 더불어 독특한 작업을 병행하였다. 모델을 따로 두고 그림을 그리기도 했지만, 자신의 누드를 그리기도 한 것이다. 다시 말해 '누드 자화상'이다. 화가들이 자화상을 그리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신만을 모델로 삼은 화가도 있지만, 수잔이 누드 자화상을 그린 시기에는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았고 모델을 부탁하는 것 역시 어렵지 않았다. 그림에도 직접 거울을 직접 바라보고 자신의 누드를 그렸다.

가슴을 드러낸 자화상은 현재의 시점에서 도발적이다. 발라동이 그린 다른 누드와도 다르게 관객과 마주 대하듯 무표정한 표정으로 우리를 응시하고 있다. 이 그림 속 여인은



3 수잔 발라동, <여성의 초상>, 1917년, 캔버스에 유채, 65×50cm

4 수잔 발라동, <가슴을 드러낸 자화상>, 1931년, 캔버스에 유채, 46×38cm, 파리 베르나르도 컬렉션 소장

그저 한 인간으로 앞에 앉아있다. **[도판 3]** 더불어 시간에 따라 변해가는 여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진과 같은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발라동 특유의 굵은 윤곽이 드러나는 그림이다. **[도판 4]** 그런데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처지며 머리숱이 적어지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이 그림들 속 발라동은 분홍 드레스를 입은 즐거운 소녀도, 압생트로 괴로움을 달래는 세탁부도 아닌, 한 여성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난다.

최초의 누드 자화상

그런데 수잔 발라동이 처음으로 누드 자화상을 그린 여성화가 아니다. 최초의 시도는 1906년 파리에서 화가가 되고자 한 독일의 화가 파울라 모더손-베커(Paula Modersohn-Becker, 1876-1907)이다. 남편인 오토 모더손(Otto Modersohn, 1865-1943) 역시 자연주의 화풍으로 독일 미술계에서 자리를 잡은 화가였지만, 모더손-베커는 남편의 성과 자신의 성을 함께 쓰면서 화가로서의 고유 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했다. 꿈을 위해 모더손-베커는 모든 것을 버리고 파리에 갔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에 대

한 그리움과 엄마가 되고 싶은 열망 역시 적지 않았다. 이에 6번째 결혼기념일이 되는 날 자신의 자화상을 그림으로 남겼다. **[도판 5]**

초록 점무늬가 있는 연두빛 배경에 파올라는 임신한 배를 감싸고 보여주듯 우리를 옆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상반신에는 노란 호박 목걸이만 한 여인의 몸짓은 교태를 부리기 보다는 자랑스럽고 행복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 그림을 그릴 당시 파올라는 임신을 하지 않았다. 다만 제목에서처럼 사랑했지만 떠난 남편과 사이에서 아이를 갖고 싶었던 마음을 그림으로 대신한 것이다. 이 그림을 보는 이에게는 여인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 같지만, 사실 화가 입장에서는 거울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실과 이상, 그리고 사랑과 꿈 사이에서 괴로워했던 파올라는 스스로를 직면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기에 파올라의 누드 자화상은 누군가에게 자신을 내보이려는 것보다는 스스로를 치유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렇게 고향을 떠나 자신을 직면하고 새로운 예술을 개척하는 화가가 되기 시작한 파올라였지만, 이듬해에 실제로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치유를 위한 자화상

잘 알다시피 역사 속에서 여성 예술가는 드물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원인은 사회적 편견이었다. 그렇기에 당시 신념을 굽히지 않고 예술 활동을 한 여성들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워야 했다. 또 한 명의 여성 예술가 프리다 칼로(Frida Kahlo, 1907-1954)도 힘든 삶을 살아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검은 갈매기 모양 눈썹이 인상적인 멕시코 여성 프리다 칼로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온몸의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재활로 일어섰다. 그리고 그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작업했지만, 시도 때도 없이 밀려드는 육체적 고통과 남편 리베라의 바람기로 인한 감정적 괴로움은 칼로를 괴롭혔다. 그럼에도 쉬지 않고 그림을 그렸다. 앞서 파울라가 그랬듯 그림으로 치유하고자 한 것일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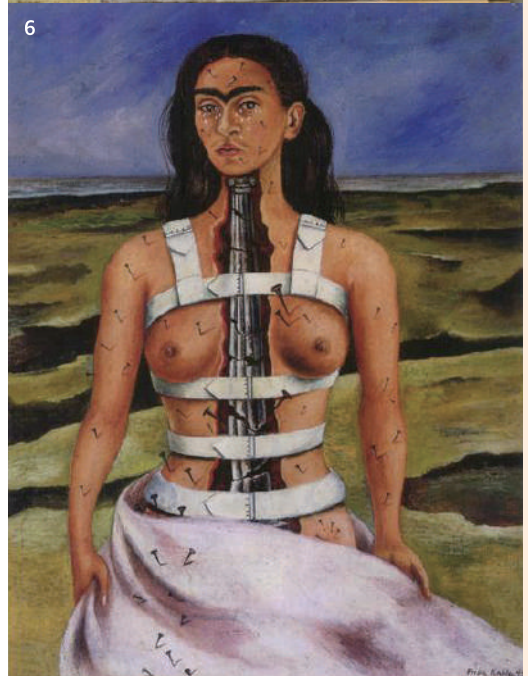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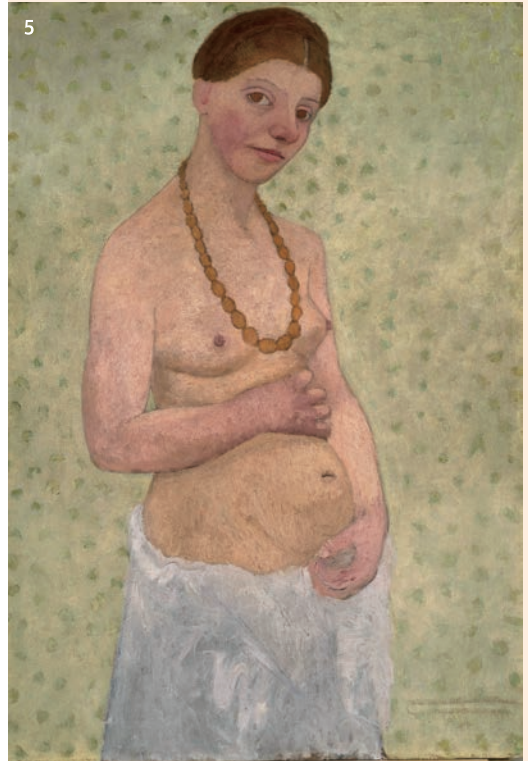
칼로는 부러진 척추를 부러진 그리스 신전의 기둥으로 표현하고, 뼈를 지탱하기 위해서 온몸을 동여맨 띠를 표현했다.**[도판 6]** 상반신이 드러나다 못해 뼈까지 보이는 이 그림을 보면서 기괴하다는 느낌도 들지만 동시에 눈물을 흘리는 프리다 칼로의 모습에서 그 고통과 슬픔이 느껴지는 듯하다. 칼로 역시 아이를 너무나 소원했고 리베라와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다. 화가로 좋은 작업 활동을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그에게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고, 오로지 그림으로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이 칼로만큼의 고통을 받고 있지 않음에도 쉽사리 자신과 대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파울라 모더손-베커와 수잔 발라동 등 수많은 여성 예술가 역시 각자 직면해야 했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길을 만들어가면서 자신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예술이 길잡이이자 에너지원이었을 것이다.

※ 본 글은 허나영의 <다시 쓰는 착한 미술사>(타인의 사유, 2021) 중 일부를 발췌 및 수정한 것입니다.

5 모더손-베커, <6번째 결혼기념일의 자화상>, 1906년, 캔버스에 유채, 101.8×70.2cm, 독일 파울라 모더손-베커 미술관 소장

6 프리다 칼로, <부러진 기둥>, 1944년, 메소나이트와 유채, 43×33cm, 멕시코 시티 돌로레스 올메도 컬렉션 소장



클래식 축제의 블록버스터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SALZBURGER FESTSPIELE

글, 사진 이상훈 아트컨시어지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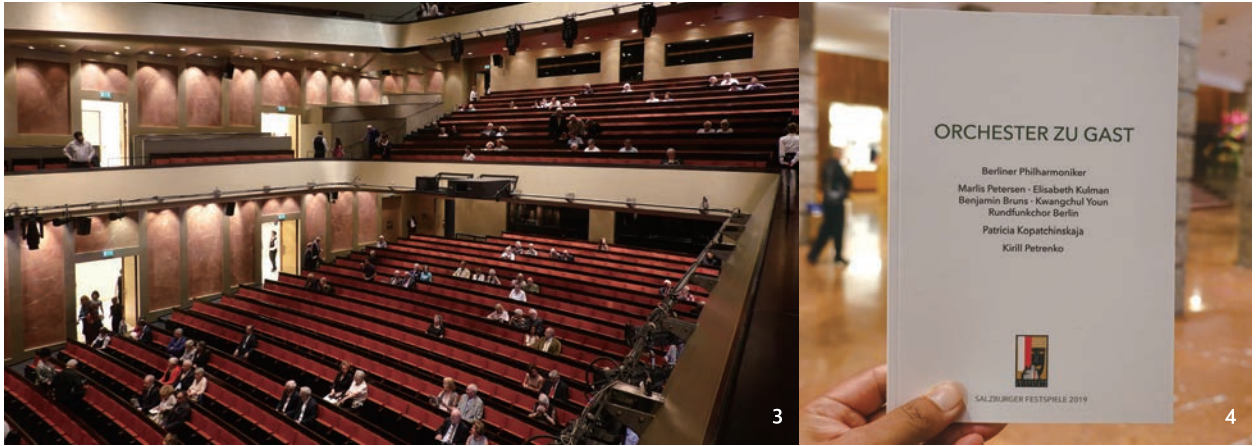


잘츠부르크(Salzburg)는 오스트리아 서부에 위치한 도시이다. 'Salz'는 소금을 뜻하는 독일어를 의미하기에 문자 그대로 소금 성(Salt Castle) 또는 소금 요새(Salt Fortress)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도시의 역사는 기원 전부터 나타나지만, 서기 700년 경 도시에 로마 관구가 설치되었고 바바리아(Bavaria)를 관장하는 대교구가 되었다. 당시 도시의 경제는 암염 채굴을 통한 소금 생산에 기반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756년 1월 27일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W.A. Mozart)가 이 도시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난다. 서양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 한 명이며 35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수많은 교향곡, 오페라, 협주곡과 소나타를 작곡했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Salzburger Festspiele), 지금이야 클래식 음악의 블록버스터 같은 최고의 축제로 자리매김했지만 시작은 초라했다. 192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이라 사회적 분위기가 암울했

2





1 호엔잘츠부르크성과 축제대극장 2 잘츠부르크 시내전경 3 모차르트 하우스 4 초청 오케스트라인 베를린필하모닉의 프로그램북

다. 더군다나 오스트리아는 패전국으로 국민들이 겪는 상실감이 컸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기획되었는데 기획자 막스 라인하르트, 시인 후고 폰 호프만스탈, 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등이 중심이 되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예술을 통한 평화, 그리고 최고의 작품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었다. 그리하여 1920년 8월 22일 제1회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당시는 단 한편의 연극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바로 후고 폰 호프만스탈(Hugo von Hofmannsthal)의 연극 '예더만(Jedermann)'이 초연된 것이다. 그리고 이듬해인 1921년 페스티벌에 오케스트라와 실내악 공연이, 그리고 1922년에는 오페라 작품들이 무대에 올려졌다. 현재의 오페라, 연극, 콘서트라는 축제의 뼈대가 자리잡히게 된 것이다. 현재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공식 웹사이트(www.salzburgerfestspiele.at)에 들어가보면, 또는 공식 프로그램이나 브로셔를 펼쳐보아도 OPER(Opera)/SCHAUSPIEL(Drama)/KONZERT(Concert), 즉 오페라, 연극, 콘서트 세 가지 꼭지로 분류가 되어있다. 그리고 최근 JUNG&JEDER(Young&Everyone)라는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도 조금씩 비중이 늘어가고 있다.

2022년 올해 45일간 펼쳐지는 축제의 중심에는 푸치니의 오페라 '일 트리티코(Il Trittico)',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Die Zauberflöte)', 로시니의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Il Barbiere di Siviglia)'를 비롯해 '아이다',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등 8편의 오페라가 자리하고 있다. 연극의 경우는 앞서 설명한대로 잘츠부르크의 시그니처인 '예더만'이 중심에 있으며, 콘서트에서는 호스트(Host) 오케스트라인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Wiener Philharmoniker)의 연주가 11차례 예정되어 있다. 또한 크리스티앙 틸레만, 안드리스 넬손스, 리카르도 무티, 다니엘 바렌보임 그리고 예사 페카 살로넨 등이 프로그램을 달리하여 지휘를 맡으며, 구스타프 말러 유스 오케스트라(Gustav Mahler Jugendorchester), 남서독일 방송교향악단(SWR Symphonieorchester), 빈 라디오심포니 오케스트라(ORF Radio-Symphonieorchester Wien), 다니엘 바렌보임이 이끄는 서동시집오케스트라(West-Eastern Divan Orchestra), 쿠렌치스의 무지카에테르나(musicAeterna), 그리고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Berliner Philharmoniker)와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Pittsburgh Symphony Orchestra) 등 7개의 초청 오케스트라(Orchester zu Gast) 연주가 예정되어 있다. 이밖에 마티네 콘서트, 세계적인 솔리스트들의 리사이틀까지 면면들을 살펴보면 왜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이 최고일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다.



5 펠젤라이트슐레

대부분의 음악축제의 경우는 단일 극장에서 페스티벌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로열 앨버트홀에서 열리는 런던의 BBC 프롬스가 그러하며, 아레나 디 베로나의 베로나 오페라 페스티벌, KKL에서 열리는 루체른 페스티벌, 바이로이트 음악제와 바이에른 오페라 페스티벌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그 규모와 위상에 어울리게 축제기간 중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잘츠부르크 시내의 주요 공연장과 성당 등 7~8개의 장소에서 펼쳐진다. 그 중 이번 지면을 통해서는 오페라를 중심으로 이야기 해보자.

우선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이 열리는 주요 극장 중 엄밀한 의미의 오페라극장은 1,500석 규모의 모차르트 하우스(Haus für Mozart), 하나이다. 무대가 전환되는 오페라를 만날 수 있는 극장으로 2006년 재건축되었다. 1925년, 이 극장의 시작은 '예터만' 연극을 위한 장소로 만들어졌고 축제극장(Festspielhaus)이라는 이름으로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첫 번째 전용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1960년 현재의 축제대극장(당시 Neues Festspielhaus, 새로운 축제극장)이 생기면서 Altes Festspielhaus, 즉 구 축제극장으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극장의 크기에 따라 이름이 축제소극장(Kleines Festspielhaus)으로 바뀌었다. 이후 2004년까지 42년 동안 유지되어 오다가 2006년 다시 재건축, 현재의 모차르트 하우스로 바

뀌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격적인 오페라가 공연된다.

여기서 이 극장의 이름이 2006년 모차르트 하우스로 바뀐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6년은 1756년생인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이다. 이 극장의 초연작품은, 지금은 타계한 오스트리아의 지휘자 니콜라스 아르농쿠르(Nikolaus Harnoncourt)가 지휘한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Le nozze di Figaro)'으로, 모차르트 하우스는 이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한다.

두번째로 소개할 극장은 펠젤라이트슐레(Felsenreitschule), 암벽승마학교(극장)이다. 극장 이름이 학교로 표기된 이유는 1693년 기마병을 위한 승마학교와 동물 사냥 경기장으로 사용되었던 것에 유래하기 때문이다. 1962년 오스트리아의 연출자 맥스 라인하르트에 의해 이 장소가 공연장으로 사용되었고, 이후 무대부분이 개·폐가 가능한 롤 형태의 무대지붕 구조, 그리고 오케스트라 피트, 하부 무대를 갖춘 공연장으로 탈바꿈했다. 그렇기에 오케스트라 연주뿐 아니라 오페라 공연도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재탄생되었다. 올해 같은 경우 벨라 바르토크와 칼 오르프, 야나체크와 같은 작곡가의 오페라가 이곳에서 공연된다.



6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축제 엠블럼

그리고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메인극장은 축제대극장(Großes Festspielhaus)이다. 사실 축제대극장은 호스트 오케스트라인 빈 필하모닉과 초청 오케스트라들의 메인 무대가 펼쳐지는 콘서트홀이지만 콘체르탄트(Konzertant) 오페라가 열리기도 한다. 무대가 100미터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공연장 중 하나이다. 객석 수는 2,200석에 육박한다. 이 곳에서 콘서트 형식의 오페라가 공연되는 것은 다분히 흥행을 위한 수단이다. 무대 변환 없는 콘서트 형식의 오페라를 오페라 가격에 판매하기 때문이다. 잘츠부르크의 티켓 가격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기로 알려져 있는데, 가장 값나가는 좌석의 경우 편당 450유로 이상 받는다. 그리고 이 가격은 오페라가 열리는 모차르트 하우스와 축제대극장이 동일하다. 서유럽 오페라극장의 최상석이 250유로 내외인걸 생각하면 확실히 가격의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콘체르탄트 오페라가 공연되는 잘츠부르크 축제대극장의 티켓이 인기가 있는건, 정말 최고의 슈퍼스타들이 무대에 오르기 때문이다. 우리시대 최고의 오페라 가수들이 연일 무대에 오르기에 매년 인상되는, 값비싼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티켓은 연일 매진 행렬이다.

7 잘츠부르크 축제대극장 8,9 플라시도 도밍고가 출연했던 콘체르탄트 오페라 '루이자 밀러'(2019)



언젠가 세상은
연극이 될 것이다

공간소극장

SPACE THEATER



박나무 자유기고가



공간이라는 단어는 참 묘하다. 때를 뜻하는 시간과 자주 어울려 장소를 이르는 말로 쓰이는데, 이 공간(空間)은 실은 비어있다는 뜻.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데를 공간이라 부르지는 않는다. 그 용도와 경계가 분명한 곳을 공간이라고 부르지는 않나. 이 지면을 통해 골목에서 만나는 생활속 문화'공간'은 과연 무엇일까? 사람일까? 건물? 생각? 프로그램? 어쩌면 그곳은 비어있기 때문에 용도가 있는 곳이라. 그릇도 비어있어야 밥이든 국이든 물이든 담아 먹는 것이고, 집도 비어있어야 우리가 들어가서 발을 뽀고 잠을 자고 꿈을 꾸다. 그리하여 우리는 공간이라는 빈 곳에 사람이 있고, 건물, 생각, 프로그램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겠다.

20년 가까이 크고 작은 공연을 펼쳐온 공간소극장. 작은 무대에 온갖 세상만사가 보여지니 어쩌면 그 공간은 참 잘 어울리는 이름이다. 지하철 2호선 대연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 사이의 공간에 공간소극장이 자리하고 있다. 교통편으로 따지자면 국내 최고의 입지겠지만,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몇 차례 옮긴 사연을 듣자면 기구하다. 허영길 최시영 등 부산의 연극인들이 주축이 된 극단 세이가 10여 년 세월을 버티지 못하고 해산한다. 그 와중에 영입된 기획자 전상배와 함께 2004년 7월 남천동의 한 병원 건물 지하에서 다시 문을 연 것이 공간소극장. 5년 정도를 버티다가 당시 한나라당 당사의 지하로 옮긴 게 2008년. 그렇게 십 몇 년을 보냈으나





결국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밀려난다. 이사만 안 다녀도 살 만 하겠다는 게 집 없는 자의 공통된 설움. 어렵사리 대연역에 자리를 잡고서 정기공연과 기획공연, 시민연극교실 등을 다양하게 펼쳐왔으나 곧 들이닥친 코로나의 고통과 직면한다.

그래도 나이 들며 여물어진다. 곳곳하게 공연을 올리고, 지역을 대표한다는 소극장들과 연합해 '대한민국소극장열전'을 펼쳐보이는데, 지난해 열 번째 열전을 올렸다. 열전이라는 게 전기의 나열이고 보면, 저마다의 크고 작은 서사들을 품고 있는 소극장들이 지역을 돌며 무대를 펼쳐 보이는 소극장열전이라는 이름도 참 걸맞다. 올 여름에도 열 한 번째 열전이 지역을 돌며 열린다. 7월 마지막 주 공간소극장은 여름답게 뜨겁다. 전주의 극단 빈칸이 <카모마 일과 비빔면>, 춘천의 극단 도모가 <가정식백반 맛있게 먹는 법>, 광주의 극단 푸른연극마을이 <노인과 바다>를 올린다. 지역이라는 우물 안에 갇혀 있을지도 모를 연극인들이 해마다 함께 호흡을 나누며, 긴장하고 발전하는 장을 이룬다. 전국의 소극장들을 엮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부산, 울산, 경남의 극장들과 '부울경 소극장 연극교류전'을 조직했다. 경남도립극단의 작품 <대학살의 신> <리타&프랭크>가 이곳 공간소극장에서 펼쳐진다. 뭔가 엮어내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한다.

공간소극장의 대표는 전상배 연출가. 기획자로 영입되었다가 발목을 잡혔다. 공간소극장의 상주하는 극단은 '어니언 킹', 대표배우는 황미애. 2008년 12월 두 번째 극장 개관 기념 공연에 주연으로 초빙되었다가 나가지 못하고 있다. 슬쩍 짐작하셨는지 몰라도 두 사람은 부부다. 공간소극장이 전상배의 발목을 잡고, 전상배는 황미애의 손목을 잡았다. 그렇게 부부로 동지로 손발을 맞춘 덕에 우리는 소중한 공간을 잃지 않은 것이겠다. 곧 다가올 2024년, 공간소극장이 스무해를 맞는다. 부산을 대표하는 극장과 극단으로 버티기 위해 갖가지 사업을 구상중이다. 소극장열전과 연극교류전은 더 풍성해지고, 시민들은 다시 공간에서 연극을 배울 것이며, 어려움 속에서 낭독공연은 여전히 시민들을 찾을 것이다. 공간소극장이 시민들에게 좋은 공간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선사하는 일이 대연역에서 길게 펼쳐지길 소망해본다.

문의 공간소극장 051-611-8518, 010-5145-0999
cafe.naver.com/ggtheater
 ※ 공간소극장 후원회원 동반인 무료관람

핑크퐁 클래식나라

뚜피를 찾아라



(C) THE PINKFONG COMPANY. All Right Reserved

출연 핑크퐁, 아기상어, 대니 구 (바이올린), 코리아콥오케스트라 외

2022. 8. 20 SAT 5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문화회관 | 부산일보사

티켓 |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주관 | CREDIA MUSIC & ARTISTS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051-607-6000) 또는 인터파크 티켓(1544-1555)

INVITATION TO THE ARTS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음	557-3369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BS부산홀	620-7181
SM아트홀	1600-1602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차별화된 연주로 실내악의 정수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이 8월 12일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에서 펼쳐진다.

지난 2019년 5월에 첫 선을 보여 호평을 받았던 ‘부산시향의 실내악 공장’은 정기연주회에서는 감상하기 힘들었던 실내악 걸작들을 감상할 수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만의 브랜드 무대로, 클래식 입문자부터 애호가에 이르기까지 다함께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목관과 금관이 빛어내는 앙상블 무대로, 관객들에게 힐링의 무대를 선사한다.

첫 곡은 푸치니 오페라 ‘라 보엠’ 모음곡으로, 호른 홍혜진, 트럼펫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트럼펫 박승훈, 트롬본 정선화, 튜바 임정빈의 경쾌한 금관 연주로 들려준다. 오페라 ‘라 보엠’은 파리의 가난한 예술가들의 애절한 사랑이야기를 낭만적이면서도 화려한 선율로 그려낸 작품이다. 이어서는 쥘 데메르스만의 플루트와 오보에 듀오를 위한 ‘윌리엄 텔’을 들려준다. 이 곡은 로시니의 오페라 ‘윌리엄 텔’에 나오는 주제들에 기초한 일종의 환상곡으로, 네덜란드 태생의 플루트 주자이기도 했던 쥘 데메르스만이 작곡하여 목관악기에 요구하는 연주자로서의 탁월한 기교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이은정

이 연주하는 피아노 선율을 배경으로 이주형의 플루트와 고관수의 오보에가 화려한 선율을 주고 받는다. 폴랑크의 ‘호른, 트럼펫, 트롬본을 위한 소나타’는 여름의 실내악에 어울리는 경쾌한 리듬의 곡으로, 매혹적인 불협화음에 우아한 위트를 겸비했던 작곡가 폴랑크의 특징이 잘 묻어나는 작품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호른 최영희, 트럼펫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트롬본 정선화가 호흡을 맞춘다.

러시아의 현대작곡가 유리 팔리크의 금관5중주를 위한 ‘레트로 머신(Retro Musin)’에 이어서는 미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거쉬윈의 ‘브로드웨이의 거쉬윈’을 들려준다. 특히 거쉬윈은 현대음악사에서 대중성과 예술성, 모두 성공한 음악가로 특히 클래식에서 재즈, 뮤지컬, 영화 등 여러 대중음악을 아우른 작곡가로 평가받고 있다. 금관5중주를 위한 ‘레트로 머신’과 ‘브로드웨이의 거쉬윈’은 호른 홍혜진, 트럼펫 드미트리 로카렌코프, 박승훈, 트롬본 정선화, 튜바 임정빈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마지막 곡은 비엔나 고전주의 시대의 세레나데에 드보르작 특유의 보헤미아 정취를 듬뿍 담은 ‘관악기를 위한 세레나데’로 오보에 고관수, 조서영, 클라리넷 장재혁, 권소민, 콘트라바순 장보영, 바순 장정호, 김진우, 호른 백상홍, 홍혜진, 강민주, 첼로 김민승, 더블베이스 우현수의 연주로 들려준다.

일 시 8월 12일 금요일 오후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노부스 콰르텟 ‘오직 베토벤’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실내악단 노부스 콰르텟이 8월 19일 부산을 찾는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동문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과 김영욱, 비올리스트 김규현, 첼리스트 이원해 등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력과 아티스트들로 구성된 노부스 콰르텟은 ‘대한민국 실내악의 역사가 노부스 콰르텟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처럼 그 이름 자체로 신뢰를 주는 독보적인 현악사중주단이다.

노부스 콰르텟은 지난 2007년 창단 후 오사카 국제 실내악 콩쿠르, 리옹 국제 실내악 콩쿠르 등에서 입상하고, 2012년 세계 최고 권위의 뮌헨 ARD 콩쿠르 2위 수상에 이어 2014년 제11회 모차르트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머쥐면서 대한민국 실내악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6년 예술의전당 예술대상 실내악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같은 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2018년에는 제11회 공연예술 경영상 ‘올해의 공연예술가상’, 2020년에는 제3회 벽산음악상을 수상하는 등 그동안의 성과들을 인정받기도 했다.

노부스 콰르텟은 그동안 베를린 뮤직 페스티벌, 슈바르츠발트 페스티벌, 슈베칭엔 페스티벌,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 페스

티벌, 바르나 뮤직 페스티벌, 산토리홀 체임버 뮤직 가든, 마르 바오 뮤직 페스티벌, 뷔상부르크 페스티벌, 미토 페스티벌 등 세계적인 음악 페스티벌에 지속적으로 초청받아 왔으며, 빈 무직페라인, 베를린 필하모니, 피에르 볼레즈 홀, 쾰른 필하모니, 뮌헨 헤라쿨레스홀, 위그모어홀과 빈 콘체르트하우스, 슈투트가르트 리더할데 등 세계 유명 공연장에서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특히 2020년 멘델스존 현악사중주 전곡 연주를 시작으로, 2021년 6월 쇼스타코비치 현악사중주 전곡, 같은 해 8월에는 브람스 현악사중주 전곡 연주를 갖는 등 도전적인 레퍼토리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결성 15주년을 맞는 2022년, 베토벤 현악사중주 전곡 연주를 계획하고 있는 노부스 콰르텟은 이번 무대에서 ‘오직 베토벤’이라는 주제로, 베토벤 현악사중주 제4번과 제5번, 제9번 ‘하프’와 제10번 ‘라주모프스키 제3번’를 들려준다. 현악사중주 음악의 최정점이자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베토벤 현악사중주는 모두 16개 작품으로, 독보적인 장르적 성취와 음악적인 가치로 전곡연주는 현악사중주단에 있어 일생의 과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 시 8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with 아창제

2022. 8. 19^④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1층) 1만원, S석(2층)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ARS 1번)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대한민국 창작음악의 명맥을 이어온 아르
코한국창작음악제(이하 아창제)와 함께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8월 1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with 아창제’에서는 국악애호가들이 온라인 투표를 통해 직접 뽑은 작곡가 김현섭 곡 ‘항비파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천장고임_학’을 탄 선안을 비롯해 아창제 선정 작곡가들의 곡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처음 열리는 아창제로, 부산 음악애호가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RKO 한국창작음악제’의 브랜드명인 ‘아창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의 특성화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국악, 양악 부문을 망라한 창작관현악 작곡과 발표, 비평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창작음악페스티벌이다. 지난 2007년 첫발을 내딛은 후 특히 서양 고전음악 일색이던 한국 음악 시장에 작곡가와 지휘자, 연주자들이 창작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발굴, 지원해오면서 한국 창작관현악의 산실 역할을 해왔다. 특히 한국예술종합학교 이건용 전 총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양악부터 국악에 이르는 대한민국 대표적 창작음악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수석지휘자 김종욱이 지휘하고 항비파 연주자 마롱, 25현가야금 연주자 김보경, 박소희, 타악기 주자 김인수, 소리꾼 박성희, 정운형, 그리고 부산시립합창단이 출연하여 창작국악관현악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사한다.

첫 곡인 ‘마음의 전쟁’은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에 출강하며 작곡동인 원시인, 작곡동인 Musik, 한국정악원 이사로 활동 중인 작곡가 유민희의 작품으로 ‘마음의 전쟁’과도 같은, 누구도 도울 수 없는 현재의 감정, 기쁨과 슬픔, 삶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회상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한국음악의 선법, 장단, 국악기 연주기법 등을 활용하여 표현한 곡이다. 작곡가 유민희는 2007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작곡부문 금상, 2015 대한민국 작곡상, 2017 KBS 국악대상 작곡상을 수상했으며 2013/2015 아창제 당선, 2014 AYAF 아르

지휘 김종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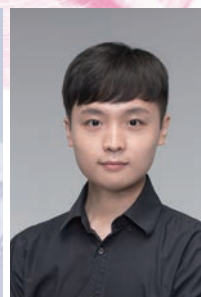
작곡가 유민희



작곡가 김현섭



작곡가 이재준



작곡가 이예진



작곡가 이정호



코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2020-20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 오작교 프로젝트 작곡가로 선정된 바 있다.

이어서는 김현섭 작곡 '향비파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천장고 임.학을 탄 선인'을 들려준다. 이 곡은 이번 연주회의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아창제의 온라인 투표에서 결정된 작품으로, 투표 참가자 총 1,579명 중 415표를 득표하여 1위를 차지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져 있는 '학을 타고 있는 선인'의 오묘한 미소와 꼭 닮은 향비파의 신비로움을 담은 곡으로, 비파연주자 마룡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한 비파 연주자 마룡은 그동안 국악, 클래식, 바로크, 인도음악 등 연주자의 다양한 음악취향을 비파와 접목시킨 다양한 협업무대를 통해 비파를 알리는데 힘써왔다. 한국 전통음악 속에 내재되어 있는 깊고, 격조 높은 미학을 현 시대에 맞는 창의적 언어로 풀어내고 있는 작곡가 김현섭은 제28회 김해가야금경연대회 일반부 작곡 대상, 제35회 온나라국악경연대회 일반부 작곡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재준 곡 25현 가야금 이중협주곡 '별뿔별'은 국립국악중·고등학교 및 서울대학교 국악과 동문인 25현가야금 연주자 김보경, 박소희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지난 2018년 국립부산국악원에서 발표한 해금협주곡 '꼬리별'에 이은 두 번째 '별' 시리즈 협주곡으로, 이재준 작곡가가 좋아하는 밤하늘과 우주의 아름다움을 담은 작품이다. 협연자 김보경은 2020년 금호아트홀 연세 영아티스트로 선정된 바 있으며 세향국악오케스트라 단원, 가야금 Library 사이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박소희는 최근 뉴욕에서 개최된 2022 뉴욕 국악 축전의 가야금 연주자 및 팀장으로 참여했으며 창작과 전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야금 연주자로 활약 중이다. 작곡가 이재준은 2018 제34회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작곡 부문 은상, 2018 국립부산국악원 국악대학축제 작곡발표회 관현악 부문 우수작, 2022 제42회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작곡 부문 은상을 수상했으며,

2020 제12회 ARKO 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에 선정됐다.

비가 오기 전 하늘의 모습을 소리로 표현한, 타악기 독주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기우(祈雨)'는 2019년 제11회 ARKO 한국창작음악제에 선정된 작곡가 이예진의 작품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타악기 연주자 김인수의 협연으로 연주된다. 타악기 연주자 김인수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5호 판소리교법 이수자이자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원으로 있으며, 전통음악, 실용음악,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타악기 주자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작곡가 이예진은 현재 소리공방 바라기의 전임 작곡가 겸 기획자, 작곡동인 뮤지케이[musiK]의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6 제1회 국제 박영희 작곡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의 마지막은 이정호 작곡 '합창과 진도씻김굿, 국악관현악을 위한 진혼'이 장식한다. '진혼'은 무속음악 '진도씻김굿'을 모티브로 쓴 국악 레퀴엠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 소리꾼 박성희, 정윤형과 함께 웅장한 무대를 선사한다. 현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단원이자 국악전문단체 '타로' 공동대표로 있는 소리꾼 박성희는 제12회 장흥 전통가무악 전국제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흥보가(1998, 2021), 수궁가(2001, 2011, 2015), 심청가(2019)를 완창했다. 국립부산국악원 성악단 단원인 정윤형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적벽가 전수자로, 제36회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판소리 금상, 제43회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일반부 장원, 제23회 임방울국악제 판소리 일반부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2019 한국음악협회 한국음악상 '젊은음악가상'을 수상했다.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작곡가 이정호는 제9회, 제13회 ARKO 한국창작음악제 국악부문 작곡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전국 여러 단체 및 연주자와의 위촉 작품발표를 통해 그동안 300여 편에 이르는 작품을 발표해왔다.

비파 마룡



가야금 김보경



가야금 박소희



타악기 김인수



소리 박성희



소리 정윤형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핑크퐁 클래식 나라-뚜띠를 찾아라



- **우리 아이 첫 클래식 콘서트 '핑크퐁 클래식 나라-뚜띠를 찾아라'가 여름방학을 맞아 8월 2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인기 캐릭터와 함께하는 어린이를 위한 클래식 무대로, 대한민국 대표 어린이 캐릭터 브랜드인 핑크퐁이 공연을 이끌어간다. 핑크퐁은 유튜브 230억뷰를 달성한 한류 스타로, 특히 바닷속에 사는 상어 가족을 주제로 한 핑크퐁의 동요 '상어가족'은 무려 102억 조회수를 달성하면서 유튜브 조회수 순위 1위를 차지하는 등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클래식은 지루하다'라는 편견을 깨고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음악과 퍼포먼스로 가깝게 다가가는 이번 무대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핑크퐁 동요와 더불어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오케스트라의 라이브 연주로 만날 수 있다. 사자왕의 생일 파티를 무사히 치르기 위해 '뚜띠(Tutti)'를 찾아 모험을 떠나는 핑크퐁과 아기상어,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라데츠키 행진곡', '동물의 사육제', '왕벌의 비행' 등 도입부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친근한 클래식 음악과 핑크퐁의 대표 동요 '아기상어', '티라노 사우르스', '뽕뽕 응가 체조' 등을 특별한 편곡으로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탄탄한 실력과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으로 사랑받는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가 핑크퐁과 함께 모험을 떠나며, 김영랑 지휘자가 이끄는 코리아쿵오케스트라가 어린이들을 클래식의 세계로 안내한다. 클래식계의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는 연주자뿐만 아니라 보컬, MC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활동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방송 및 SNS, 유튜브 채널을 통해 클래식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 대니 구는 연주뿐 아니라 연기와 노래, 춤까지 선보인다.

코리아쿵오케스트라는 지난 2014년 11월, 우리나라 최초의 협동조합 오케스트라로 창단된 후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고양아람누리, 성남아트센터 등 주요 공연장과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서울시오페라단, 유니버설발레단 등 주요 예술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초청받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간 오케스트라로 성장해왔다. 특히 '픽사 인 콘서트', '디즈니 인 콘서트', '드림웍스 인 콘서트', '미녀와 야수 인 콘서트', '코코 인 콘서트' 등 애니메이션 콘서트와 '스타워즈 인 콘서트', '해리 포터 인 콘서트' 등 영화음악 콘서트를 통해 대중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일 시 8월 20일 토요일 오후 5: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36개월 이상,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수퍼 타이거(Super Tiger)



- **히어로(hero)를 꿈꾸는 청년예술가 52명이 참가하는 대작 '슈퍼 타이거(Super Tiger)'가 8월 26일과 27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광역시가 주최하는 '신진 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재)부산문화회관이 기획·제작하며 부산시립무용단 이정윤 예술감독이 연출과 안무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김종욱 수석지휘자가 음악 감독을 맡아 평범한 청년들의 범상치 않은 이야기를 무대 위에 그려낸다. 특히 부산 출신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무용가로 자리매김한 이정윤 예술감독은 지난해에도 오디션 과정을 거쳐 선발된 지역의 젊은 무용수들과 함께 한 제작공연 'MOTI/ 어디로부터'를 선보여 많은 박수를 받은 바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팬데믹으로 인해 삶의 '모티(모통이)'로 내몰렸던 청년들의 현실을 그린 'MOTI/어디로부터'를 통해 사회적 인 화두에 대한 성찰의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던졌던 이정윤 예술감독은 이번 '수퍼 타이거(Super Tiger)'에서는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우리시대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작품 속 변종 호랑이는 태어날 때부터 독특하여 무리 속에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곁돌지만, 그런 이들로 인해 세

상이 바뀌어 나가면서 마치 늑에서 피어난 연꽃과도 같은 수퍼(Super)한 호랑이(Tiger)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작품은 지역의 청년예술가들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와 함께 제작 공연에 참여함으로써 경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받고, 정기적인 연습 참여를 통한 월 급여 형태의 인건비를 지급받음으로써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재)부산문화회관은 공연에 앞서 지난 4월과 6월, 지역의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작품에 출연할 무용수와 국악연주자를 각각 공개모집했으며, 이후 선발된 청년예술가 52명은 상근 예술단원처럼 출근하며 연습에 참여해왔다.

이번 작품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정윤 예술감독은 "청년들과 동고동락하며 함께 섞여 에너지를 공유하고, 장면 묘사를 위해 필요한 움직임에 관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있다"며 뜨거운 청년들의 열기를 전하며 작품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부탁한다.

지난 2020년 8월 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이정윤 예술감독은 한국무용계의 간판스타로, 국립무용단 수석 무용수 겸 안무가로 활동했으며 대만 타이페이 국립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로 재직하신 바 있다.

일 시 8월 26일 금요일 오후 8:00, 27일 토요일 오후 5: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예술단 구문화회관 순회공연 '예술로 행복하데이'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스타프로젝트> **몰리 스위니·두개의 달**



- 부산시립극단 배우들과 그들의 연기에 오롯이 주목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젝트 '스타프로젝트' 2022년 무대가 8월 31일부터 해운대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스타프로젝트'는 기량이 뛰어난 부산시립예술단 단원들과 부산시민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마련된 무대로, 부산시립극단은 지난해 단원들간의 앙상블 무대가 돋보이는 세 작품을 선보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부산시립극단은 올해 무대에서도 단원들이 배우로서 주체가 되어 그들이 하고 싶었던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특히 평소 정기공연을 통해 보여줄 수 없었던 단원들 개개인만의 개성과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무대로, 공연장소도 시립극단의 주 공연장인 부산문화회관이 아닌 지역의 구문화회관인 해운대문화회관으로 장소를 옮겨 시민들과 만난다. 올해 무대에서는 모두 두 작품이 선보인다.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사흘간은 연출가 강성우가 객원연출하고 단원 이혁우, 오희경, 채민수가 출연하는 '몰리 스위니'가 무대에 오른다. 아일랜드 극작가 브라이언 프리엘이 극작한 '몰리 스위니'는 40년 간 앓을 보지 못하던 한 여인의 개안(開眼) 수술과 관련된 회고적 진술을 37개의 독백으로 구성한 독특한 작품

으로, 세 명의 등장인물들은 서로 대화를 주고받거나 소통하는 일 없이 각자 자신들의 이야기를 쏟아낸다.

강성우 연출가가 재구성한 이번 무대에서는 보이는 세상을 받아들일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던 몰리와 그의 남편 프랭크, 안과의사 라이스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체성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결점 많은 현대인의 자화상으로 새롭게 그려내면서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9월 6일과 7일 이틀간은 부산시립극단 단원 염지선이 연출하고 단원 김은옥, 서보기, 이태성이 출연하는 창작극 '두개의 달'을 선보인다. '두개의 달'은 2016년 제2회 윤대성 희곡상 수상자인 임은재 작가의 등단작으로, 식물인간인 남편을 바라보며 온갖 독백을 쏟아내는 여인의 입말을 치열하면서도 정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여인의 말은 일상적이고 정적이지만 그 속에는 뜨거울 정도로 이글거리는 욕망이 담겨져 있다. 특히 이번작품은 단원 염지선의 첫 연출작으로 연기자가 아닌 연출자로서의 무대에 관객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 시 8월 31일(수)-9월 2일(금), 9월 6일(화)-7일(수) 오후 7:30 **장 소**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제13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IV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90회 정기연주회 물결



지휘 아드리안 페뤼송



소프라노 이명주

-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회 정기연주회이자 '제13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네 번째 무대가 9월 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 2010년 첫발을 내딛은 '부산마루국제음악제'는 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최정상의 클래식 음악축제로, 지난해부터 부산시립교향악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지역음악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뛰어난 재능과 리더십을 겸비한 프랑스의 촉망받는 지휘자 아드리안 페뤼송이 지휘하고 그의 동반자인 소프라노 이명주가 협연자로 출연, 프랑스를 대표하는 라벨과 드뷔시의 작품을 통해 인상주의 음악의 진수를 선사한다. 지난 2014년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공연으로 지휘자로 정식 데뷔한 아드리안 페뤼송은 지난해 9월, 프랑스의 유서 깊은 라무뢰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을 맡았으며, 최근에는 베를린 코미셰 오페라에서 열린 오페라 바흐의 '지옥의 오르페우스'를 지휘하는 등 오페라 지휘자로서의 커리어도 쌓아가고 있다.

1부 무대의 첫 곡은 평소 '빈 왈츠'에 대한 동경과 환상을 자주 표현했던 라벨이 작곡한 '고귀하고 감상적인 왈츠'로, 빈 왈츠를 모방하면서도 루이 왕조풍의 우아함을 띤 섬세하고 미

묘한 7곡의 왈츠와 에필로그로 구성된 작품이다. 이어지는 곡은 바버의 성악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녹스빌:1915년의 여름'으로, 이번 연주가 한국 초연이다. 작가 제임스 에이지의 소설 '가족의 죽음(A Death in the Family)'에 나오는 시 구절에 곡을 붙인 작품으로, 어린 시절 작가의 눈으로 본 미국 남부의 목가적 풍경을 그리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정명훈과의 다수 공연에서 협연자 및 독창자로 활동하며 '정명훈이 선택한 소프라노'로 이름을 알린 소프라노 이명주가 노래한다. 이명주는 2017년 통영국제음악제 개막 공연,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 클래식 스타 시리즈에 출연하여 호평받았으며, 오스트리아 브루크너 하우스 신년음악회, 영국 로열 알버트 홀 '나비부인', 뉴욕 카네기 홀 '라 트라비아타' 갈라, 등 전세계를 무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부에서는 같은 바다이지만 두 작곡가가 바라본 다른 느낌의 두 바다를 만날 수 있다. 한국 초연되는 라벨의 '바다 위의 작은 배'는 아르페지오가 끊임없이 찰랑거리며 물결치는 바다의 흔들리는 작은 배를 묘사하여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떠올리게 한다. 드뷔시의 '바다'는 눈앞에 펼쳐진 바다가 아닌 기억과 상상 속에서 그려낸 바다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바다의 변화를 소리로 표현한 작품이다.

일 시 9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W.C.W.S IV 레이 첸&선우예권 듀오 콘서트



- **클래식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레이 첸과 선우예권, 두 젊은 거장을 만날 수 있는 월드콩쿠르 우승자 시리즈(W.C.W.S) 네 번째 무대가 9월 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월드콩쿠르 우승자 시리즈’는 최근 월드 콩쿠르를 석권한 국내외 차세대 아티스트들을 초청, 그들의 수준높은 연주와 더불어 세계 클래식의 최신 흐름을 만나볼 수 있는 무대로, 음악애호가들의 많은 관심과 박수를 받고 있다.

2008년 예후디 메뉴인 콩쿠르에 이어 2009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연달아 우승하며 국제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한 바이올리니스트 레이 첸은 그의 고향 호주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미대륙에서 연주와 앨범을 통해 자신의 경력을 쌓아왔다. 레이 첸은 그동안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뮌헨 필하모닉, 라 스칼라 필하모닉, 산타 체칠리아 국립오케스트라,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등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에 섰다. 특히 그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는 선두적인 아티스트로, 21세기 클래식 뮤지션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재정립하며 동시대 관객들을 양산하고 클래식 저변을

확장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

뛰어난 연주실력과 품격있는 무대매너로 폭넓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은 지난 2017년 제15회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며 ‘변함 없고 한결 같이 우수한(인터내셔널 피아노), ‘천둥과 같은 종합적인 테크닉을 구사하는 피아니스트(시카고 트리뷴)’라는 찬사를 받은 바 있다. 선우예권은 반 클라이번 금메달 외에도 2015년 인터내셔널 저먼 피아노 어워드, 2014년 방돔 프라이즈(베르비에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 수상하여 우리 음악계를 놀라게 한 바 있으며, 2013년 센다이 음악 콩쿠르 1위, 2012년 윌리엄 카펠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플로리다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등 무려 8회에 달하는 국제 콩쿠르 입상 경력으로 한국인 피아니스트 최다 국제 콩쿠르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다.

1989년생 동갑내기이자 미국 커티스음악원 동창이기도 한 레이 첸과 선우예권은 이번 무대에서 그리고 ‘바이올린 소나타 제2번 작품 13’, 풀랑크 ‘바이올린 소나타 작품 119’,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 가장조’를 들려준다. 이들 작품은 낭만 시대의 대표적인 소나타로,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일 시 9월 3일 토요일 오후 5: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68회 정기연주회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의 말러



지휘 이명근



- **학업과 연주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꾸준히 기량을 쌓아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관현악의 대가' 말러의 교향곡으로 제68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올해 들어 단원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두고 활동해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지난 3월, 제67회 정기연주회에서도 고전주의 교향곡을 대표하는 걸작 모차르트 '교향곡 제35번'과 고전적인 형식을 고수하면서도 낭만적인 정취로 가득한 멘델스존 '교향곡 제4번'으로 아카데미한 무대를 선사,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은 바 있다.

수석지휘자 이명근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후기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이자 20세기 모더니즘 음악의 개척자인 구프타프 말러의 교향곡 제1번 '거인(Titan)'을 들려준다. 지휘계의 대부 Gustav Meier로부터 '아주 재능 있는 젊은 지휘자, 그는 이미 위대한 아티스트'라는 찬사를 받으며 독일 뿐만 아니라 미국 클래식계의 흐름까지 섭렵한 지휘자 이명근은 지난 2019년 4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6대 수석지휘자로 취임한 후 단원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차세대 음악가들을 육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스

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청소년교향악단을 이끌어왔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그동안 국내의 정상급 협연자를 초청하여 보다 수준 높은 연주회를 개최하였으며 일본, 대만, 베트남, 러시아, 미국 등 해외연주를 통해 한국과 부산시의 문화사절단으로서도 큰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의 주인공인 말러는 오늘날 전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며 사랑받고 있는 작곡가로, '말러 리안'이라는 열광적인 팬덤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음악애호가들조차도 '어렵다', '난해하다' 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 작곡가이다. 그의 첫 번째 교향곡인 '거인'은 말러의 교향곡 중에서도 이해하기 쉬운 곡으로, 말러의 작품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많이 추천되는 작품이다. 제목인 '거인'은 당시 말러가 심취해있던 독일의 낭만파 작가 장 파울의 시 '거인'에서 가져왔지만 제목과는 달리 젊은이의 고뇌를 담고 있으며 대규모의 관현악 편성을 사용하면서도 낭만적 서정성을 잃지 않고 있다.

한편, 오는 2024년 창단 30주년을 앞두고 해가 거듭될수록 젊은 열정과 자신감으로 우수한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이번 무대를 통해 청소년교향악단의 위상을 다시한번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계획이다.

일 시 9월 6일 화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5천원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에서 열리는
오페라 축제의 장

2022

부산 오페라시즌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성공적인 건립을 지원하고
지역 오페라 육성과 오페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오페라 축제 '2022 부산오페라시즌'이 8월부터 펼쳐진다.

'부산오페라시즌'은 2016년부터 개최해온 '부산오페라WEEK'의 새로운 명칭으로, 지난해부터 지역 공공극장과 공동사업으로 진행하면서 공공성과 작품성, 예술성을 높이는 한편,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지역의 공공극장이 직접 공연을 기획, 제작하면서 오페라 육성의 기반이 되는 전문인력 양성 및 제작극장 조성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올해부터는 오페라 공연에 참여할 지역 예술인들을 공개 모집함으로써 시즌 단원제를 운영한다. 오페라 전문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단원으로 참여하는 시즌 단원들은 '2022 부산오페라시즌'의 모든 무대에 설 예정이다.

올해 '2022 부산오페라시즌'은 (재)부산문화회관을 비롯하여 금정문화회관, (재)영화의전당 등 3개의 공공극장이 참여한다. 8월 26일 열리는 금정문화회관의 콘서트 오페라 '가면무도회'를 시작으로 10월 1일과 2일에는 (재)부산문화회관이 제작한 전막 오페라 '라 보엠', 그리고 10월 29일에는 (재)영화의전당에서 마련한 콘서트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가 무대에 올려진다.



8. 26(금)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금정문화회관 519-5661

2022 부산오페라시즌의 시작을 알리다 콘서트오페라 '가면무도회'

'2022년 부산오페라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작은 극적인 음악과 서정적인 음악이 잘 어우러진 베르디 오페라 '가면무도회'. 베르디의 중기 작품 중에서도 탄탄한 줄거리를 가진 '가면무도회'는 스톡홀름에서 일어난 스웨덴 왕 구스타프 3세의 살인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엇갈린 사랑과 우정,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정치적 음모까지 짜임새 있는 이야기와 함께 베르디의 작품 중 보기 드물게 '테너의 오페라'라고도 불린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를린 도이치오퍼 주역 가수 테너 강요셉, 전세계 오페라 무대를 장악하고 있는 소프라노 서선영, 2021년 BBC 카디프 콩쿠르 우승자 바리톤 김기훈이 세 주인공으로 무대에 서며, 여기에 부산을 대표하는 성악가 양송미, 이대범, 김정대, 이태흠과 더불어 오페라를 이끌어 가는 감초 역할인 오스카 역을 소프라노 왕기현이 맡아 극의 완성도를 높인다. 특히 연출가 표현진의 치밀한 연출은 극에 더욱 몰입하게 하고 화려하고 장대한 무대는 관중을 압도한다. 또한 지휘자 홍석원의 몰입과 열정에서 나오는 음악적 철저함은 작품을 완벽하게 만들며, 올해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2022 부산오페라하우스오케스트라와 2022 부산오페라하우스합창단이 이번 '2022년 부산오페라시즌'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한다.

- 지휘 홍석원 · 연출 표현진
- 출연 테너 강요셉(리카르토), 소프라노 서선영(아멜리아)
바리톤 김기훈(레나토), 메조소프라노 양송미(올리카)
소프라노 왕기현(오스카), 베이스 이대범(사무엘)
베이스 김정대(통), 테너 이태흠(대법관)

10. 1(토)~ 2(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V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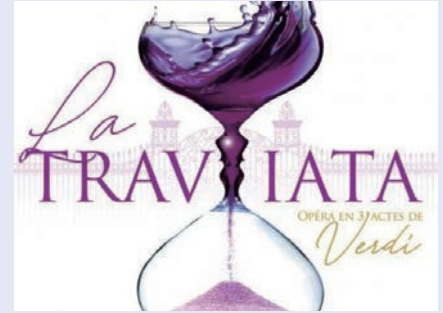
[재]부산문화회관이 제작하는 낭만주의 대표작 오페라 '라 보엠'

(재)부산문화회관이 올해 선택한 오페라는 오페라 '나비부인' '토스카'와 함께 푸치니의 3대 걸작이라 꼽히는 낭만주의 오페라 '라 보엠'. (재)부산문화회관은 지난 2019년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에 이어 지난해 '피가로의 결혼'을 자체 제작, 국내 최정상급 출연진들과 제작진이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여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오페라 '라 보엠'은 파리의 뒷골목 다락방에 살고 있는 시인 로돌포, 화가 마르첼로, 철학자 콜리네, 음악가 쇼나르 등 보헤미안 기질을 가진 4명의 방랑생활과 우정, 그리고 폐결핵을 앓는 이웃집 여인 미미와 로돌포의 슬픈 사랑을 그리고 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렌트'로 각색되기도 한 이 작품은 특히 보헤미안처럼 가난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푸치니의 실제 경험 때문에 더욱더 생생하고 사실적인 작품으로 만들어졌다.

이번 오페라 '라 보엠'을 위해 각 분야 최고의 실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014년 벨기에 퀴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고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 도시와 극장에서 활동중인 황수미와 월프 트랩 오페라(Wolf Trap Opera)의 '라 보엠' 주역 출연을 통해 워싱턴 포스트, 워싱턴 타임즈로부터 호평받은 부산대학교 박하나 교수가 주인공인 미미 역으로 무대에 서며, 세계 3대 오페라극장 중 하나인 비엔나 국립 오페라극장 전속가수로 발탁되어 비엔나 국립오페라에서 한국인 테너 최초로 '리골레토' 주역으로 데뷔한 후 2007년 동 극장에서 공연한 '라 보엠'의 로돌포 역으로 현지 언론의 주목과 호평을 받은 테너 정호윤, 세계적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으로부터 '아름답고 서정적인 목소리를 가진 리릭테너'라는 평을 받은 경북대학교 권재희 교수가 로돌포 역을 맡아 최고의 무대를 선보인다. 지휘는 경상북도 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백진현, 연출은 연출가 엄숙정이 맡아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이번 작품은 대구오페라하우스와 공동제작으로 진행된다.

- 지휘 백진현 · 연출 엄숙정
- 출연 정호윤, 권재희(로돌포), 황수미, 박하나(미미), 문정현, 김종표(마르첼로), 한정현, 유용준(쇼나르), 박순기, 권영기(콜리네), 강소영, 박현진(무제타), 여지훈(베누아, 알친도르), 이창원(파피놀)



10. 29(토)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재)영화의전당 780-6060

베르디 걸작을 콘서트오페라로 만나다 콘서트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재)영화의전당에서는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로 콘서트오페라를 갖는다.

파리 화류계의 동백꽃 여인 비올레타와 귀족 청년 알프레도의 비극적인 사랑이야기를 그린 '라 트라비아타'는 아름답고 섬세한 선율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베르디의 걸작 중 하나로, 삶과 사랑에 대한 깊은 통찰과 휴머니즘을 담고 있다.

이번 무대는 전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성기선이 지휘하고 연극, 음악극, 뮤지컬, 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중인 연출가 안경모가 연출을 맡았으며 비올레타 역에는 소프라노 김신혜, 알프레도 역에는 테너 김지호가 맡아 열연을 펼친다.

- 지휘 성기선 · 연출 안경모
- 출연 소프라노 김신혜(비올레타), 테너 김지호(알프레도) 외

2022 제13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꿈의 이야기

Dreaming and Dreaming

8.30(화)~9 29(목)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區 문화회관 외 부산 전역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f.co.kr



지휘 권터 노이홀트

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최정상의 클래식 음악축제 '2022 제13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가 8월 30일 그 화려한 막을 연다. 지난 2010년 첫 걸음을 내딛은 후 그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의 관심 속에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온 부산마루국제음악제는 지난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공연규모가 축소되는 등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 음악제를 시작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예정이다.

'꿈의 이야기 Dreaming and Dreaming'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올해 부산마루국제음악제에서는 오스트리아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권터 노이홀트, 뛰어난 재능과 리더십을 겸비한 프랑스 출신의 차세대 지휘자 아드리앙 페뤼송, 한국이 자랑하는 지휘자 금나새, 그리스 출신의 세계적인 색소폰리스트 디오니시스 루소, 말러스페셜리스트로 불리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이명주, 이미 최고의 연주자로 인정받는 바이올리니스트 아시 마타티아스, 우리시대의 가장 재능있는 연주자로 사랑받는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티안 김 등 세계적인 지휘자, 연주자들이 부산을 찾아 클래식 음악의 진수를 선사한다.

부산마루국제음악제를 대표하는 메인콘서트는 8월 30일 개막콘서트를 시작으로 모두 6차례 펼쳐진다.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개막콘서트의 주인공은 지휘자 권터 노이홀트가 지휘하는 BMIMF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로, 그리스 색소폰 콰르텟 단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색소폰리스트 디오니시스 루소, 골드 메달 글로벌 뮤직 어워드 수상자이자 야마하 퍼포밍 아티스트인 트럼페터 메리 엘리자베스 보우든이 협연을 맡아 비제의 '카르멘 서곡', 베토벤 교향곡 제7번, 피아졸라 '탱고 모음곡', 하이든 '트럼펫 협주곡'을 들려준다. 현재 유럽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휘자 권터 노이홀트는 독일 오페라 하우스에서의 경험과 세계 유수 국제 콩쿠르에서의 입상 경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 극장 및 오케스트라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활동해오다 지난 2008년부터 빌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세계무대를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마루국제음악제를 위해 구성된 BMIMF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는 한국, 중국, 러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연주자들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

는 솔로리스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메인콘서트 두 번째, 세 번째 무대는 7월 예선을 거쳐 선발된 본선 진출자들이 경연을 펼치는 실내악 컴피티션, 콘체르토 컴피티션 본선무대이다. 8월 31일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에서 펼쳐지는 '실내악 컴피티션 본선'에서는 Amitie Trio, Tromba Duet, Bene Trio, Ensemble IDENTITAT, Ensemble Cafe, Ensemble Q, The Klamore Quartet 등 7개팀이 참가하여 실내악의 향연을 펼친다. 9월 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콘체르토 컴피티션 본선'에서는 이수완(피아노), 이채영(플루트), 유시현(더블베이스), 김준영(트럼펫), RIT XU(플루트), 김가원(바이올린), 이재현(피아노), 안석진(바순) 등 8명의 협연자들이 지휘자 김동수가 지휘하는 BMIMF페스티벌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춘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무대로 꾸며지는 메인콘서트 네 번째 무대는 9월 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프랑스의 촉망받는 지휘자 아드리앙 페뤼송이 지휘하고 그의 동반자인 소프라노 이명주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라벨 '고귀하고 감상적인 왈츠'에 이어 바버의 '녹스발:1915년의 여름' 한국초연무대, 그리고 두 작곡가가 바라본 다른 두 바다를 만날 수 있는 라벨 '바다 위의 작은 배', 드뷔시 '바다'를 들려준다.

메인콘서트 다섯 번째 무대는 9월 2일 을



바이올린
아시 마타티아스

BUSAN MARU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지휘 파블로 사바트

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휘자 로드리고 마시아스가 지휘하는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바이올리니스트 아시 마타티아스의 협연으로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서곡,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베토벤 '교향곡 제5번'을 들려준다. 지휘자 로드리고 마시아스는 멕시코 주립 교향악단, 국립 교향악단, 멕시코시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멕시코의 주요 오케스트라를 지휘했으며, 바이올리니스트 아시 마타티아스는 거장 피아니스트 핀커스 주커만의 제자로 이미 최고의 연주자로 인정받고 있다.

메인콘서트 마지막 무대는 9월 6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지휘자 파블로 사바트가 지휘하는 부산청년오케스트라의 무대로 꾸며진다. 현재 페루 국립 음악대학, Universidad de Ciencias Aplicadas, 국립 산 아구스틴 대학 교수로 있는 파블로 사바트는 2010년부터 페루 국립 청소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예술감독을 맡아 차세대 전문연주자들을 육성해오고 있다. 부산청년오케스트라는 (사)부산음악협회가 지역 출신의 우수한 청년음악가들을 발굴, 전문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한 단체로, 지난 2020년 창단한 후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다.

관객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프롬나드 콘서트'는 올해 6차례 진행된다. 8월 31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는 현재 파리에서 활동중인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박명환의 '스크린 콘서트 불가능한 항해'가 펼쳐진다. 9월 3일과 6일,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과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는 지휘자 금난새를 만날 수 있다. 뉴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성남시립예술단 예술총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있는 지휘자 금난새는 KBS교향악단 전임지휘자와 수원시립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 인천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했으며 1998년 '벤처 오케스트라'인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현, 뉴월드 필하모닉)를 창단하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지휘자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3일에는 이번 무대를 통해 창단연주회를 갖는 GMC 필하모닉의 연주로,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 전곡을 들려준다. 부산, 경남지역의 연주자들로 구성된 GMC 필하모닉은 부산

의 금난새 뮤직센터(Gum Nanse Music Center, GMC)를 거점으로, 신생 오케스트라다운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청중들과 만날 예정이다. 6일에는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국민 오케스트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뉴월드챔버오케스트라와 하마쓰 국제 피아노 콩쿠르 1위 등 세계 유수의 콩쿠르를 석권한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와 함께 무대에 선다. 이어서 이튿날인 9월 7일 동래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금난새와 뉴월드챔버오케스트라가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춘다. 이날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알렉산더 셸리쎬르, 바이올리니스트 신상준, 첼리스트 박성근과 함께 베토벤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작품 56', 브리튼 '단순교향곡'을 들려준다.

프롬나드 다섯 번째 무대는 9월 21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펼쳐진다. 볼케이노 빅밴드의 무대로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넘버를 비롯해 영화 '007 카지노 로얄' OST, El Bimbo, Love is Blue, Toccata, Ballade Pour Adeline, Speechless, A New Life, 너에게 건다 등 우리에게 친숙한 곡으로 빅밴드만의 매력을 선사한다. 볼케이노 빅밴드는 지난 2008년, 틀에 박힌 클래식 공연에서 벗어나 클래식의 대중화와 재즈의 보급화를 위해 창단한 후 정기공연인 'MASTERPIECE' 시리즈를 시작으로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주, 제주 등 초청연주를 통해 '한국 최고의 재즈 빅밴드'라는 찬사를 받아왔다.

프롬나드 콘서트 마지막 무대는 9월 22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지브리 음악대축전'으로 꾸며진다. 지휘자 박지훈이 지휘하는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연주,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



지휘 금난새



볼케이노 빅밴드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티안 킴의 협연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등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주요 애니메이션 OST를 들려준다. 지휘자 박지훈은 수원시립합창단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를 역임하고 2021 한국 예술 비평가 협회 베스트 음악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재능있는 젊은 비르투오소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는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티안 킴은 현재 세종솔로이스츠, 서울비르투오지, 유니버설뮤직 소속 앙상블인 Symphoniacs 단원으로,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미국에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지난 1997년 창단한 후 교향악은 물론 오페라, 발레 등 극장음악 전문 오케스트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세계적인 연주자 및 단체들과의 협연을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산연주자들의 무대로 꾸며지는 '부산음악인시리즈'와 초청연주자들의 환상적인 앙상블 무대를 만날 수 있는 앙상블 콘서트도 올해 계속된다. '부산음악인시리즈'에서는 9월 15일 음악영재에 이어 16일에는 라이징스타, 그리고 26일에는 부산음악인이라는 주제로 차세대 연주자에서부터 중견음악인까지 지역 음악인들의 열정넘치는 무대를 만날 수 있다. 9월 27일과 29일 해운대문화회관과 동래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앙상블 콘서트'에서는 부산마루국제음악제를 위해 기획된 페스티벌 앙상블 단체인 BMIMF스트링앙상블과 BMIMF브라스앙상블의 연주가 펼쳐진다. 이밖에 2006년 전국시도 교육청 최초로 창단된 청소년오케스트라인 부산교문청소년오케스트라 무대로 펼쳐지는 '스쿨 클래식 콘서트',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 프로젝트, 부산지역 내 학교를 찾아가는 아웃리치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열렸던 '국제영상음악제'도 올해 계속된다. 9월 2일부터 사흘간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마련되는 이번 영상음악제에서는 1904년 창단된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인 런던 심포니오케스트라를 비롯해 로얄콘테르트헤바우오케스트라, 노르웨이챔버오케스트라, 싱가포르심포니오케스트라 등 4개팀의 연주실황을 영상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주요 일정

메인콘서트 I 개막콘서트

8. 30(화) PM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메인콘서트 II 실내악 컴피티션 본선 갈라콘서트

8. 31(수) PM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프롬나드콘서트 I 박명황 스크린 콘서트

8. 31(수) PM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메인콘서트 III 콘체르토 컴피티션 본선 갈라콘서트

9. 1(목) PM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메인콘서트 IV 부산시립교향악단

9. 2(금) PM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메인콘서트 V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9. 2(금) PM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프롬나드콘서트 II GMC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9. 3(토) PM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메인콘서트 VI 부산청년오케스트라

9. 6(금) PM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프롬나드콘서트 III, IV 뉴월드챔버오케스트라

9. 6(화) PM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9. 7(수) PM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스쿨 클래식 콘서트

9. 7(수) PM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음악인시리즈 I 음악영재

9. 15(목) PM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부산음악인시리즈 II 라이징스타

9. 16(금) PM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프롬나드콘서트 V 볼케이노 빅밴드

9. 21(수) PM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프롬나드콘서트 VI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9. 22(목) PM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프로젝트

9. 25(토)~9. 26(일) PM 1:00,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음악인시리즈 III 부산음악인

9. 26(월) PM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앙상블콘서트 I BMIMF 스트링 앙상블

9. 27(화) PM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앙상블콘서트 II BMIMF 브라스 앙상블

9. 29(목) PM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선명한 세 개의 점이 만나 그려낸 완벽한 도형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9회 정기연주회

◆ 박진홍 음악평론가

지난 7월 15일 저녁,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올해로 창단 60년을 맞이하고, 정상의 연주 기량을 선보이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제589회 정기연주회를 무대에 올렸다. '프라하 중앙역'이라는 부제를 달고 드보르작의 첼로협주곡과 교향곡 제7번이 연주되었다.

이날 연주는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 근래 보기 드문 기대와 설렘을 자아낸 연주였다. 요즘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반 클라이번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클래식 음악계로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첼로 협연을 한 한재민 역시 주목받는 귀재로, 지난해 15세라는 어린 나이로 제오르제 에네스쿠 국제 콩쿠르에서 쟁쟁한 성인 연주자들을 모두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지휘를 맡은 김선욱은 18세의 나이에 리즈 콩쿠르에서 최연소로 우승한,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피아니스트이다. 한재민과 함께 김선욱이 피아노가 아닌 오케스트라로 만들어 내는 음악이 어떤 모습을 보여 줄 것인지 부산의 음악애호가들은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부산문화회관을 찾았다.

첼리스트 한재민이 무대에 등장했다. 그의 등장에 열기가 가득 담긴 박수와 환호가 터졌다. 국제콩쿠르 결선 당시에도 신었던 빨간 양말이 걸음을 옮길 때 마다 눈길을 끌었다. 긴장이란 단어를 모르는 듯, 당찬 심 대는 여유롭게 객석을 향해 인사를 하고 연주를 시작했다.



1악장, 부드러운 클라리넷의 음색과 함께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먼저 출발했다. 도입부에서 이미 완벽한 밸런스와 군더더기 없는 섬세한 연주로 최고의 연주가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이어서 첼로는 매우 강렬하면서도 명징한 인트로를 보여주었고, 오케스트라를 집어 삼킬 듯한 당돌함과 강인함이 느껴졌다. 리듬은 자유롭게, 있어야 할 곳을 그저 스쳐지나갈 뿐이었다. 넘치는 에너지에 비브라토는 높은 채도로 선명함을 더했다. 한재민의 매력은 감성적인 요소의 양극단을 너무도 명확하게 표현한다는 것이다. 일순간 관객들을 무장해제시키고 물입하게 하는 숨 멎는 피아니시모와 오케스트라의 도전을 뿌리치고 쏟아져 나오는 포르티시모까지 그 표현력은 어떤 말로도 표현이 힘들고, 오로지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연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

2악장의 첼로 솔로 이후가 이날 연주를 통틀어 관객들의 몰입도가 최고조로 치달았던 순간으로 손꼽는다. 첼로의 선율은 마법사의 주문 같았다. 관객들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고개를 돌리는 필자 자신이 마치, 모두가 집단 최면에 걸려 있는데, 혼자 깨어난 이탈자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였다. 클라리넷과 오보에의 맑고 서정적인 선율, 이를 받아 풀어내는 첼로의 앙상블 또한 환상적이었다.

3악장은 생명력으로 꿈틀거렸다. 오케스트라가 보헤미아의 민족적인 색채를 담은 숲을 그리면 기교적인 첼로는 시원하게 넘실대는 강물을 그려냈다. 협주곡의 마지막 음이 관객들의 기억 속으로 모두 각인되자 그 울림은 이윽고 끊이지 않는 박수와 갈채로 터져 나왔고 연이은 커튼콜로 이어졌다. 다시 자리를 잡고 앉은 한재민은 프로코피예프의 '어린이를 위한 모음곡' 중 '행진곡'을 연주했다. 생기있고 장난기 가득한 아이의 모습으로 연주한 이 곡은 더 없이 자유로운 리듬과 마음을 뒤흔드는 선율로 관객들의 감동과 웃음을 자아냈다.

프라하 중앙역. 노란 벽면을 따라 층마다 서로 다른 모양을 한 창문이 늘어서 있다. 지붕 위로 우뚝 솟은 붉은 벽돌로 만들어진 오래된 시계탑을 바라보며 역사 안으로 들어선다. 저 멀리서 기적을 울리며 들어오는 기차의 크레센도와 사람들을 싣고

떠나는 열차의 데크레센도가 뒤섞이듯, 만남과 이별, 꿈과 회한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하모니가 거대한 돔 천장을 휘돌아 귀가를 맴돈다. 이런 정경 속에서 드보르작은 제7번 교향곡의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가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 사랑했던 프라하 그리고 자신의 조국 체코의 모습을 그렇게 음악 속에 담았다. 그래서 이 곡은 드보르작의 작품 중 가장 체코적인 요소가 가득 담긴 작품이다.

지난해 지휘자로서의 첫 데뷔 무대를 보인 신예 지휘자 김선욱. 교향곡 제7번의 연주에서 그의 지휘는 피아니스트로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음악적 해석과 표현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곡 전체를 암보하여 지휘하면서 조화와 대조를 적절히 잘 표현해냈다. 그리고 다이내믹을 섬세하게 배열하고 입체감을 극대화하였다. 특히 바이올린 3열 이후와 더블 베이스는 덧마루를 계단처럼 놓고 위로 층층이 올려 공연장 음향에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음악적 표현뿐만 아니라 물리적 공간에서도 추구하는 음향에 대한 의도를 읽을 수 있었다. 이런 입체적 음향의 추구는 드보르작이 묘사하고자 했던 기차역에 혼재한 사람들의 서사를 드러내기에도 매우 효과적이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선율의 움직임, 이음새가 부드러운 악기 간의 주고 받음, 고집스런 일체감 등으로 기차역은 어느덧 거대한 삶의 무도회가 되었다. 후반부로 갈수록 슬라브의 민족적 색채감은 더욱 짙어지고 감정은 더욱 격앙되어 갔다. 그리고 웅장하면서도 단호한 엔딩. 기대했던 것 이상의 강한 인상을 남긴 연주였다.

매번 연주마다 그 정점을 다시 찍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피아니스트로서의 명성 위에 지휘자로서의 침착을 올리고 있는 김선욱. 그리고 십 대의 당돌함과 나이를 가능할 수 없는 깊이 음악을 보여주고 있는 첼리스트 한재민. 선명한 세 개의 점이 만나 그려낸 완벽한 도형이었기에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로비는 제법 긴 시간 그 열기로 들떠 있었다.

새로운, 그러나 미완의 무대

부산시립극단
제72회 정기공연

◆ 허은 연극평론가
전 경성대 연극과 교수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서도 성격비극의 백미로 알려진 햄릿은 원작을 중심축으로 지금도 어디선가 다양한 모습으로 재탄생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그 어떤 시대나 장소에서 늘 새로운 모습으로 공연되는 작품이다. 인간의 보편적 삶의 모습과 본질이 절절히 투영되어 있기에 문화 상호주의적 측면이나 실험적인 측면에서 동시대 관객을 위한 다양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강태욱 연출(부산시립극단 객원연출)의 햄릿 역시 다양한 분석과 형식적 실험을 통해서 <2022년 햄릿>으로 재구성되어 탄생한다. 이번에는 햄릿(원제)이 아니라 <권력의 시작-햄릿적인(Hamletique)>이라는 제목으로 재창조된다. 형용사 격인 햄릿적인(Hamletique)이라는 제목을 가져다 놓은 것은 이 작품에 대한 연출의 의도와 방향성을 이미 짐작하게 한다. 구성 역시 원본을 상당 부분 변용하여 원본과는 차별성을 보이면서 조금은 낯선 모습으로 나타난다.

연출은 햄릿을 재구성하면서 12세기 덴마크의 실제 역사를 구체적으로 적용한다. 전체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는 주로 햄릿 가문과 그를 둘러싸 권력층의 족보(?) 소개에 할당된다. 2부에 와서야 그 권력들의 회오리 속에서 흔들리는 덴마크의 왕자 햄릿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햄릿 가계에 대한 정보는 과거의 햄릿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당혹스럽게 다가온다. 그래서 팸플릿에는 학습하기에 조금은 부담스러울 정도로 가계도를 친절하게 도표로 소개하고 있다.

공연명은 일반적으로 기호성을 지니고 있다. 상품명이 소비자에게 선입 관념 혹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처럼 공연명도 기호성을 지니고 있다. 햄릿과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에 대해 이미 많은 정보를 가지고 관람에 동참했던 준비된 관객은 햄릿(Hamlet)이 아니라 햄릿적인(Hamletique) 것으로 재창조된 공연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공연장에서는 호불호의 상반된 반응도 있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작품이기에 원작에 이미 학습된 관객

Review



일부는 당혹스러워했고 일부는 새로운 햄릿을 즐기기도 했다. 어찌 되었든 3시간 넘는 공연의 진지함에 모두가 몰입되었던 것은 틀림없었다. 작가와 작품의 무게감은 여러 측면에서 이 공연의 진행에 안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미 사전에 습득된 정보에 의해 작품의 안정성은 담보된 것이다.

<권력의 시작>이라는 제목이 주는 정보는 무대상에 나타나는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암시되거나 상징화되거나 혹은 표현된다. 각 개별적 요소는 그 자체로서 효력을 발생하기도 하지만 순간순간의 다양한 표현과 공감을 통해서 관객은 작품 전체의 흐름과 그 속에 내포된 통일된 의미를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여러 장면에 등장하는 무기는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권력이라는 의미를 발화하는 요소들이다. 그러므로 활용의 구체성이 이를 통해 보장되는 것이 당연하다. 형식과 내용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여 목표로 향한다. 전투와 결투 장면에서 보여준 조금은 영성한 동작이나 소품들은 권력 그 자체 혹은 권력 투쟁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한 하나의 징표인 만큼 더 완전함과 세련미를 보여 줄 필요가 있었지만.

무대는 화학 실험실과 유사하다. 등장하는 모든 요소는 실험을 위한 도구나 재료일 수 있다.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재료들을 혼합하고 배제하는 과정 가운데 각 요소가 어떻게 서로 반응하고 통합되어 가는지 관객은 보게 된다. 독일의 심리학자 분트(Wilhelm Wundt)는 행동이란 주어진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의지적 반응이라 했고 다른 연기론에서는 연기는 반응(Acting is not Acting, Acting is Reaction)이라고도 했다. 연출이 밝힌 것처럼 햄릿 왕자는 주동 인물이 아니라 주변의 등장 인물에게 요구 당하고, 휩쓸리는 존재로서 끝까지 주변의 요구에 대한 선택과 자신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이 만들어 내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햄릿은 고민과 좌절로 반응한다. 햄릿은 대면하는 그 환경을 스스로 막아 투쟁하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머뭇거린다. 그의 고질적 머뭇거림 증상은 스웨덴으로 돌아오는 선박 위의 독백 장면에서 고스란히 녹아 있다. 뒤통수(Shroud) 사다리에 거꾸로 매달린 채 “죽어야 할지 살아야 할지” 라고 내뱉는 대사는 이제까지 보인 어두운 골방에서 중얼거리는 독백이 아니라 권력과 음모가 가득 찬 세



상을 향한 의문형 절규로 표현된다. 결국 이 작품의 핵심적인 요인인 햄릿적인 것(Hamletique)과 얽히고 설킨 권력이 하나의 장면에서 압축된다. 그러나 아쉽다. 그를 위한 다양한 무대적 요소들은 배우의 맘을 값지게 만들기 부족했다. 촘촘하게 엮어진 밧줄 사다리 그물은 바로 권력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단지 그의 동작을 위한 작은 소도구로만 보였고 햄릿을 떠받치고 있는 광대의 모습 역시 광대와 햄릿 사이의 관계를 뚜렷이 보여 주기에 부족했다. 선택을 위한 단순한 선택 정도로 보인 것이 아쉽다.

햄릿이 아니라 햄릿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를 둘러싼 여러 인물이 만들어 내는 환경을 더 치밀하게 구성해야 했다. 햄릿적인 것을 보여 주고자 하는 연출의 노력은 개별 인물들이 철저하게 성격화되지 못하면서 주어진 환경에 대한 반응 결과물이 가져올 수 있는 의미는 안갯속에 빠져 버린다. 그뿐만 아니라 몇몇 주축 배우들을 제외한 등장인물의 발성과 발음은 관객의 집중을 방해한다. 특히 피쳐 번들(염지선)의 불분명하고 상투적 리듬을 지닌 대사 구현은 도도하게 흐르는 원작자의 강물을 잠시 멈추게 하고 말았다.

등장인물의 성격에 따른 연기와 대사 전달의 미숙함을 보면서 배우들은 극중 인물이 아닌 연기자 자신의 모습을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무대의 다른 시각적인 요소들, 특히 영상도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상승시키기 보다는 잘못 놓인 가구처럼 주제와 연출 방향과의 통일성을 보여 주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제 또 한 번의 셰익스피어 명작에 대한 실험과 도전이 끝났지만 오래 미루어 놓았던 숙제를 마친 것처럼 가뿐하지 않고 또 하나의 숙제를 받은 기분이다.

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세계명작가곡뮤지컬 **아기돼지삼형제**

일 시 | 7월 2일(토)-8월 28일(일) 주말 오전 11:00, 오후 2:00(평일 11시 공연은 단체관람) **사랑채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요절복통 웃음 속에 노래와 율동이 함께하는 세계명작 뮤지컬 '아기돼지삼형제'.

힘을 합쳐 무서운 늑대를 물리치는 아기돼지삼형제를 통해 '서로가 힘을 모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교훈적 내용을 전하는 이번 무대는 특히 어린이들이 극에 몰입할 수 있도록 캐릭터 탈을 쓴 배우들이 등장,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쉬운 리듬의 노래와 율동으로 어린이 관객들에게 가깝게 다가간다.

- 작/오계영
- 연출/오영섭
- 출연/박규한, 김성열, 정지수, 서예은 외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앙리 마티스: 라이프 앤 조이

일 시 | 7월 9일(토)-10월 30일(일) **전시실**
 입장료 | 일반 1만8천원, 청소년 1만5천원, 어린이 1만2천원
 문 의 | (주)가우디움어소시에이츠 1661-1079



프랑스를 대표하는 화가이자 '행복의 화가(A painter of bonheur)'로 불리는 앙리 마티스의 첫 부산전시.

국내 최대 규모의 마티스 회고전으로, 200여 점에 달하는 드로잉, 판화, 일러스트, 아트북 등 그가 남긴 방대한 원화 작품을 통해 '야수파'로 알려진 마티스의 또 다른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프랑스 니스 바닷가의 파도 소리, 마티스 고향 평원의 바람 소리를 현지 울로케이션으로 촬영하여 담아낸 영상과 뮤지션 정재형의 음악, 그리고 미디어아트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마티스의 예술과 삶을 더욱 풍성하게 담아낸다.

제48회 부산의치대 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일 시 | 8월 6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의치대 관현악단 010-8786-5052



지난 1973년 부산의대 실내악 합주단으로 첫발을 내딛은 후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꾸준히 무대에서 온 부산의치대 관현악단 48번째 정기연주회.

바쁜 학사 일정 속에서도 꾸준히 기량을 쌓아온 부산의치대 관현악단은

이번 무대에서 KNN방송교향악단 부지휘자 박진의 지휘로 비제의 '카르멘 모음곡'을 비롯한 우리 귀에 친숙한 곡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프로그램

- 비제/카르멘 모음곡 제1번
- 드보르자/첼로협주곡 나단조
- 드뷔시/플루트협주곡 제7번 마단조
- 드보르자/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 지휘/박진 • 악장/이원종
- 협연/김태현(첼로), 남궁윤(플루트)

제1회 BIASF 부산국제 예술가곡 축제

일 시 | 8월 5일(금)-12일(금)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중극장, 대동대학교 D'art Hall
 문 의 | 아트컴퍼니 소미 010-5944-1733



한국 최초의 국제 예술가곡 축제로 탄생한 제1회 BIASF 부산 국제 예술가곡 축제.

8월 7일 독일로부터 '독일 궁정가수' 칭호를 받은 베이스 연광철의 리사이틀로 마련되는 축제 개막 콘서트를 시작으로, 10일

에는 이탈리아 가곡과 아리아의 밤, 11일에는 아마추어 성악가의 밤, 12일에는 한국가곡의 밤이 개최된다.

공연과 더불어 8월 5일에는 독일가곡 마스터 클래스, 6일에는 국제성악콩쿠르 본선 콘서트, 8일에는 베이스 연광철 마스터클래스가 펼쳐진다.

- 상임고문/연광철 • 예술총감독/조규희
- 총괄본부장/성승민 • 제작감독/이경재
- 수석코치/정호정

5일(금) 오후 2:00 대동대학교 D'art Hall
 바리톤 조규희 독일가곡 마스터클래스

6일(토) 오후 1:00, 5:00 대동대학교 D'art Hall
 국제성악콩쿠르 본선 콘서트
 젊은 성악도들의 경연장이 될 BIASF 국제성악콩쿠르 본선 무대.



7일(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개막 콘서트 '베이스 연광철 리사이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성악가이자 독일 베를린 궁정가수인 베이스 연광철 리사이틀로 마련되는 축제 개막 콘서트.

■입장료/VIP 10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8일(월) 오후 2:00 대동대학교 화봉관 대극장
 베이스 연광철 마스터클래스

10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이탈리아 가곡과 오페라의 밤

대한민국 국립오페라단 주역 성악가들과 부산을 대표하는 성악가들이 펼치는 무대로, 이탈리아 가곡 및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리콜레토'의 주요 아리아를 들려준다.

- 소프라노/변지영, 김성은, 강소영
- 메조소프라노/양송미
- 테너/이인학, 신상근, 김성진
- 바리톤/양준모, 김종화 • 베이스/박준혁
- 입장료/VIP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11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아마추어 성악가의 밤

노래와 음악을 사랑하는 부산, 경남지역을 대표하는 순수 아마추어들이 펼치는 '아마추어 성악가의 밤'.

- 출연/다숨양상블(박시연, 하숙경, 홍은아), 테너 박근태, 안병규, 최현, 나성근, 바리톤 정량부 외

■입장료/전석 2만원

12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한국가곡의 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악가들이 마련하는 무대로, 우리 귀에 익숙한 한국가곡을 테마별로 나누어 들려준다.

- 소프라노/김은주, 변지영, 최윤정, 강소영
- 메조소프라노/이지영
- 테너/이인학, 신상근, 김성진, 조현철
- 바리톤/양준모, 김종화
- 베이스/김재찬
- 입장료/VIP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테너 최용준 귀국독창회

일 시 | 8월 6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문 의 | 이신범 010-4434-0627



경성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로 유학, 리치니오 레피체 국립 음악원 오페라 전공과정을 거쳐 전문성악가의 길로 들어선 테너 최용준 귀국독창회.

최용준은 로마 현지 다수 극장에서 오페라 나비부인,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투란도트, 팔리아치 등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했으며, 스카피티 국제 콩쿠르에서 3위 입상한 바 있다.

귀국 후 각종 콘서트 및 오페라 무대에서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최용준은 이번 무대에서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러의 '방향하는 젊은이의 노래'를 비롯해 마르첼로, 벨리니, 토스티, 로날드의 가곡과 한국가곡 '마중', 레하르 오페레타 '쥬디타', 비제 오페라 '카르멘'의 아리아를 들려준다.

- 피아노/조가영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앙리 마티스:라이프앤조이' 연계특강

일 시 | 8월 6일(토), 9일(화) 오후 2: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6일(토) 남프랑스, 마티스의 흔적을 찾아서:마티스 미술관과 그의 친구들 마티스의 예술세계의 변화를 가져다 준 중요한 장소였던 남프랑스로 함께 떠나보는 시간으로, 더불어 마티스의 작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재즈와 함께 니스의 마티스미술관을 둘러보고 그의 예술세계를 이해해본다.

- 강사/이현(미술사연구소장 및 미술사가)

9일(화) 앙리 마티스, 파리 패션을 매혹하다 앙리 마티스의 여성 초상화 속 여인들의 옷을 통해 화가의 영감이 오늘날의 패션에 미친 영향들을 살펴봄, 나아가 당시의 오프 쿠튀르 문화를 모더니즘 예술의 다각적인 측면을 통해 살펴본다.

- 강사/김흥기(패션 큐레이터 및 작가)

2022년 브니엘 무용 예술제

일 시 | 8월 10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5세 이상 입장)
 문 의 |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무용부 513-9710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기초적인 예술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문을 연 브니엘 예술고등학교 무용부 재학생들이 마련하는 2022년 브니엘 무용 예술제.

그동안 창의력 있는 우수 무용인을 양성해온 브니엘 예술고등학교 무용부는 매년 예술제를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여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등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이혜경&조영웅 듀오 리사이틀 Duo Amabile, 첫 번째 이야기

일 시 | 8월 11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The SMI 010-4063-0645



미국에서 활동중인 피아니스트 이혜경과 조영웅의 화려한 듀오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이혜경&조영웅 듀오 리사이틀.

동아대학교 음악학과와 불가리아 소피아 국립음악원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이혜경은 한국과 미국, 불가리아에서 다수의 초청 독주회 및 협연무대에 섰으며, 미국 The American Prize 피아노 솔로 및 협주곡 부문(2013, 2020)에서 입상한 바 있다.

러시아 그네신 음대 학사 및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도미, 뉴저지 몽클레어 주립대 연주자과정, 보스턴 음대 박사과정을 졸업한 조영웅은 다양한 기획 연주 외에도 2016년부터 실내악 시리즈 '조영웅과 친구들'을 선보이고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일 시 | 8월 12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차별화된 연주로 실내악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목관과 금관이 빛어내는 아름다운 선율로 관객들에게 한 여름밤 힐링의 무대를 선사한다.

- 프로그램**
- 푸치니/오페라 '라 보엠' 모음곡
 - 데메르스만/플루트와 오보에 듀오를 위한 '월리엄 탭'
 - 풀랑크/호른, 트럼펫, 트럼본을 위한 소나타
 - 팔리크/금관 5중주를 위한 레트로 마신
 - 거쉬인/브로드웨이의 거친
 - 드보르작/관악기를 위한 세레나데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노부스 콰르텟 '오직 베토벤'

일 시 | 8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실내악단 노부스 콰르텟 초청연주회 '오직 베토벤'. 한국예술종합학교 동문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과 김영옥, 비올리스트 김규현, 첼리스트 이원해 등 실력파 아티스트들로 구성된 노부스 콰르텟은

지난 2007년 창단 후 오사카 국제 실내악 콩쿠르, 리옹 국제 실내악 콩쿠르 등에서 입상하고, 2012년 세계 최고 권위의 뮌헨 ARD 콩쿠르 2위 수상에 이어 2014년 제11회 모차르트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머쥐면서 대한민국 실내악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무대에서 베토벤 현악사중주 제4번과 제5번, 제9번 '하프'와 제10번 '라주모프스키 제3번'을 들려준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with 아창제

일 시 | 8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1층) 1만원, S석(2층)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대한민국 창작음악의 명맥을 이어온 아르코한국 창작음악제(이하 아창제)와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특히 이번 무대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처음 열리는 아창제로, 부산 음악애호가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RKO 한국창작음악제'의 브랜드명인 '아창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의 특성화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국악, 양악 부문을 망라한 창작관현악 작곡과 발표, 비평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창작음악페스티벌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수석지휘자 김종욱이 지휘하고 비파 연주자 마롱, 25현가야금 연주자

김보경, 박소희, 타악기 주자 김인수, 소리꾼 박성희, 정윤형, 그리고 부산시립합창단이 출연하여 창작국악관현악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사한다. 특히 국악애호가들이 온라인 투표를 통해 직접 뽑은 작곡가 김현섭 곡 '항비파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천장고임, 학을 탄 선인'을 비롯해 아창제 선정 작곡가들의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유민희/마음의 전쟁
김현섭/항비파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천장고임 '학을 탄 선인'

이재준/25현 가야금 이중협주곡 '별뿔별'
이예진/타악기를 위한 협주곡 '기우'
이정호/합창과 진도씻김굿, 국악관현악을 위한 '진혼'

- 지휘/김종욱 • 사회/윤중강
- 연주/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항비파/마롱
- 25현 가야금/김보경, 박소희
- 타악기/김인수
- 소리/박성희, 정윤형
- 합창/부산시립합창단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핑크퐁 클래식 나라 -뚜뚜를 찾아라

일 시 | 8월 20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36개월 이상,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여름방학을 맞아 펼쳐지는 우리 아이 첫 클래식 콘서트.

대한민국 대표 어린이 캐릭터 브랜드인 핑크퐁이 공연을 이끌어가는 이번 무대는 '클래식은 지루하다'라는 편견을 깨고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핑크퐁

동요와 더불어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오케스트라의 라이브연주로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탄탄한 실력과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으로 사랑받는 바이올리니스트 다니 구가 핑크퐁과 함께 모험을 떠나며, 김영랑 지휘자가 이끄는 코리아콥오케스트라가 어린이들을 클래식의 세계로 안내한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오페라 작곡가 시리즈 1 유럽극장 주역가수들과 함께하는 모차르트 갈라콘서트

일 시 | 8월 20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VIP 5만원, R석 4만원, S석 3만원

문의 | YJ클래식스 010-6307-6885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곡가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과 '마술피리'로 꾸며지는 모차르트 갈라 콘서트.

세계 최고의 오페라 극장인 메트로폴리탄 영아티스트 출신이자 쾰른오페라극장, 리스본오페라극장의 오페라 '파우스트'를 통해 유럽무대를 화려하게 데뷔한 테너 박승주, 독일 작센주 Freiberg 극장의 주역가수이자 드보르작 콩쿠르 우승자 바리톤 최범석, 그리고 드보르작 콩쿠르 및 유수의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유럽무대에 데뷔한 소프라노 이지현이 함께 한다. 특히 이번 무대는 영·호남 교류 음악회로, 부산 출신의 성악가들과 지휘계의 떠오르는 라이징스타 상임지휘자 정현이 지휘하는 목포시립교향악단이 함께 한다.

제11회 센토챔버소사이어티 정기연주회 20C

일 시 | 8월 23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 센토챔버소사이어티 442-1941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악장으로 있는 이은옥을 주축으로 부산, 경남 일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연주자들로 결성된 센토챔버소사이어티 정기연주회.

'Sento'는 이탈리아어 동사 'Sentire'에서 나온 말로 '느끼다, 듣다'라는 뜻으로, 이름이 가진 뜻 그대로 연주자들의 '느낌'이 청중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음악을 통한 연주자와 청중의 교감을 중시하는 센토챔버소사이어티는 이번 무대에서 '20C'라는 주제로 20세기 활동했던 작곡가 클리에르, 프로코피에프, 쇼스타코비치, 바르토크의 앙상블 작품을 통해 고전, 낭만과는 확연히 다른 20세기를 관통하는 사조를 느낄 수 있다.

허경미 무용단 무무 창작공연 그리하여 능청이다

일 시 | 8월 25일 목요일 오후 8: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예매시 1만5천원)

문의 | 허경미 무용단 010-9274-5596



타 장르와의 협업작업과 새로운 공연장 개발로 실험적 작업들을 시도해 오고 있는 허경미 무용단 무무의 무대.

허경미 무용단 무무는 그동안 미디어 창작단체인 진흥스튜디오와의 협업으로 멀티미디어 퍼포먼스 'Body Projections II', '다이얼로그', '스트리밍 시티' 등을 선보였으며 중앙동 40계단에서 공연한 '진화'를 비롯해 '적'(갤러리 오픈스페이스 배), '경'(부산시민공원 거울연못), '감만기억' '콜링감만'(감만동 일대 투어) 등 공연장이 아닌 새로운 무대에서 관객들과 소통해오고 있다.

위태롭게 또 한 시대를 함께 넘어가며 어디쯤에서 느린 걸음으로 뒤에 서 있을 분들을 떠올리며 창작한 '그리하여 능청이다'를 선보인다.

- 총연출/허경미 • 안무/신상현, 허경미

제1231회 MBC목요일음악회 라베스 피아노 트리오와 함께 하는 빛나는 시간

일 시 | 8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일반 1만원, 청소년 5천원
문 의 | (사)문화도시 부산네트워크 760-1494



펠리시아 바이올린 앙상블 대표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손영지를 리더로 코리안뮤직앙상블, 클래식앙상블, 디첼리스트단원으로 있는 첼리스트 이강수, 클래식앙상블 단원으로 결성된 라베스 트리오

의 무대. 깊이 있는 연주로 늘 관객과 함께하고 싶은 라베스 트리오. 이번 무대에서 일상에 지친 모든이에게 위로가 되는, 휴식과도 같은 음악을 선물하며 실내악의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 팀명인 'alaveze'는 스페인어로 '동시에'라는 뜻을 지닌 말로, 클래식 안에서 연주자와 관객이 그 음악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공유하고자 붙인 이름이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슈퍼 타이거

일 시 | 8월 26일 금요일 오후 8:00,
27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히어로(hero)를 꿈꾸는 청년예술가 52명이 참가하는 (재)부산문화회관 제작공연 '슈퍼 타이거'. 지난해 팬데믹으로 인해 삶의 '모티(모퉁이)'로 내몰렸던 청년들의 현실을 그린 'MOTI/어디로부터'를 통해 사회적인 화두를 던졌던 부산시립무용단 이정운 예술감독은 이번 작품에서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우리시대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이번 작품 속 변종 호랑이는 태어날 때부터 독특하여 우리 속에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곁돌지만 그런 이들로 인해 세상이 바뀌어 나가면서, 마침내에서 피어난 연꽃과도 같은 슈퍼(Super)한 호랑이(Tiger)를 만날 수 있다.

- 연출, 안무/이정운 • 음악감독/김종욱

테너 조운환 독창회 사랑, 그 향홀하고도 슬픈...

일 시 | 8월 26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금정구여성합창단 지휘자, Busan Logos International School, 거제대학교 교양과 외래교수로 있는 부산을 대표하는 테너 조운환 독창회.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와 빈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음악대학에서 최고연주자과정으로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수석졸업한 조운환은 잘츠부르크에서 열리는 모차르트 국제콩쿠르 성악부문에서 입상한 바 있으며, 그동안 솔리스트로서뿐만 아니라 다수의 오페라 주역, 오케스트라 협연 등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토스티 4개의 슬픈 사랑의 연가를 비롯해 포레, 도니체티, 비제, 슈만 등 아름다운 연가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권준 • 하프/김재하

첼리스트 조형준과 함께하는 앙상블 아토 일곱 번째 정기연주회 Carnival of 아토

일 시 | 8월 27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유아 및 학생 1만원
(전 연령 입장 가능)
문 의 | 앙상블 아토 010-7640-4240



지난 2016년 창단 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소통해온 앙상블 아토의 7번째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하이든 국제실내악 콩쿠르 우승 등으로 우리나라 실내악계에 돌풍을 일으킨 아벨 파르렛의 첼리스트 조형준을 초청, 바흐의 '첼로협주곡'을 들려주며, 드뷔시 '작은 모음곡(Petite Suite)'과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를 부산 지역의 실력있는 연주자들과 함께 연주한다.

특히 이번 무대는 전 연령대 입장이 가능한 공연으로, 알기 쉬운 해설로 어린 관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다.

- 지휘/박혜산 • 협연/조형준(첼로)

트리오 에클라 Shall we dance?

일 시 | 8월 27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트리오 에클라 010-8272-5306



미국 유타 당시부터 호흡을 맞춘 피아니스트 하승경, 첼리스트 김나래가 귀국 후 바이올리니스트 박주영과 함께 결성한 트리오 에클라의 무대. 사전적 의미로 빛의 조각, 열정 등을 뜻하는 에클라(Eclat)는 한조각의 음악 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연주하겠다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지난 2018년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월드브릿지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부산시민회관 장애인음악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부산음악인 시리즈 등 다수 무대를 통해 완성도 높은 실내악으로 관객과 소통해오고 있다. 'Shall we dance?'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하이든의 '집시', 드보르작의 '헝가리안 댄스', 차이콥스키의 '슬리핑뷰티', 피아졸라의 '사계' 등 잘 알려진 대중적인 댄스 작품들을 통해 관객들에게 힐링의 무대를 선사한다.

후 브라스 콰이어 제10회 정기연주회 WIND for BUSAN

일 시 | 8월 28일 일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5세 이상 입장, 학생 50% 할인)
문 의 | 후브라스 콰이어 010-8733-7438



부산, 경남의 연주자들로 결성된 후 브라스 콰이어의 10번째 정기연주회. 창단 이듬해인 2012년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금관앙상블의 매력을 알려온 후 브라스 콰이어는 특히 제2회 정기연주회부터 20명으로 확대 편성, 5중주부터 20중주까지 더 웅장한 브라스 음악으로 감동을 주고 있다.

- 대표/김영민 • 음악감독/김기울
- 트럼펫/데미트리 로카렌코프, 김동현, 박승훈, 전상운, 박민준, 박찬완, 위대한, 문희, 전경배
- 호른/김영민, 오원택, 최희진, 안상우
- 트롬본/최민재, 박소정, 방제표
- 유포늄/하연주, 김정훈 • 튜바/김현찬, 김서희
- 타악기/장인일, 김세연, 박찬식, 성형원

오순도순 정다운 노래여행 2nd 젊은 오빠와 젊은 누나들 노래

일 시 | 8월 28일 일요일 오후 6:00 **챔버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오순도순 우리가곡부르기 010-4628-3098

노래와 가곡을 사랑하는 오순도순 우리가곡부르기가 마련하는 '젊은 오빠와 젊은 누나들 노래' 두 번째 무대.

오순도순 우리가곡부르기는 매월 토요일마다 사상구에 위치한 진아트홀에 모여 가곡을 노래하고 배운다.

지난해에 이어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가곡, 이태리가곡, 오페라 아리아 등 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프로그램

못잊어(김동진 곡), 대관령(박경규 곡), 보리밭(윤용하 곡), 그리운 금강산(최영섭 곡) 등 수록



2022 제13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I 개막콘서트

일 시 | 8월 30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 3만원, R석 2만원, S석 1만원
 문 의 |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f.co.kr



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최정상의 클래식 음악축제 '2022 제13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개막콘서트.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개막콘서트의 주인공은 지휘자 권터 노이홀트가 지휘하는 BMIMF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로, 그리스 색소폰 파르렛 단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색소포니스트 디오니시스 루소, 골드메달 글로벌 뮤직 어워드 수상자이자 아마하 퍼포밍 아티스트인 트럼페터 메리 엘리자베스 보우든이 협연을 맡아 비제의 '카르멘 서곡', 베토벤 교향곡 제7번, 피아졸라 '탱고 모음곡', 하이든 '트럼펫 협주곡'을 들려준다.

• 지휘/권터 노이홀트
 • 연주/BMIMF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제1회 샤르망 앙상블 창단연주회

일 시 | 8월 30일 화요일 오후 7:00 **챔버홀**
 문 의 | 샤르망 앙상블 010-7689-9303



바이올리니스트 신지혜를 리더로 바이올리니스트 조수민, 비올리스트 이혜빈, 첼리스트 김수정, 피아니스트 정영훈 등 음악을 사랑하는 5명의 전문 연주자들로 결성된 샤르망 앙상블의 창단연주회.

'샤르망'은 프랑스어로 '매력적인, 매혹적인' 뜻을 지닌 이름으로, 매혹적인 연주로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클래식에서부터 영화음악까지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위안과 힐링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하이든/현악사중주 제30번 내림마장조 작품 33-2 'The Joke'
 아렌스키/피아노오중주 라장조 작품 51
 엔니오 모리코네/영화 '시네마천국' OST 등

2022 제14회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더 클래식, 아시아의 창(窓) 부산

일 시 | 8월 31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KNN 홈페이지를 통해 초대권 신청)
 문 의 | KNN 850-9568



국내외 음악인들이 만들 어낼 꿈의 하모니, 부산 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BWPO)의 '더 클래식 아시아의 창(窓) 부산'.

유럽과 미국, 러시아 등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산, 경남 출신의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이번 무대는 클래식 음악을 통해 부산을 알리고, 부산이 세계음악의 중심지가 되는 무대가 되고자 기획된 공연으로, 지난 14년 동안 다양한 음악적 시도로, 부산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음악적 성장을 도모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사)KNN방송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사)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수석지휘자, (사)한국오페라단 음악감독으로 있는 서희태가 지휘하고 따뜻한

감성과 판타지, 논리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김정원, 비범한 테크닉과 풍부하고 다양한 표현력의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자연스럽고 섬세한 음악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첼리스트 문태국이 협연한다.

2008년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MBC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주인공 '강마에'의 롤 모델로 유명한 지휘자 서희태는 그동안 다양한 방송활동으로 클래식음악의 대중화를 이끌어왔으며, 인문학과 리더십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강사로 (사)한국강사협회로부터 '명강사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에그먼트 서곡'을 시작으로 '삼중협주곡 작품 56', '교향곡 제7번 작품 92' 등 베토벤 곡으로 꾸며진다. 특히 조화로운 선율과 장엄한 사운드가 매력인 '삼중협주곡'과 경쾌한 장단과 리듬으로 베토벤의 교향곡 중에서 인기가 높은 곡인 '교향곡 제7번'으로 클래식 음악의 낭만을 즐길 수 있다.

• 지휘/서희태
 • 피아노/김정원 • 바이올린/한수진
 • 첼로/문태국

제13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IV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90회 정기연주회 물결

일 시 | 9월 2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90회 정기연주회 '물결'.

프랑스의 촉망받는 지휘자 아드리앵 페뤼송이 지휘하고 소프라노 이명주가 협연자로 출연, 프랑스를 대표하는 라벨과 드뷔시의 작품을 통해 인상주의 음악의 진수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라벨/귀귀하고 감상적인 왈츠
 바버/녹스빌:1915년의 여름 [한국 초연]
 라벨/바다 위의 작은 배 [한국 초연]
 드뷔시/3개의 교향적 스케치 '바다'

부산시민회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W.C.W.S IV 레이첸&선우예권
듀오 콘서트

일 시 | 9월 3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클래식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레이첸과 선우예권, 두 젊은 거장을 만날 수 있는 월드콩쿠르 우승자 시리즈(W.C.W.S) 네 번째 무대. 레이첸은 2008년 예후디 메뉴인 콩쿠르에 이어 2009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연달아 우승하며 국제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했으며,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은 지난 2017년 제15회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는 등 한국인 피아니스트 최다 국제 콩쿠르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

그리그/바이올린 소나타 제2번 작품 13
 폴랑크/바이올린 소나타 작품 119 등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국립창극단 귀토

일 시 | 8월 12일(금)-13일(토)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만 7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판소리 다섯 바탕 중 하나인 '수궁가'를 창극으로 새롭게 탄생시킨 국립창극단 '귀토'. 특히 국립창극단 최고 흥행자인 '변강쇠 점 찍고 웅녀'의 연출가 고선웅과 음악감독 한승석 콤비가 다시 손잡은 화제작으로, 국립창극단 전 단원을 포함해 총 53명의 출연진이 총출동하는 대규모 무대이다. 토기인 '토자(兔子)' 역활은 2021년 JTBC <풍류대장>에서 준우승을 거머쥔 국악계의 아이돌 김준수, 또 다른 주인공 자라 역은 판소리 신동으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유태평양이 맡아 국악팬들을 설레게 한다.

뮤지컬 민짜미 사랑해요 엄마!

일 시 | 8월 20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21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대극장**
 입장료 | 1층석 6만6천원, 2층 5만5천원
 문 의 | 동그라미그리기 1577-4868



어린이들의 워너비 유튜브 브 인기 크리에이터인 '민짜미'를 무대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뮤지컬 '민짜미 사랑해요 엄마!' 부산 무대. '민짜미'는 현재 어린이 및 청소년의 유행 트렌드와 일상 소재를 다양한 콘텐츠로 다룬 유튜브 채널을 통해 28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로, 특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특유의 유쾌한 매력으로 전하고 있다. 이번 뮤지컬은 유튜브 지망생이 된 민짜미가 신인 크리에이터 오디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마와 영혼이 뒤바뀌어 서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내용을 담은 작품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웃음과 감동으로 그려내고 있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제68회 정기연주회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의 말러

일 시 | 9월 6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5천원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학업과 연주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꾸준히 기량을 쌓아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68회 정기연주회.

수석지휘자 이명근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후기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이자 20세기 모더니즘 음악의 개척자인 구프타프 말러의 교향곡 제1번 '거인(Titan)'을 들려준다.

제목인 '거인'은 당시 말러가 심취해있던 독일의 낭만파 작가 장 파울의 시 '거인'에서 가져왔지만 제목과는 달리 젊은이의 고뇌를 담고 있으며, 대규모의 관현악 편성을 사용하면서도 낭만적 서정성을 잃지 않고 있다.

- 지휘/이명근(수석지휘자)

블록버스터 영화음악 콘서트

일 시 | 8월 27일(토)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12만원, S석 9만원
 | A석 6만원, B석 4만원
 문 의 | 클럽서비스(주) 1577-3363



전 세계를 열광시킨 블록버스터 영화음악의 향연 '블록버스터 영화음악 콘서트' 부산무대. 어벤져스, 아이언맨, 토르 등 슈퍼 히어로 영화의 대명사 마블 스튜디오의 음악부터 반지의 제왕, 스타워즈, 해리 포터, 아바타, 미션 임파서블, 다크 나이트, 캐리비안의 해적, 글래디에이터 등 세계를 열광시킨 블록버스터 영화음악만으로 꾸며지는 무대로, 스크린을 통해 웅장한 감동을 전했던 블록버스터 영화의 '그때 그 감동'이 90인조 초대형 풀 편성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을 울린다.

- 지휘/김재원 • 바이올린/김영준
- 연주/WE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산시민회관 2022 문화가 있는 날
배시시 명품극장 디토 파라디소

일 시 | 8월 31일 수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지정좌석제,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이 예술의전당 우수 공연 콘텐츠를 공연장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하는 2022 문화가 있는 날 '배시시 명품극장'.

8월 상영회에서는 클래식계의 아이돌이라 불리는 '디토' 창단 10주년을 자축하는 스페셜 갈라 콘서트 '디토 파라디소'를 선보인다.

이번 무대에서는 앙상블 디토의 음악감독이자 비올리니스트인 리처드 용재 오닐을 비롯하여 젊은 거장 피아니스트 임동혁, 개성 넘치는 클래식 아티스트 지용, 피아노계의 슈퍼루키 스티븐 린, 유럽 무대에서 활약중인 차세대 피아니스트 한지호 등 멤버들과 앙상블 디토, 그리고 디토 오케스트라가 함께한다.

음악

2022 (재)영화의전당 토요일외콘서트

일 시 | 8월 6일(토), 13일(토), 27일(토) 오후 5:0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수영장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도심 속 야외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2022 (재)영화의전당 토요일외콘서트.

6일 정두환의 여름바다 이야기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CBS 윈드 오케스트라'의 바다음악회.

13일 메가시티 메가뮤직

부산, 울산, 경남 진주의 음악인들이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적 미래를 기원하며 마련하는 음악회.

27일 클래식&탱고 콘서트

금정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지역의 젊은 예술인들의 무대로, 작곡가이자 반도네온 연주자 김종완을 주축으로 하는 3인조 월드뮤직 탱고팀 '친친탱고'와 부산의 젊은 청년들이 모인 금관앙상블 'V-브라스'의 무대가 펼쳐진다.

8월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3일, 24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당일 현장 구매)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4

매월 다채로운 장르의 무대로 관객과 만나는 금정수요음악회 8월 무대.



10일(제787회) Ensemble Q 창단연주회

바이올리니스트 백건, 비올리스트 김규, 첼리스트 이호찬, 이상으로 결성된 Ensemble Q의 창단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바흐, 코데츠, 파가니니, 헨델-할보르센, 글리에르, 아렌스키 등 다채로운 앙상블로 관객들과 만난다.

17일(제788회) 앙상블 크로노토프 창단연주회

피아니스트 김정화와 첼리스트 정서은, 김윤영으로 결성된 앙상블 크로노토프의 창단무대.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김정화의 해설과 함께 텔레만, 헨델, bazilevsky의 곡을 들려준다.

31일(제789회) 타악앙상블 Dream 打 '和鼓(화고)'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타악앙상블의 무대 '和鼓(화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타악수석 송강수가 음악감독으로 있는 타악앙상블 Dream 打가 신명넘치는 타악연주를 선사한다.

소리북 합주, 가야금병창 '심청가' 중 올라간다. 앙상블 TA1, moZaic, 경기도당굿, 원장현류 대금산조, 앙상블 TA1

- 음악감독/송강수
- 대표/이진희
- 연주/김명진, 이지현, 김인균, 김보연, 손기영, 정시우, 조혜진, 이산, 김정우, 한민혁, 박태형, 박운호
- 태금/한영길
- 가야금병창/이아름
- 베이스/박주민

스플렌데라 제1회 정기연주회 E-flat

일 시 | 8월 11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 의 | 스피렌데라 010-2579-4492



바이올리니스트 남가영, 비올리스트 윤솔샘, 첼리스트 신윤경, 피아니스트 이안나 등 부산, 경상지역을 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네 명의 솔리스트들로 결성된 스피렌데라의 첫번째 정기연주회.

지난 2020년 10월 창단된 스피렌데라는 앞으로 최고의 팀워크와 환상적인 호흡으로 다양한 편성의 무대를 통해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팀명인 스피렌데라는 '짝반짝 빛나는'이라는 뜻을 지닌 이태리어로, 빛나는 앙상블을 들려주겠다는 팀원들의 의지를 모아 붙인 이름이다.

프로그램

- 김종완/Beyond the time
- 베토벤/현악트리오 내림마장조 작품 3
- 슈만/피아노사중주 제1번 내림마장조 작품 47

스페이스움 8월 음음악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30(5일 공연없음)
 스페이스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스페이스움 557-3369



12일(제467회) 필름콘서트 한국 영화계의 거장 박찬욱, 봉준호 감독의 대표작에 삽입된 음악을 김종완 작곡가의 시선으로 재해석하여 들려주는 '필름콘서트'.

이번 무대에서는 작곡가 겸 반도네온 연주자 김종완, 피아니스트 이안나, 바이올리니스트 강소연으로 구성된 탱고앙상블 '친친탱고'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 '기생충',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아가씨'의 영화 수록 곡을 들려준다.

19일(제468회) TDC앙상블 '실내악으로 듣는 문학 작품'

독일, 러시아, 이태리 등지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한 부산 출신의 연주자들로 구성된 TDC앙상블의 무대.

지난 2011년 창단 후 그동안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관객과 소통해온 TDC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문학작품을 소재로 한 클래식 곡을 앙상블 연주로 들려준다.

- 해설/이선형
- 피아노/고영주
- 바이올린/김성빈, 오근영
- 비올라/유정주
- 첼로/이지수
- 타악기/우정은

26일(제469회) 소리&어울림

2018년 부산음악상을 수상하고 현재 독일가곡연구회 부회장으로 있는 피아니스트 박필은, 에델현악사중주단 단원, 로얄필하모니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정진경, 창원시립교향악단, 앙상블 'With' 단원으로 있는 첼리스트 심지현이 함께하는 무대.



(사)부산네오피합모닉오케스트라 제72회 정기연주회
한여름 밤 돛자리 음악회
함께하면 좋으니까!!

일 시 | 8월 13일 토요일 오후 7:30
 스포원파크 분수대광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사)부산네오피합모닉오케스트라
 070-8899-7308, 010-3544-7308



부산을 대표하는 민간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산네오피합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는 야외에서 마련되는 '한여름 밤 돛자리 음악회'로, 영화음악, 디즈니 OST, 가곡, 뮤지컬, 국악 등 누구나 좋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여름 밤의 낭만을 선사한다.

- 예술감독, 상임지휘자/홍성택
- 소프라노/김소연, 김아름
- 테너/이해성 • 바리톤/이태영
- 피리/김지윤 • 사회/김동현(MBC 아나운서)

제40회 짜장콘서트
광복절 77주년 기념
노래여, 겨레의 노래여

일 시 | 8월 13일 토요일 오후 3:30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입장료 | 전석 2만원(사전예약, 선착순 50명)
 문 의 | 음악풍경 010-3091-1524



광복절 77주년을 맞아 남북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로 꾸며지는 제40회 짜장콘서트. 지난 2015년 과거 남북이 함께 불렀고, 지금도 애창하고 있는 500여곡의 노래를 연구·채집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이 그중에서도 선정한, 특히 역사적 의미와 음악적 완성도가 높은 100곡 중 음악풍경이 엄선한 동요, 가곡, 가요, 민요 등 다양한 노래를 들려준다.

- 소프라노/양기현, 박현진
- 테너/양승엽 • 바리톤/시영민
- 피아노/정은희

2022 Jazz on the Breeze
Kimcello 밴드 초청 공연

일 시 | 8월 18일 목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무더운 여름밤, 공연장에서 즐기는 음악 바캉스 'Kimcello 밴드 초청 공연'. tvN 인기프로그램 '너목보' 실력자로 출연한 첼리스트 김철훈을 주축으로 피아니스트 김상수, 색소피니스트 문치치, 드럼주자 김경민, 베이스리스트 안요한으로 구성된 Kimcello 밴드는 이번 무대에서 기존 재즈와 가요를 Kimcello 밴드만의 색깔로 편곡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에게 시원한 음악선물을 선사한다.

국립부산국악원 토요일명 2022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3:00(6일, 13일 공연 없음)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A석 1만원, B석 8천원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전통과 창작을 넘나드는 연주에서 판소리와 민요, 그리고 궁중무용과 민속무용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펼쳐지는 국립부산국악원 명품 레퍼토리 '토요일명' 8월 무대.

20일 프로그램
 거문고 3중주 '모든 순간'

이 꽃봉오리인 것을(이경은 작·편곡), 무아(無我)의 시간, 생활을 위한 푸리(박경호 작·편곡), 창작성악 '영남 민요 연곡'(김백찬 편곡), 기악과 무용의 콜라보 '붉은 머리 학 이야기'(정신혜 안무, 이정호 작·편곡)

27일 프로그램
 중요제례악, 판소리, 가곡, 처용무, 강상술래, 농악(웃다리농악가락)

제84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한여름밤의 을숙도

일 시 | 8월 19일 금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



한여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제84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한여름밤의 을숙도'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의 신예, 중견성악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부산성악가협회와 드림문화오케스트라의 콜라보 무대로, 박지은 지휘, 이효석 연출, 그리고 테너 허동권, 바리톤 양재원, 소프라노 오예은 등 실력파 성악가들이 대거 출연하여 우리에게 익숙한 유명 오페라 아리아와 뮤지컬 넘버, 한 국민요 등으로 한여름밤 무더위를 날려버린다.

이번 무대의 연주를 맡은 드림문화오케스트라는 드림문화오페라단 소속 오케스트라로, 클래식에서부터 오페라, 뮤지컬, 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관객들과 소통해오고 있다.

2022 을숙도 청년예술인을 위한 콘서트
시리즈 III 내일의 탱고

일 시 | 8월 24일 수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5천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



을숙도문화회관이 부산 청년예술가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청소년을 위한 콘서트 시리즈 세 번째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작곡가이자 반도네오니스트 김종완, 피아니스트 이안나, 바이올리니스트 강소연, 비올리스트 정하람으로 구성된 누에보탱고 앙상블 친친탱고가 관객들과 만난다. 친친탱고는 지난 2020년 창단 후 피아졸라의 수많은 곡을 연주하면서 탱고의 아름다움을 알리는데 힘써왔으며, 한편으로는 친친탱고만의 자작곡으로 탱고의 미래를 선도해오고 있다.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모차르트와 모짜렐라의 마술피리 이야기

일 시 | 8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



그랜드오페라단이 마련하는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클래식 음악 동화 '모차르트와 모짜렐라의 마술피리 이야기'. 모차르트의 대표적인 오페라 '마술피리'에 동화적 상상력을 더해 재탄생시킨 어린이 음악극으로, 작곡가 모차르트와 그의 마음속 친구 모짜렐라가 원작 '마술피리'의 주인공들과 어울려 함께 모험을 떠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마술피리' 원작에 실린 주옥같은 아리아와 이중창을 비롯해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뮤직', '교향곡 40번',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등 우리 귀에 익숙한 모차르트의 대표 곡들을 만나볼 수 있다.

제10회 굿모닝 콘서트 프랑스로의 초대

일 시 | 8월 26일 금요일 오전 11: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5천(블랙업커피 포함)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



공연의 여운과 커피의 향기로 두배의 기쁨을 누리는 을숙도 음악산책 '굿모닝콘서트' 8월 무대. '프랑스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첼리스트 홍승아를 중심으로 소프라노 정아영, 피아니스트 배필호로 구성된 앙상블 켄(Ensemble Gem)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미국에서 수학하고 전문 연주자로 활발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연주자 앙상블 켄은 17세기 작품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획과 연구로 음악을 주는 긍정적 영향력을 지향하는 단체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드뷔시, 라벨, 생상스 등 프랑스 작곡가의 음악을 통해 프랑스로 음악여행을 떠난다.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위대한 예술가의 추억

일 시 | 8월 30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따뜻한 커피향과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8월 무대. 애수에 찬 드보르작의 음악세계로 안내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창원국제실내악축제 예술감독, 서울비르투오지그룹 음악감독,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인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과 2006 윤이상국제콩쿠르 1위에 입상하고 현재 트리오 제이드,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 멤버로 있는 첼리스트 이정란, 그리고 이탈리아 페라다 국제콩쿠르 1위에 입상하고 앙상블 텐텐 대표, 한국페스티벌앙상블 멤버로 있는 피아니스트 송영민이 출연, 동아일보 유윤종 문화전문기자의 깊이 있는 해설로 진행된다.

O 트리오 제2회 정기연주회

일 시 | 8월 31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O 트리오 070-8018-8303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중인 피아니스트 박민선,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준, 첼리스트 김새로미로 구성된 피아노 트리오인 O 트리오의 무대. IPB(International Players of Busan) 단원으로 만나 다양한 앙상블음악을 함께 연주해 보자는 뜻을 모아 창단한 O 트리오는 지난 2021년 6월, 창단연주회를 성공적으로 가진 바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O 트리오 후원회가 결성된 후 갖는 첫 번째 연주회로, 이번 연주회를 시작으로 더욱더 청중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예정이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피아노 트리오 K.548
 아렌스키/피아노 트리오 제1번



2022 영화의전당 11시 음악회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 From Atlantic Ocean

일 시 | 8월 31일 수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지난 2012년부터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마티네 콘서트를 올해부터 관객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단장한 (재)영화의전당 11시 음악회 8월 무대. 파우풀하면서도 따뜻하고 호소력 있는 연주로 주목받고 있는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의 연주로 꾸며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From Atlantic Ocean'이라는 타이틀로 대서양 연안의 영국 작곡가의 음악을 중심으로 다양한 레퍼토리의 곡을 들려준다.

- 음악감독, 악장/박경희
- 해설/전명희

연극

코믹극 택시안에서

일 시 | 3월 1일(화)-8월 31일(수)
 수-금요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매주 월-화요일 공연없음)
 해바라기 소극장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만 13세 이상 관람)
 문 의 | 극단 바라 1600-1716



감동과 반전이 있는 로맨틱 코미디극 '택시안에서'. 운명적으로 만난 연애 초반 하영과 소희는 연애를 시작하지만 만남이 길어질 수록 서로 지쳐가고 결국 두 사람은 이별을 하게 된다. 이별의 상처로 소희는 한국을 떠날 결심을 하고 뒤늦게 후회가 밀려온 하영은 소희를 만나기 위해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타는데...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 하는 연극 '택시 안에서'는 택시 안에서 일어나는 택시기사 민수와 손님 하영의 85분간 리얼타임 연극답게 속도감 있는 전개와 코믹한 상황으로 극의 재미를 더한다.

연극 행오버

일 시 | 7월 21일(목)-9월 4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
(매주 월요일, 8/16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전석 4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조은아트플러스 1588-2757



한 작품 안에 추리, 스릴러, 코미디의 세 장르를 모두 담아낸 연극 '행오버'. 제목인 '행오버(Hangover)'는 숙취를 뜻하는 말로, 음주로 전날의 기억을 잃어버린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결혼 1주년 이벤트를 위해 부인을 호텔 506호로 납치한 남편은 이벤트의 성공을 자축하며 술을 마시고 다음날 옆방에서 깨어나게 된다. 아내의 살해 소식을 전해들은 남편은 결백을 주장하고 그의 곁에는 기억을 잃은 수상한 세 사람이 함께 있다. 살인 사건을 두고 서로를 의심하는 네 남녀의 이야기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재미를 안겨준다.

연극 러브 어게인

일 시 | 7월 21일(목)-9월 18일(일) 평일 오후 7:00,
주말·공휴일 오후 2:30, 5:00
(매주 월요일, 8/16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조은아트플러스 1588-2757



내 생애 가장 설레이는 로맨스, 연극 '러브 어게인' 디자이너 서연은 대스타가 되고 싶은 민준의 꿈을 곁에서 늘 응원한다. 하지만 7년째 공연 바람 앞잡이만 하는 민준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현실적인 사정으로 둘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다 결국 서연이 민준과 이별하고 미국으로 떠난다. 시간이 흐르고 박람회 방문차 한국에 잠시 들어온 서연은 민준과 다시 재회하게 되는데...

이번 무대에서는 빼빼, 시티폰이 유행하던 1997년부터 유튜브 방송이 대세가 된 2021년까지의 그들의 달콤한 연애사가 펼쳐진다.

2022(사)한국연극배우협회 부산광역시지회 합동공연 맥베스

일 시 | 8월 13일(토)-15일(월) 오후 4:00
영화의전당 하늘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 A석 2만원
문의 | 부산연극배우협회 010-3831-2644



(사)한국연극배우협회 부산광역시지회가 매년 마련하는 합동공연. 올해 무대에서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로,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타락하여 파멸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연극 '맥베스'를 선보인다.

- 작/셰익스피어 • 각색, 연출/유상홍
- 출연/권철, 우명희, 나종기, 양지철, 김우진, 허승연, 박정은, 문지연, 이진희, 박병철, 강경숙 외

블루맨그룹 월드투어 부산공연

일 시 | 8월 17일(수)-21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2:00, 5:00, 일요일 오후 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VIP석 13만원, R석 11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문의 | ㈜인터파크 950-6500



전 세계 3,500만명의 관객을 열광시킨 블루맨그룹 월드투어 부산공연. 14년만에 한국을 찾은 '블루맨 그룹'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푸른색으로 분장한 '블루맨' 3명이 선보이는 난버블 퍼포먼스로, 비언어극 역사상 가장 성공

한 쇼로 꼽힌다.

1980년대 후반 뉴욕에서 블루맨 캐릭터를 고안한 크리스 윙크, 맷 골드먼, 필 스탠튼에 의해 창단된 후 현재까지 세계 25개국에서 공연하고 있으며 관객들은 푸른 머리와 아티스트들과 함께 록 음악과 파티를 즐기며 음악, 코미디, 구석구석 숨겨진 놀라움을 즐길 수 있다.

영도문화예술회관 수오상설공연 onStage 프레임

일 시 | 8월 24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정열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미술사 임태홍의 상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매직콘서트 '프레임'. 신기함을 주된 소재로 활용하여 다양한 장르와의 융복합을 통해 색다른 콘텐트를 선보이고 있는 미술사 임태홍은 그동안 매직콘서트, 일루전쇼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텅 빈 공간속에서 순간이동 하듯 미술사가 등장, 몰아치듯 펼쳐지는 화려한 '환상'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스토리텔링 일루전 콘서트로, 잠시나마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관객들을 신기한 미술의 세계로 안내한다.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스타프로젝트 몰리스위나 두개의 달

일 시 | 8월 31일(수)-9월 2일(금), 9월 6일(화)-7일(수)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해운대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부산시립극단 배우들과 그들의 연기에 오롯이 주목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젝트.

8월 31일(수)-9월 2일(금) 몰리스위나
40년 간 앞을 보지 못하던 한 여인의 개안(開眼) 수술과 관련된 회고적 진

술을 37개의 독백으로 구성한 독특한 작품.

- 작/브라이언 프리엘 • 연출/강성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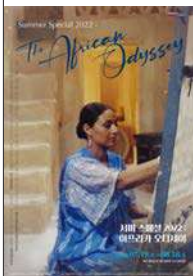
9월 6일(화)-7일(수) 두 개의 달

2016년 제2회 윤대성 희곡상 수상자인 임은재 작가의 창작극 '두 개의 달'. 특히 단원 염지선의 첫 연출작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화

(재)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서머 스페셜 2022 아프리카 오디세이

일 시 | 7월 19일(화)-8월 18일(목)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관람시간 홈페이지 확인)
 입장료 | 일반 7천원, 청소년 5천원
 조조 및 경로 우대 4천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80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를 대표하는 여름 시즌 프로그램 '시네마테크 서머 스페셜 2022'. 아프리카 감독들의 대표작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의 영화가 소개되는 이번 '아프리카 오디세이'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타계한 대표적인 아프리카계 여성 감독 무피다 틀라트리 특별전과 명작의 촬영지로 활용된 아프리카를 알아보는 '아프리카의 기억', 검은 대륙으로 불리는 아프리카 감독들 대표작을 살펴보는 '미지의 오디세이 아프리카로의 여행' 등 3가지 섹션으로 나뉘어 총 22개 작품이 상영된다.

(재)영화의전당 2022 야외상영회

일 시 | 8월 3일(수), 10일(수), 24일(수) 오후 8:0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80



수영강의 여름 바람과 함께 즐기는 영화의전당 2022 야외상영회. 매년 여름밤 부산시민들의 힐링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온 2022 야외상영회에서는 최신작품부터 고전영화, 가족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을 무료로 상영한다.

8월에는 소녀들의 우정이 만든 기적 같은 여름을 담은 애니메이션 '너의 목소리'(3일)에 이어 표류한 무인도에서 동물들과 우정을 쌓으며 무인도 생활을 적응해나가는 로빈스 크루소의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 '로빈스 크루소'(10일), 그리고 24일에는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을 거머쥔 화제작인 뮤지컬 드라마 '코다' 등 휴가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화제작을 만날 수 있다.

행사

2022년 부산문화재단 BS ARTE 아카데미 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 연수

일 시 | 7월 25일(월)-29일(금), 8월 8일(월)-11일(목), 10월 13일(목), 26일(수), 11월 29일(토) **감만창의문화촌**
 문 의 | (재)부산문화재단 745-7285



부산문화재단이 마련하는 부산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 프로그램인 '2022년 BS ARTE 아카데미'. 예술가, 기획자, 매개자, 문화예술교육강사, 교육행정가 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부산다움'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를 배출하는 한편 현장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연수과정을 해마다 진행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예비, 기초, 심화, 전문가, 통합과정으로 나뉘며, 심화 및 전문가과정은 8월 3일까지 부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플랫폼(bsarte.bscf.or.kr)을 통해 신청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8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00, 18일(목) 오전 11:00 **시네바움**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1일(월) 오후 7:00 선상반란의 진실:허만 멜빌의 소설, 베니토 세레노 선장과 영화, 아미스타드(Amistad)
 • 강사/홍옥숙(한국해양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8일(월) 오후 7:00 김종철과 이시무레 미치코
 • 강사/전성욱(동아대학교 기초교양대 교수)



18일(목) 오전 11:00 낭독과 낭송 그리고 토크. 우물 속에서 뜨는 달(나열시집 2020)
 22일(월) 오후 7:00 과정시학—시인과 독자를 위한 시론 공부
 • 강사/구모룡(한국해양대 동아시아학과 교수)

29일(월) 오후 7:00 명 타고 북 타고 재수왕기 타고—동해안 별신굿
 • 강사/심상교(부산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8월 오페라바움 영상감상회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오후 1:00 **오페라바움**
 입장료 | 전석 1만원(중급반 이상 1만5천원)
 문 의 | 오페라바움 722-9597

오페라 전문 음악감상실인 오페라바움이 마련하는 8월 영상감상회. 매주 월요일에는 교향곡, 협주곡 콘서트 실황을, 매주 금요일에는 '오페라 인기작 시리즈'를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5일(금) 베르디 '리골레토'
 12일(금) 베르디 '맥베스'
 19일(금) 구노 '파우스트'
 26일(금) 마스네 '베르테르'



예필의 종합대중예술 렉처콘서트 월드뮤직, 미술과 영화와 詩를 만나다 레게 & 안데스음악 편

일 시 | 8월 13일 토요일 오후 4:00 **영광동서 8층 문화홀1관**
 입장료 | 초대(예약순 마감)
 문 의 | 예필 최정욱 010-3853-6634



2022년 미술, 음악, 영화 3분야 동시 예술인으로 등재된 예필 작가와 함께 떠나는 자메이카, 페루 예술 여행
프로그램
 레게영화/밥 말리 Bob Marley, 2007, 안소니 월 감독
 레게&안데스음악/One Love - 밥 말리, El Condor Pasa (콘도르는 날아가고)-우 나 라모스, 포함 12곡
 자메이카&페루 미술/India Quchua 케추아족 인디언, 1935, 호세 사보갈, 포함 6점
 페루의 詩/Los Heraldos Negros 검은 사자(使者)들, 세자르 바예호

김옥균의 클래식음악아카데미 클래식음악 영상해설감상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1:00
영광도서 8층 문화홀 1관
입장료 | 1개월 5만원
문의 | 영광도서 070-4020-2540
김옥균 010-6367-0149



MBC 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이자 현재 클래식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음악 영상해설 감상회'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특강'과 함께 국내외 최신 클래식음악의 해외연주화실황을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비발디 '바스협주곡 마단조', 베토벤 '영웅 교향곡',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3번, 드뷔시 '달빛', 바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3번', 린스키 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

포레 '시실리아', 비제 '카르멘 환상곡',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제3번',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5번'
특집 '엔리코 모리코네 영화음악, 슈베르트 '미완성 교향곡'

제178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콘서트 여행, 편지 주제 詩 낭송회

일 시 | 8월 20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9층 문화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알바트로스 시낭송문학회 회장
010-6367-0149

- 출연/김승희 시인 외 초대시인

영도에서 떠나는 유럽예술여행 III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영국 런던 예술여행

일 시 | 8월 20일(토)-9월 24일(토) 오전 10:00
영도문화예술회관 동백홀
입장료 | 무료(사전예약 필수)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4



유럽을 대표하는 도시와 박물관을 찾아 역사와 예술가들의 삶과 철학을 살펴보는 '영도에서 떠나는 유럽예술여행'.

유럽 4개국을 각 나라별로 해설이 있는 예술강좌와 럭셔리 콘서트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바티칸 박물관 해설가 1,000회 이상 해설을 맡았으며, 현재는 음악과 미술, 유럽문화를 융합한 인문학 강사로 활동 중인 김성민이 해설을 맡아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로 예술여행을 떠난다.

8월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찾아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20일)과 빈센트 반 고흐 미술관(27일)을 돌아본다.

전시

고은사진미술관 부산 프로젝트 박종우展 부산 이바구

일 시 | 4월 30일(토)-8월 21일(일)
고은사진미술관
문의 |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광복절기념 청포 김화태 무궁화 그림전

일 시 | 8월 5일(금)-8월 31일(수)
타워아트갤러리
문의 |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영도문화예술회관 2022 지역작가 초대전시 김경순 '자연의 소나타'

일 시 | 8월 8일(월)-8월 30일(화)
영도문화예술회관 선유갤러리
입장료 | 무료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영도문화예술회관 선유 Exhibition 시리즈 여섯 번째로 마련하는 지역작가 초대전 '자연의 소나타'. 대한민국 회화대전 특선 등 수차례 입상하며 5차례 개인전 및 부산미술제 등에 참가해온 김경순 작가를 초대, 자연과 함께 삶의 흔적을 화폭에 담은 작가의 작품을 소개한다.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6:00(주말·공휴일 휴관)

김희원 초대개인전 Landscape

일 시 | 8월 10일(수)-8월 30일(화) 갤러리한스
문의 | 갤러리한스 784-0233



동양적 감수성 모색의 연장으로, 옛 그림의 아름다움과 미의식을 새롭게 해석, 재구성하는 작업을 가져오고 있는 김희원 초대개인전 'Landscape'.

이번에 소개되는 작품은 자연의 풍경을 나타낸 듯 하나 구체적인 형상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모티브를 동반한 추상에 가까우며, 형상의 단순화로 미니멀적 또는 추상표현주의적 이미지로, 재현하려는 화면이 아닌 또 다른 자연 회화세계를 반영하고 있다.



리처드 윌트컴

오상준 지음 / 호밀밭 / 222p
1만 5천 800원

6·25전쟁 후 전쟁의 참상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부산은 유엔군 부산 군수기지사령관인 리처드 윌트컴 장군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 국제신문 오상준 편집국장이 윌트컴 장군에 대한 기억을 복원하고자, 장군이 보여준 빛나는 선행과 희망의 흔적을 모은 최초의 단행본을 냈다. 1953년 11월, 부산역전 대화재로 6000세대 3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재민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을 때 장군은 텐트 의류 침구류 식량 등 군수물자를 긴급하게 지원했다. 이 일로 장군은 군수물자를 함부로 지원했다는 이유로 군법 회의에 회부되고, 미국 의회 청문회까지 불러갔다. 청문회에서 장군은 “전쟁은 총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나라 국민을 위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미국 의회를 설득했다.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장군은 많은 구호금까지 받아 부산으로 돌아왔다. 그 외에도 장군이 부산을 위해 한 일이 많다. 이 책은 윌트컴 장군이 부산에 베풀었던 구체적인 선행, 부인 한묘숙 여사와의 러브스토리, 여러 전문가의 칼럼으로 보는 리처드 윌트컴 등의 6부로 구성돼 있다. 그 당시에 윌트컴 장군이 부산에 있었다는 것이 큰 행운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불꽃으로 살다

케이트 브라이언 지음, 김성한 옮김
디자인하우스 / 308p / 1만 8천 500원

뛰어난 재능이 있었지만,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진 예술가 30인의 삶과 작품 세계에 대한 책. 책 속 예술가는 각기 다른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놀라운 작품을 창작한 인물들이다. 이 예술가들은 대부분 20대 또는 30대에 생을 마감했다. 그들이 머물렀던 물리적 시간이 짧았기에 그 삶의 불꽃은 더 강렬한 빛으로 남았다. 16세기 라파엘로부터 근대 미술사에서 위대한 화가로 꼽히는 고흐와 모딜리아니, 자화상 분야에서 새 영역을 개척한 에곤 실레와 파울라 모더슨 베키, 현대 미술의 아이콘으로 손꼽히는 오브리 비어즐리, 2017년 사망한 카디자 사예에 이르기까지 500여 년 미술사를 아우른다. 익숙하게 들은 이름도 있고, 좀 생소한 이름도 보인다. 저자 케이트 브라이언은 영국의 미술사학자이자 큐레이터이며 미술 전문 방송 진행자, 작가이다. 세계적인 전시기획자이자 소호하우스 앤 컴퍼니의 컬렉션 총괄 책임자이기도 하다. 저자는 서문에서 “고흐의 작품 활동 기간은 10년 정도고, 모딜리아니는 그림을 그린 기간이 고작 6년밖에 안 되며, 아나 멘디에타와 장 미셸 바스키아는 경력이 각각 7년과 11년 정도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



소소하게, 큐레이터

남애리 지음 / 일하는 사람 / 240p
1만 1천 500원

‘큐레이터’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관람객들과 전시품 사이를 걸어 다니는 우아한 직업인이 아님을 말해주는 책. 작은 박물관 큐레이터로 일한 지 10여 년이 된 저자가 우리가 짐작해 온 큐레이터와 전혀 다른 세계를 생생하게 들려준다. 하나의 ‘전시’가 개막되기까지, 전시가 끝나고 본래의 ‘화이트 큐브’로 돌아오기까지 그곳에서는 평범한 예상을 넘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전시의 성격에 따라 망치질과 드릴이 작동하는 공사판 같은 준비과정을 지나, 다양한 연령대의 별의별 관람객들이 찾아오는 그곳에서 큐레이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들려준다. 생애 처음으로 그림 전시를 보러 온 듯한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성을 어차피 제대로 보지도 않고 나갈 거란 생각에 기계적으로 맞아줬다가 그가 자신이 좋아하는 학생광의 작품을 보며 자신과 똑같은 감흥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고 큐레이터로서 부끄러움과 함께 전시의 힘을 깨달았다는 솔직한 고백도 털어놓았다. 전시회 제목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작품 속 철학적 사유에 중점을 두면 제목이 어렵게 느껴지고, 작품의 스타일에 집중하면 자극적인 제목이 떠올라 고민하는 문제 등 큐레이터의 고민도 흥미롭다.

2022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 개최

공개모집을 통한 지역예술가 발굴
7월 초청작 선정공모, 10월 11일부터 한달간 개최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이정필)은 부산의 대표적인 공연극장으로서 침체된 지역 공연예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0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22 부산공연 콘텐츠페스타'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 공연예술계의 창·제작 역량을 강화하여 부산지역의 예술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부산 출신 예술가의 공연예술작품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신진예술가에 집중되어왔지만, 이번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는 중견예술인까지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 자격요건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지역예술 세대간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콘텐츠를 확보하여 앞으로 부산의 대표 축제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2022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는 연극, 무용, 음악, 다원, 뮤지컬 등 공연예술작품 전 장르를 대상으로 열린 공모를 통해 진행된다. 거주지가 부산인 예술가로 구성된 공연예술단체 및 프로젝트팀은 물론 타 지역에서 활동 중이지만 부산지역 대학출신인 예술가들이 참여

할 수 있어, 부산을 빛낸 국내외 활동 예술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풍성한 축제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술가들은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작품 제작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완성된 작품들은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날 수 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위해 구성된 부산지역 최고 전문가 7인의 '축제 운영위원회'가 지역의 소리를 충실히 담아 내실있는 축제 운영을 펼친다. '축제 운영위원회'에는 (재)부산문화회관 이정필 대표이사가 직접 운영위원장으로 맡고, (사)부산예총 오수연 회장, (사)부산민예총 김평수 이사장, (재)부산문화재단 김두진 예술진흥본부장, (사)부산국제연극제 고인범 집행위원장, (사)부산국제무용제 신은주 운영위원장, (재)부산문화회관 윤두현 문화사업본부장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가 부산의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재)부산문화회관 이정필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취소 및 연기되었던 공연들이 기지개를 펴며 물 밀릴 듯 밀려오는 터라 공연장 대관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부산의 대표적인 공공극장의 만행으로 지켜만 볼 수 없었다"며 "지역예술인들이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축제의 의미를 밝혔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이 제작극장으로의 기능 확대와 기반 마련을 위하여 시행하는 신규사업이니 만큼 제작 극장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제작비뿐만 아니라 대관, 무대전문인력, 홍보마케팅까지 지원함으로써 참여 예술가가 최대한 작품 제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8월 찾아가는 예술단

평소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 맞춤형공연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이 8월에도 다양한 곳을 찾아 시민들과 만난다.

일정

- 8월 3일(수) 오후 2:00 부산시립미술관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8월 10일(수) 오후 2:00 부산시립미술관_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8월 17일(수) 오후 2:00 부산시립미술관_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8월 19일(금) 오후 2:00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8월 24일(수) 오후 2:00 부산시립미술관_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8월 31일(수) 오후 1:00 동래구장애인복지관_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8월 31일(수) 오후 2:00 부산시립미술관_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재)부산문화회관, 부산동구문화원과 업무협약 체결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이정필)이 부산동구문화원(원장 박주석)과 지역문화예술 증진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부산동구문화원은 부산의 원도심 동구의 문화발전과 향토사를 발굴, 계승하는 문화예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 내 아동·청소년을 위한 ‘꿈의 오케스트라 부산’을 운영하는 등 지역문화발전과 예술봉사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 이에 (재)부산문화회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동구에 위치한 부산시민회관에서 ‘꿈의 오케스트라 부산’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꿈의 오케스트라 부산’은 한국형 ‘엘 시스템’로 소외계층의 아동·청소년을 최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상호학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음악교육 프로그램으로, 음악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부산 동구의 유일한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문화예술기관으로써 음악교육으로 성장하는 아동·청소년들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나아가 문화예술이 지역민들의 활기찬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2022 부산버스킹페스타-B.B.B 밴드기린 대상 수상



(재)부산문화회관이 주최한 ‘2022 부산버스킹페스타-B.B.B’ 최종 결선에서 ‘밴드기린’이 대상을 차지했다.

(재)부산문화회관이 지역 청년예술인 발굴과 부산 대중음악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한 ‘2022 부산버스킹페스타-B.B.B’는 지난 5월, 지역청년 예술가들을 공개 모집한 후 1차 서류심사와 부산 도심에서 진행된 2차 실연심사를 거쳐 지난 7월 2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최종 결선무대를 가졌다. 특히 이번 공개모집에서는 자라섬재즈페스티벌, 부산국제록페스티벌, Mnet슈퍼스타K 등 굵직한 활동을 이어온 실력과 뮤지션 총 127팀이 참여하여 열띤 호응을 보였으며, 최종 11개 팀이 결선무대에 진출하여 우승을 가렸다. 이날 결선 무대에서는 대상 수상팀인 밴드기린 외에도 ‘아코프로젝트’가 최우수상을, ‘서울부인’이 우수상, ‘이창협’이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이 외에도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인기상은 ‘밴드 프롬어스’에게 돌아갔다.

이번 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은 에브리싱글데이 문성남 음악감독은 “대중성과 음악성을 겸비한 연주력 있는 팀을 기준으로, 다양한 장르의 팀이 참여하여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며 “몇몇 팀은 드라마 OST나 BGM 작업에도 바로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도와 대중성 그리고 음악성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였다”고 밝혔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후원사업
중정 야외 휴게공간
준공**

부산문화회관에 관객과 시민들을 위한 야외 휴게공간이 마련됐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의 후원사업으로 마련된 이번 야외 휴게공간은 총 6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하 1층 중정에 조성됐다.

지난 6월 24일에는 휴게공간 준공을 알리는 준공식을 개최,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변원탄 회장을 비롯한 후원회원 및 기관 인사, (재)부산문화회관 이정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및 부산시립예술단 단원 등이 참석하여 테이프 커팅식을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오중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사물놀이팀의 특별공연으로 기부 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앞장서온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변원탄 후원회장은 “이번 야외 휴게공간 조성이 (재)부산문화회관 및 시립예술단 임직원의 복지 증진과 더불어 시민들의 편의 공간 확충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8년 1월 창립총회를 통해 정식 발족한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회장 변원탄)는 매년 지속적인 후원사업을 통해 부산 문화예술 발전에 힘써 오고 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중극장,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내 LED 디스플레이 및 빔 프로젝터를 설치하는 등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이 품격 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오고 있다.



**셔틀버스
운행 시간 안내**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공연관람을 위해 부산문화회관을 찾는 관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 셔틀버스 타는 곳** 지하철 2호선 대연역 5번 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 100M
- 운행시간** 오후 6:30 셔틀버스 타는 곳 출발 ▶ 문화회관 정문 하차
오후 7:00 셔틀버스 타는 곳 출발 ▶ 문화회관 주차장 입구 하차

※ 모든 공연 시작 '1시간 전, 30분 전' 2회 운행(단, 낮공연, 주말제외)
(위 운행시간은 오후 7:30 공연 기준이며, 저녁공연 시작시간에 따라 운행시간 변경)
▶ 오후 8:00 공연일 경우 오후 7:00, 7:30 운행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BSCC
PROGRAM**

2022.8-12월
August-December

(재)부산문화회관 2022 4분기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요절복통 뮤지컬로 읽는 세계 명작

<아기돼지 삼형제>

문화 | 사랑채 2022.7.2.(토)-8.28.(일)
평일 11:00am / 주말 11:00am, 2:00pm
전석 20,000원
※만 2세 이상 관람



뮤지컬로 탄생한 세계가 사랑하는 화가의 이야기

<빈센트 반 고흐>

문화 | 중극장 2022.7.8.(금)-9.(토)
금 7:30pm / 토 2:00pm 6:00pm
R 60,000원 S 40,000원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II

임지영 & 홍민수 듀오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2. 7. 22.(금) 7:3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한국 실내악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현악사중주단
노부스 콰르텟 <오직 베토벤>

문화 | 중극장 2022.8.19.(금) 7:30pm
R 50,000원 S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우리 아이 첫 클래식 콘서트

<핑크퐁 클래식 나라- 뭉뚱을 찾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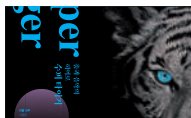
문화 | 대극장 2022.8.20.(토) 5:00pm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36개월 이상 관람



평범한 청년들의 범상치 않은 이야기!

<수퍼 타이거(Super Tiger)>

문화 | 대극장 2022. 8. 26.(금)-27.(토)
금 8:00Ppm / 토 5:00pm
R 30,000원 S 2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레이첼 & 선우예권 듀오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2. 9. 3.(토) 5:00pm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세계 3대 국제콩쿠르 우승자들의 첼로 협연
**<2022 퀸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위너스 콘서트 in 부산>**

문화 | 대극장 2022.9.14.(수) 7:3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환경을 이야기하는 마법 같은 퍼포먼스

<에코백>

문화 | 사랑채 2022.9.15.(목)-10.9.(일)
평일 11:00am / 주말 11:00am, 2:00pm
전석 20,000원
※만 4세 이상 관람



세계적 마에스트로가 선사하는 음악 선물

<마에스트로 정명훈 실내악 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2.9.21.(수) 7:30pm
V 120,000원 R 100,000원 S 80,000원 A 6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믿고 보는 배우들이 연기하는 역사 속 보통사람들

<그때도 오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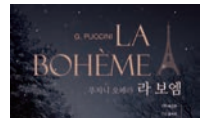
문화 | 중극장 2022. 9. 23.(금)-24.(토)
금 7:30pm /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만 13세 이상 관람



시린 현실에 수놓이는 영원한 청춘의 낭만

오페라 <라 보엠>

문화 | 대극장 2022.10.1.(토)-2.(일) 3:00pm
V 100,000원 R 80,000원 S 60,000원 A 40,000원
※ 티켓 추후 오픈



인생을 예술로 승화시킨 두 거장

<피아졸라, 루이 암스트롱을 만나다>

문화 | 중극장 2022.10.26.(수) 7:30pm
R 50,000원 S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부산 청년예술가들과 함께 전하는 희망의 노래

<부산오페라갈라콘서트>

문화 | 대극장 2022.11.3.(목)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티켓 추후 오픈



이 아기는 누구의 아이인가
한국 대표 연출가 고선웅의 중국 고전!

<회란기>

문화 | 중극장 2022. 11. 4.(금)-5.(토)
금 7:30pm /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만 13세 이상 관람



시청각장애인과 함께 즐기는 배리어프리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문화 | 대극장 2022.11.9.(수) 7:30pm
※ 티켓 추후 오픈



해피 바이러스 대니의 음악에 누구나 커넥트되다
대니 구 바이올린 리사이틀 <커넥티드>

문화 | 대극장 2022.11.20.(일) 5: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바이올린 대니 구 | 피아노 원재연 ※만 7세 이상 관람



박근형 연출의 히트작
경숙이 父女の 옆치락뒤치락 가족사!
<경숙이, 경숙아버지>

문화 | 중극장 2022. 11. 25.(금)-26.(토)
금 7:30pm / 토 3:00pm
전석 20,000원 ※만 15세 이상 관람



겨울을 알리는 O.S.T의 향연
**시네마 필름 콘서트
<러브레터&생정과 열정 사이>**

문화 | 대극장 2022.12.3.(토) 5:00pm
R 6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슈퍼스타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과
젊은 거장들이 선보이는 화려한 무대
사라 장&비르투오지

문화 | 대극장 2022. 12. 18.(일) 5:00pm
V 130,000원 R 110,000원 S 90,000원 A 7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세계를 누비는 컨템포러리 국악밴드

<블랙스트링 콘서트>

시민 | 소극장 2022.10.14.(금) 7:30pm
R 30,000원 S 2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내일의 우주로 떠나는 환상적 모험!

<갤럭시 일루전 쇼>

시민 | 소극장 2022.10.22.(토) 5:00pm
전석 2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왕의 말을 기록하는 승정원에서 벌어지는 사건!

<후설>

시민 | 소극장 2022. 10. 29.(토) 3:00pm
전석 20,000원 ※만 13세 이상 관람



특유의 감성으로 매료되는 '스탠딩에그'
번뜩이는 위트로 사랑받는 믿음의 밴드 '소란'

<스탠딩에그&소란 콘서트>

시민 | 대극장 2022.12.17.(토) 6:00pm
R 90,000원 S 70,000원 A 5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이금이 작가 동명소설 원작
윤택하게 상처를 치유하는 두 명의 유진

<유진과 유진>

시민 | 소극장 2022. 12. 30.(금)-31.(토)
금 7:30pm / 토 2:00pm, 7:00pm
R 50,000원 S 40,000원 ※만 9세 이상 관람



당신을 웃게 하는 또 다른 감동, 스크린으로 만나다

BSCC 배시시 명품극장

시민 | 소극장 2022.8.31.(수)-12.28.(수)
매주 수요일 7:00pm
전석 무료



부산시민회관

지금, 여기에 다시 살아난 수궁가

국립창극단 <귀토>

시민 | 대극장 2022.8.12.(금)-13.(토)
금 7:30pm /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동화로 함께 보는 가족발레

<거인의 정원>

시민 | 대극장 2022.9.29.(목)-10.1.(토)
목, 금 10:00am / 토 3:00pm
전석 20,000원 ※만 3세 이상 관람



페스티벌

부산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

시민뜨락축제

시민 | 야외무대 9. 23.(금)-10. 14.(금)
매주 금요일 12:20pm
무료



부산 지역 예술가! 부산 지역 예술가에 의한!
부산 지역 예술가를 위한!

2022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

문화 | 대극장 2022.10.11.(화)-11.18.(금)
시민 | 대·소극장
※ 티켓 가격 및 세부일정 추후오픈



부산시립예술단 2022 하반기 프로그램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 **해운대** 해운대문화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88회 정기연주회

여정

문화 | 대극장 2022. 6. 17.(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김광현 | 작곡 노재봉
피아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



제589회 정기연주회

프라하 중앙역

문화 | 대극장 2022. 7. 15.(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김선욱 | 소프라노 한재민



기획연주회

실내악공장 2

문화 | 챔버홀 2022. 8. 12.(금) 7:30pm
전석 10,000원



제590회 정기연주회

물결(2022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IV)

문화 | 대극장 2022. 9. 2.(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아드리앙 페뤼송 | 소프라노 이명주



기획연주회

미완성음악회 5

문화 | 대극장 2022. 9. 22.(목) 7:30pm
전석 5,000원



제591회 정기연주회

정점

문화 | 대극장 2022. 9. 23.(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피아노 문지영



기획연주회

미완성음악회 6

문화 | 대극장 2022. 10. 6.(목) 7:30pm
전석 5,000원



제592회 정기연주회

스위스 시계장인

문화 | 대극장 2022. 10. 7.(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신창용



기획연주회

제78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문화 | 중극장 2022. 10. 13.(목) 7:30pm
전석 2,000원



기획연주회

미완성음악회 7

문화 | 대극장 2022. 11. 1.(화) 7:30pm
전석 5,000원



제593회 정기연주회

회갑(回甲)

문화 | 대극장 2022. 11. 2.(수)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바이올린 양인모 | 오르간 신동일



기획연주회

심야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2. 11. 17.(목) 9:00pm
전석 5,000원



제594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차이콥스키

문화 | 대극장 2022. 12. 2.(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윤한결 | 바이올린 임재홍



기획연주회

미완성음악회 8

문화 | 중극장 2022. 12. 22.(목) 7:30pm
전석 5,000원



제595회 정기연주회

동반자

문화 | 중극장 2022. 12. 23.(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지휘 최수열 | 소프라노 황수미 | 호른 이석준



부산시립합창단

제185회 정기연주회

어린이뮤지컬 <옛날 옛적에>

문화 | 대극장 2022. 5. 4.(수) 7:30pm
5. 5.(목) 10:30am
R 20,000원 S 10,000원
지휘 이기선 | 연출 박정우 | 작곡·연주 이진실2310밴드



창단 50주년 기념 및 제186회 정기연주회
칼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문화 | 대극장 2022. 6. 23.(목)·24.(금)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지휘 이기선 | 연출 김지용 | 안무 박근태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 무용 더파크댄스
합창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2022 Summer Fantasy
'시간(時間)II'

문화 | 대극장 2022. 7. 21.(목) 7:30pm
전석 10,000원
지휘 임희준 | 연주 이삼열 밴드 외



특별연주회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취소]

문화 | 대극장 2022. 8. 17.(수) 7:30pm
전석 10,000원
객원 지휘 T. J. Harper



특별연주회

신진지휘자 초청연주회

문화 | 중극장 2022. 9. 15.(목) 7:30pm
전석 10,000원
지휘 임희준, 김진영



창단 50주년 기념 및 제187회 정기연주회

4인 4색 합창축제

문화 | 대극장 2022. 10. 28.(금) 7:30pm
전석 10,000원
지휘 김광일, 김강규, 전상철, 이기선



특별연주회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3회 부산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2. 11. 8.(화)·10.(목) 6:00pm
무료
연합지휘 이기선



창단 50주년 기념 및 제188회 정기연주회

하이든 <천지창조>

문화 | 대극장 2022. 12. 8.(목) 7:30pm
R 20,000원 S 10,000원 A 5,000원
지휘 이기선 | 연주 United Korea Orchestra
출연 김순영, 황병남, 이광근, 문동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16회 정기연주회

부산국악칸타타 '일향악세계기'

문화 | 대극장 2022. 7. 8.(금) 7:30pm
R 10,000원 S 5,000원



특별연주회

남량특집 '미스터리 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2. 7. 27.(수) 7:30pm
R 10,000원 S 5,000원
지휘 김중욱 | 작·편곡 박한규, 이경은



특별연주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with 아창제

문화 | 대극장 2022. 8. 19.(금) 7:30pm
R 10,000원 S 5,000원
지휘 김중욱 | 사화 윤종강



제217회 정기연주회

전통음악의 밤 향연

문화 | 중극장 2022. 9. 20.(화) 7:30pm
R 10,000원 S 5,000원



제218회 정기연주회

국악관현악 시즌 III

문화 | 중극장 2022. 10. 7.(금) 7:30pm
R 10,000원 S 5,000원



특별연주회

River Dance 프로젝트

문화 | 대극장 2022. 12. 1.(목) 7:30pm
R 10,000원 S 5,000원
지휘 김중욱 | 연출안무 이정윤
작곡 이경은 | 무용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무용단

Dancers and Masterpiece

별이 빛나는 <이정윤의 댄스살롱>

문화 | 중극장 2022. 7. 22.(금)·23.(토)
평일 8:00pm, 주말 5:00pm
안무 이정윤



제86회 정기공연

춤, 본색II

문화 | 대극장 2022. 10. 21.(금)·23.(토)
평일 8:00pm, 주말 4:00pm, 8:00pm
R 30,000원 S 20,000원
안무 이정윤



특별공연

안무가 LAB

문화 | 중극장 2022. 12. 2.(금)-3.(토)
평일 8:00pm, 주말 5:00pm



부산시립극단

제72회 정기공연

권력의시작-HAMLETique

문화 | 중극장 2022. 7. 15.(금)-17.(일)
평일 7:30pm, 주말 5:0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원작 윌리엄 셰익스피어 | 재구성 연출 강태욱



특별공연

스타프로젝트 1 '올리 스위니'

해운대문화회관 2022. 8. 31.(수)-9. 2.(금) 7:30pm
전석 20,000원
원작 브라이언 프리엘 | 객원연출 강성우
출연 이혁우, 오희경, 채민수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소년 B가 사는 집

시인 | 소극장 2022. 9. 20.(화)-24.(토)
평일 10:30am, 14:00pm(단체관람 공연), 토 5:00pm
전석 20,000원
원작 이보람 | 객원연출 최용혁



특별공연

스타프로젝트 2 '두 개의 달'

해운대문화회관 2022. 9. 6.(화)-7.(수) 7:30pm
전석 20,000원
원작 임은재 | 연출 염지선
출연 김은오, 서보기, 이태성



제73회 정기공연

장막희곡 당선작

문화 | 대극장 2022. 11. 25.(금)-26.(토)
평일 7:30pm, 주말 5:0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연출 김지용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With

문화 | 챔버홀 2022. 7. 30.(토) 5:00pm
무료



제68회 정기연주회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의 말러

문화 | 대극장 2022. 9. 6.(화) 7:30pm
전석 5,000원
지휘 이명근



특별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2. 10. 25.(화) 7:30pm
전석 2,000원



특별연주회

유망주음악회 -The Solist

문화 | 챔버홀 2022. 11. 5.(토) 5:00pm
무료



제69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2. 12. 6.(화) 7:30pm
전석 2,000원
지휘 이명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62회 정기연주회

PEACE [취소]

문화 | 대극장 2022. 9. 17.(토) 5:00pm



특별연주회

제34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2. 11. 4.(금)-5.(토)



제163회 정기연주회

크리스마스 선물

문화 | 대극장 2022. 12. 10.(토)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공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넷 회장

부회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임현경 신주레약국
임현숙 (사)아름다운 사람들 이사장

사무처장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이사회원

강대일 웰딩시스템
강서룡 호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충석 국제로타리3661 부산지구 총재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일반회원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문민우
박성복
박성환 대동병원 이사장
박혜빈 세종기획 이사
박흥근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성원기 삼강종합건설(주)
양은진 세무법인 인성
이경철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상수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이수민 굿엔프랜드주식회사
이에리카정애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현숙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임은자
정민섭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의화 (전)국회의장
조성락 속편한내과 원장
조중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하정태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후원회 전용 룸 이용



대극장 좌석 네이밍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회원패 증정



무료 주차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단위 : 만 원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 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팀(051-607-6123)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회원가입

가입신청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116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공통혜택

- 가입 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송(10일 이내)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
- 선예매 서비스 제공(일부 공연 제외)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대극장 3층/회원카드 제시 시/음료 등 제공)
- 부산시내 외부 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측 협의에 한함)



VIP

- 연 회 비** : 10만원
초 대 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초대권 4매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 지정된 좌석에 따라 선착순 마감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지정된 기획공연 안내 : 홈페이지 및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게재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SPECIAL

- 연 회 비** : 5만원
초 대 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MEMBER

극단, 무용단,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부산시립예술단

- 연 회 비** : 3만원
초 대 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가입단체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중 가입 단체 초대권 2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중 가입 단체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재)부산문화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선예매 서비스 제공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정기(유료)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예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 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유료회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116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회원가입 취소 시(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입장권 구입 시 불가)

부산문화회관 법인 가족과 나누는
특별한 시간, 더 큰 문화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

- 01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 복 교환권으로 유료 판매하는 공연 프로그램 복을 교환해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즐기세요.
 ※ 선예매 서비스 제공
- 02 멤버십 전용 카드 및 이벤트 제공**
 회원카드에 기업 로고를 표기해드립니다. 법인회원 멤버십을 위한 회원 전용 초청 이벤트로 예상치 못한 초대와 즐거움까지 함께 누리보세요.
- 03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발급 카드)	500만 원(50매)	300만 원(30매)	100만 원(10매)
공통혜택			
회원카드 기업 로고 표기 공연 및 전시할인(20~50%)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발송 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회원카드제시 시) 회원 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 문화회관 주차장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제휴업체 할인(업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등급별 추가 혜택			
기획공연 유료 프로그램 복 교환권	90매	60매	30매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6개월	3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광고	2회	1회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6개월	3개월	1개월
회관 공식 SNS 홍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토리, 블로그)	6개월	3개월	1개월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개발팀(051-607-6114~7, www.bscc.or.kr)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22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고객개발팀(051-607-6116)

국립창극단 <귀토>

8월 12일(금) 오후 7:30, 13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20매)

한국 실내악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현악사중주단 노부스 콰르텟 <오직 베토벤>

8월 19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R석 20매)

우리 아이 첫 클래식 콘서트

핑크퐁 클래식 나라-뚜뚜를 찾아라

8월 20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20매)

수퍼 타이거(Super Tiger)

8월 26일(금) 오후 8:00, 27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20매)

2022 퀸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위너스 콘서트 in 부산

9월 14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20매)

VIP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믿고 보는 배우들이 연기하는
역사 속 보통사람들 <그때도 오늘>**
9월 23일(금) 오후 7:30, 24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R석 20매)

동화로 함께 보는 가족발레 <거인의 정원>
9월 29일(목)-30일(금) 오전 10:00, 10월 1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10월 1일 공연에 한해 R석 20매)

블랙스트링 콘서트
10월 14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R석 20매)

피아졸라, 루이 암스트롱을 만나다
10월 26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R석 40매)

연극 <후설>
10월 29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연극 <회란가>
11월 4일(금) 오후 7:30, 5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R석 20매)

**대니 구 바이올린 리사이틀
<커넥티드>**
11월 20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20매)

연극 <경숙이, 경숙아버지>
11월 25일(금) 오후 7:30, 26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20매)

**시네마 필름 콘서트
<러브레터&냉정과 열정 사이>**
12월 3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20매)

스탠딩에그&소란 콘서트
12월 17일(토) 오후 6: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R석 20매)

사라 장&비르투오지
12월 18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20매)

뮤지컬 <유진과 유진>
12월 30일(금) 오후 7:30, 31일(토) 오후 2:00, 7: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R석 10매)

2022년 제33회 부산합창제 참가단체 모집



창단 50주년을 맞이하여, 부산시립합창단에서는
2022년 제33회 부산합창제에 참가할 부산지역내의 합창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및 전형내용

행사명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3회 부산합창제>
모집부문	부산지역을 연고로 한 20인 이상 합창단(혼성-일반, 시니어/남성/여성)
비고	참가신청서 및 악보제출, 연습실황 or 공연 동영상 제출 ※ 참가단체는 합창제 양일 간 총 30팀(1일 15팀)이내로 제한 - 신청단체 中 소정심사를 거쳐 참가팀 결정 (모집부문별 신청수를 비례 조정함) ※ 합창제 양일 간 동일 지휘자의 출연은 1회로 제한 ※ 영상은 심사를 대비해 최근 3년 이내 연주한 동영상(4분 이내) 제출

행사일정

합창제	2022년 10월 26일(수)~2022년 10월 27일(목) 18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연합합창	2022년 10월 28일(금)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각 합창단의 지휘자 또는 대표자 등 2인 이내 연합합창 참석 요망

적격단체 발표 및 예비모임 일정

공고기간	2022년 7월 18일(월)~9월 7일(수)
적격단체 발표	2022년 9월 22일(목) 17:00(예정),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예비모임	2022년 9월 27일(화) 14:00(예정), 부산시립합창단 연습실

신청서 접수방법

접수기간	2022년 7월 25일(월)~2022년 9월 7일(수) 18:00까지
구비서류	신청서 1부, 합창단 프로필 및 연혁(6줄 기준), 악보, 지휘자, 합창단, 반주자, 단장 사진 각 1장, 연습실황 or 공연 동영상 1개 (사진, 악보는 jpg 및 pdf, 동영상은 mp4 형식으로 제출) ※ 구비서류 누락 시, 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접수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 - 전자우편(bschorus3132@bscc.or.kr)만 접수가능
메일명	[단체명] 신청일로 접수 요망 / 예) [부산시립합창단] 10월 26일

접수 및 문의사항

부산시립합창단 담당자 ☎ 051)607-3132

※ 주최측 사정에 따라 공연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21세기형 두 아티스트의 만남

Violin Ray Chen

Piano Yekwon Sunwoo

PROGRAM

에드바르트 그리그 바이올린 소나타 2번 G장조, OP.13

프랑시스 풀랑크 바이올린 소나타, FP 119

세자르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레이 첸 & 선우예권

2022. 9. 3.(토) 5:0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COUPON



30% Discount

갤러리안경(전 지점)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노벨안경콘택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해리스커피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진 맛집 BSCC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BSCC사진맛집
#부산문화회관극장 #부산시민회관극장 #포토 존

여러분이 포착한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의 아름답거나 재미있는 장면들을 사진으로 공유해주세요!
주제에 맞는 곳에서 진행되는 공연이나 풍경 등을 담아도 되고, 여러분의 멋진 포즈를 담아도 좋습니다!
이벤트 주제에 맞는 멋진 사진을 공유해주시는 5분을 선정하여 상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2022년 7월 27일(수)~9월 15일(목)



포토존 주제 부산문화회관 극장 또는 부산시민회관 극장(내·외부, 로비 모두 가능)



참여 방법 사진 인스타그램 피드 내 개별 업로드

※ 관련 해시태그 필수 : #BSCC사진맛집 #부산문화회관극장 #부산시민회관극장



당첨자 발표 - 총 5명 발표(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 예술의초대 10월호 및 SNS채널 내 당첨자 발표



유의 사항 - 제출 사진의 규격 및 해상도 제한 없으나 인스타그램 채널 내에서 허용 가능한 사진으로 제출

- 당첨자에 한해 담당자 이메일로 원본 사진파일 발송 필수

- 해당 이벤트에 참여 저조 등의 이유로 당첨자가 없을 수도 있음

- 당첨 상품은 정해진 금액에 상당하는 모바일 쿠폰으로 제공되며, 상품은 변경될 수 있음

- 해당 이벤트에 당첨된 사진은 (재)부산문화회관 SNS 채널 및 예술의초대에 게재, 사용될 수 있음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홍보팀 051-607-6126



COUPON



20% Discount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1만원 씬머니
(\$100 이상 구매 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쿠폰 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정합니다.

COUPON



5% Discount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홈페이지 예약으로만 진행되며
여행사 판매가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제2회 사진맛집 BSCC 이벤트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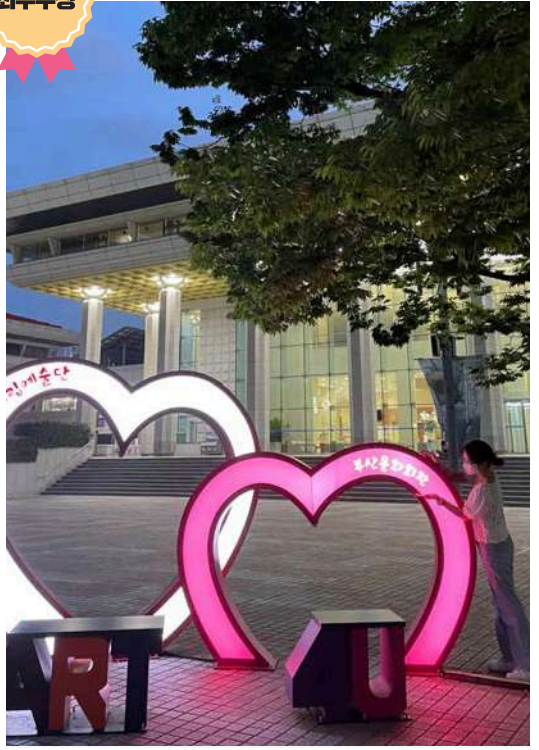


최우수상



@itit_o_o

최우수상



@ugangv

우수상



@_imyour_ag0

우수상



@fati_m94

우수상



@yun_crystal_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977-8888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2. 8. 31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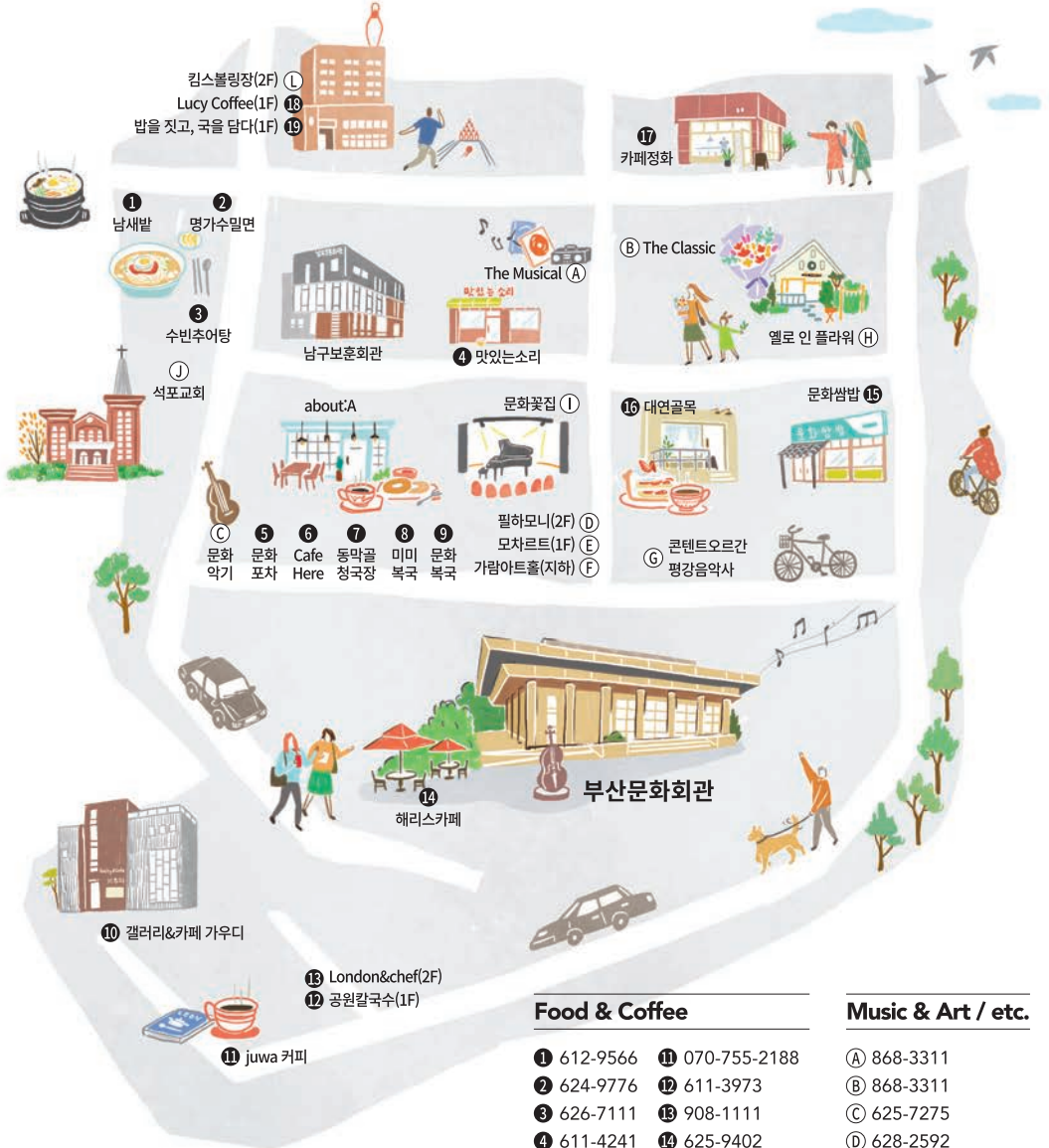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Surrounding map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Food & Coffee

- ① 612-9566 ⑪ 070-755-2188
- ② 624-9776 ⑫ 611-3973
- ③ 626-7111 ⑬ 908-1111
- ④ 611-4241 ⑭ 625-9402
- ⑤ 626-4448 ⑮ 626-2292
- ⑥ 622-7412 ⑯ 010-3996-6498
- ⑦ 611-3589 ⑰ 623-0772
- ⑧ 628-8009 ⑱ 628-3832
- ⑨ 621-7040 ⑲ 714-3559
- ⑩ 621-5788

Music & Art / etc.

- Ⓐ 868-3311
- Ⓑ 868-3311
- Ⓒ 625-7275
- Ⓓ 628-2592
- Ⓔ 622-1456
- Ⓕ 621-6669
- Ⓖ 626-7900
- Ⓘ 080-337-3370
- Ⓝ 622-9722
- Ⓞ 625-8704

COUPON



해리스커피

음료 2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내
1577-2307

COUPON



노벨안경콘택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051)626-8263

COUPON



갤러리안경(전 지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대상
3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50
051)513-4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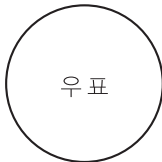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 □ □ □ □



받는 사람

이름

주소

□ □ □ □ □



INVITATION TO THE ARTS
2022 8 AUGUST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이번 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
.....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
.....

3. 개선해야 할 점은?

.....
.....

NOVUS

노부스콰르텟 오직 베토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위원회
부산문화회관

QUARTET ONLY BEETHOVEN

2022 / 08 / 19 / FRI 19:3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Jino Park

입장료 R석 5만원 / S석 3만원

주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Korea Culture Arts Centers Association

주관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Brahms, Piano Quartet No.3 in c minor, Op.60

Schubert, Piano Quintet in A Major, D.667

마에스트로 정명훈 실내악 콘서트

MAESTRO

M Y U N G W H U N C H U N G



김수연 Violin — 김사라 Viola — 송영훈 Cello — 성민제 Double bass — 그리고 정명훈 Piano

2022. 9. 21 WED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청년예술 희망프로젝트]

Supper Tiger

춤과 음악의
이어로
수퍼 타이거

연출·안무
이정윤

음악감독
김종욱

2022.

8.26 FRI 8:00 PM

-

8.27 SAT 5:0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티켓 R석 3만원 / S석 2만원 문의 051-607-6000(ARS 1번)

주최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주관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